

GOVP1200817512

발간등록번호

11-1240193-000005-01

T0025394

2005
Census 인구주택총조사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부산의 인구 · 주택 변화상

 부산지방통계청

머 리 말

부산지방통계청에서는 부산지역의 인구, 주택 등 사회변화를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2005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실시된 「2005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토대로 「부산의 인구·주택변화상」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인구주택총조사는 인구, 가구 및 주택을 대상으로 5년마다 실시되는 통계조사로서 국가 경영의 가장 기본이 되는 통계입니다.

이 책자에는 인구의 기본특성과 가구 및 주택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와 경제활동, 저출산 등 주요 관심 주제에 관한 10% 표본조사 결과를 기초로 부산지역의 상세자료를 수록 하였습니다.

각종 정책수립 및 학술 연구에 이 책자가 활용되어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기를 바라며, 끝으로 이 조사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 하여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7. 12.

부산지방통계청장 **백 만 기**

차 례

자료이용 시 유의사항	3
I. 조사 개요	4
집계결과 요약	6
II. 집계결과	9
< 전수부문 >	
1. 인 구	9
2. 가 구	31
3. 주 택	47
< 표본부문 >	
1. 인구이동·통근통학	57
2. 주거실태·경제활동	69
3. 여성·아동·고령자·활동제약자·혼인연령·1인가구	97
III. 주요용어 설명	127

자료이용 시 유의사항

1. 본 자료는 2005. 11. 1일 0시 현재를 기준으로 조사원 면접, 응답자 직접 기입 및 인터넷 조사 방법으로 조사하여 집계한 결과임
2. 모든 통계수치는 세목과 총계가 반올림됨에 따라 세목의 합계와 총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증감(률)은 원자료에서 산출하였으므로 천 단위 자료를 기준으로 산출한 수치와 다를 수 있음
3. 표본조사 항목의 집계결과는 전수집계결과와 일부수치가 다를 수 있음
4. 계에는 미상이 포함된 수치이므로 세목의 합계와 총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5. 인구이동·통근통학 부문 표본집계에는
 - 5년 전 거주지 이동인구와 통근통학인구는 일반가구(원) 및 집단(시설)가구(원)이 포함되고 특별조사구(군인 등)와 외국인가구(원)은 제외됨
6. 주거실태 부문 표본집계에는 집단(시설)가구, 외국인가구는 제외되었고, 임차료에는 주거전용 가구만 포함됨
 - 경제활동 인구는 15세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조사하였고 특별조사구(군인 등)와 외국인은 제외됨
7. 여성, 고령자, 활동제약자, 혼인연령 부문 표본집계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집계하였고,
 - 1인가구에는 외국인가가구가 제외됨
 - 아동은 만 12세 이하 및 초등학교 재학이하의 일반가구원을 대상으로 집계
8. 자료이용과 관련된 사항은 부산지방통계청 기획과 (☎ 051-850-3388)로 문의

I.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 부산 인구·가구·주택의 규모, 구조 분포 및 특성 파악

2. 조사 연혁

- 인구 총조사 : 1925년 이후 5년주기로 조사, 2005년은 17회에 해당
- 주택 총조사 : 1960년 이후 5년주기로 인구총조사와 함께 조사, 2005년은 9회에 해당

3. 법적 근거

- 「통계법」 제 17조 및 제 18조에 의한 지정통계
- 인구주택총조사 규칙(재정경제부령 제464호, 2005. 10. 18 개정)

4. 조사 대상

- 조사 기준시점 현재 부산 내에 상주하는 모든 내·외국인과 이들이 살고 있는 모든 거처

5. 조사 기준시점 및 조사 기간

- 조사 기준시점 : 2005년 11월 1일 0시 현재
- 조사 기간
 - 준비조사 : 2005. 10. 29~10. 31 (3일간)
 - 본 조사 : 2005. 11. 1~11. 15 (15일간)

6. 조사 방법 : 조사원면접, 응답자 직접기입, 인터넷조사방법 병행

7. 조사 체계

- 통계청이 주관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실시
- 군부대, 해외주재공관, 교도소·소년원, 전투경찰대, 의무소방대는 각각 국방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방재청에서 조사 실시

8. 조사 항목 : 총 44개 항목 (전수 21개, 표본 23개)

- 가구에 관한 사항 : 24개 (전수 8개, 표본 16개)
- 주택에 관한 사항 : 11개 (전수 7개, 표본 4개)
- 시·도 특성에 관한 사항 : 3개 (표본 3개)

9. 조사 결과

- 전수집계 결과(인구부문)
 - 연령별, 교육정도별, 혼인상태별, 가구주와의 관계별 인구 등의 내용을 분석하여 공표
- 전수집계 결과(가구·주택부문)
 - 가구규모, 가구구성, 가족형태, 가구주 특성과 가구의 주거형태, 주택수, 주택유형, 주택규모, 건축연도별 주택 등에 관한 내용을 분석하여 공표
- 표본집계 결과
 - 인구이동(통근·통학), 경제활동(산업·직업), 기타부문으로 나누어 2006. 10월부터 부문별 공표

<전수부문>

1. 인 구

- 2005. 11. 1. 현재 부산의 총조사 인구는 3,524천 명으로 2000년 (3,663천 명)에 비해 139천 명(3.8%) 감소
- 연령별 인구구조는 30~40대의 인구가 1,175천 명(33.5%)으로 연령별 구조의 중심을 이루면서, 30대 미만과 50대 이상은 적은 「항아리형」 인구피라미드를 나타냄
- 인구의 성별분포를 보면, 남자는 1,736천 명(49.5%) 여자는 1,777천 명 (50.5%)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41천 명 많음

2. 가 구

- 부산의 총가구수는 1,190천 가구로 2000년 1,124천 가구에 비해 66천 가구(5.9%) 증가
- 가구원수별 가구의 구성비를 살펴보면 4인 가구가 전체의 27.6%로 가장 많으며, 3인 가구(23.0%), 2인 가구(21.6%) 순으로 나타남

3. 주 택

- 부산의 총 주택 수(빈집포함)는 967천 호로 2000년에 비해 16.5% 증가하여 일반 가구 증가율 5.9%보다 큰 폭으로 증가함

<표본부문>

1. 인구이동·통근통학

- 2005. 11. 1일 기준으로 지난 5년간 부산에서 시·구·군 경계를 넘어 거주지를 이동한 5세이상 인구는 459천 명으로 2000년에 비해 249천 명 (35.1%) 감소

- 12세이상 인구 3,026천 명 중 통근·통학인구는 1,710천 명, 2000년에 비해 76천 명 감소, 통근·통학율은 56.5%
- 부산의 주간인구는 3,405천명으로, 주간인구지수는 98.4

2. 주거실태 · 경제활동

- 가구의 거주기간별 분포는 5~10년 거주가구가 274천 가구(23.1%)로 가장 많고, 1년미만 11.6%, 3~5년 13.6% 등
- 임차가구의 임차료는 평균 전세금이 3,740만원, 월세는 15만원, 사글세는 17만원이며, 보증금 있는 월세의 경우 평균 보증금은 968만원
- 부산의 취업자는 1,315천 명으로 전체 15세 이상 인구의 45.7%로 전국 평균 51.5%보다 5.8%p 낮음

3. 여성 · 아동 · 고령자 · 활동제약자 · 혼인연령 · 1인가구

- 여성인구는 1,777천명으로 2000년 대비 3.1%(56천명) 감소 ; 여성고령 인구는 28.9% 증가, 생산활동 가능연령인구는 3.7%, 유소년 인구는 14.4% 감소
- 초등학교 재학이하(0~12세)인 아동(466천명)의 주간 보육상태 중 낮 동안 부모가 전적으로 돌보는 비율은 33.3%, 일부라도 돌보는 비율 64.9%
- 65세이상 고령인구는 304천 명으로 2000년(225천 명)보다 79천 명 (34.8%) 증가
- 5세이상 인구(3,319천 명) 중 정신적·육체적 활동제약이 있는 인구는 178천 명(5.4%), 일상생활 활동제약이 있는 인구는 122천 명(3.7%)
- 평균 혼인(초혼) 연령은 남자가 27.7세, 여자가 23.9세
- 1인가구(223천 가구)는 전체가구(1,186천 가구)의 18.8%이며, 5년전 154천 가구에서 69천 가구(44.3%) 증가

여 백

Ⅱ. 집계 결과

- 전수부문 -

1. 인 구

1) 인구규모	12
2) 인구분포 및 변동	14
3) 인구구조(내국인)	18

여

백

총괄표

(단위 : 천명, %)

		부 산				천 국		
		2005년			2000년		2005년	
		인구	구성비	증감률	인구	구성비	인구	구성비
총조사 인구		3,524	100.0	△3.8	3,663	100.0	47,279	100.0
	내국인	3,513	99.7	△3.9	3,655	99.8	47,041	99.5
	외국인	11	0.3	48.2	7	0.2	238	0.5
성별	남	1,743	49.5	△4.6	1,827	49.9	23,624	50.0
	여	1,780	50.5	△3.0	1,836	50.1	24,655	50.0
연령별 (내국인)	0-14	582	16.6	△15.0	684	18.7	8,986	19.1
	15-64	2,627	74.8	△4.3	2,745	75.1	33,690	71.6
	65 +	304	8.7	34.8	225	6.2	4,365	9.3
혼인상태 (15세이상)	미혼	933	31.9	△3.6	968	32.6	11,479	30.2
	유배우	1,657	56.5	△3.5	1,717	57.8	22,557	59.3
	사별	230	7.8	7.0	215	7.2	2,880	7.6
	이혼	111	3.8	56	71	2.4	1,140	3.0
(주요 지표)								
· 성 비		97.9			99.5		99.5	
· 인구 밀도(명/km ²)		4,609.4			4,820.4		474.5	
· 인구 접근도(m)		14.7			14.4		45.9	
· 노령화 지수(%)		52.2			32.9		48.6	

※ 노령화 지수 = {노년인구/유소년인구}×100

1) 인구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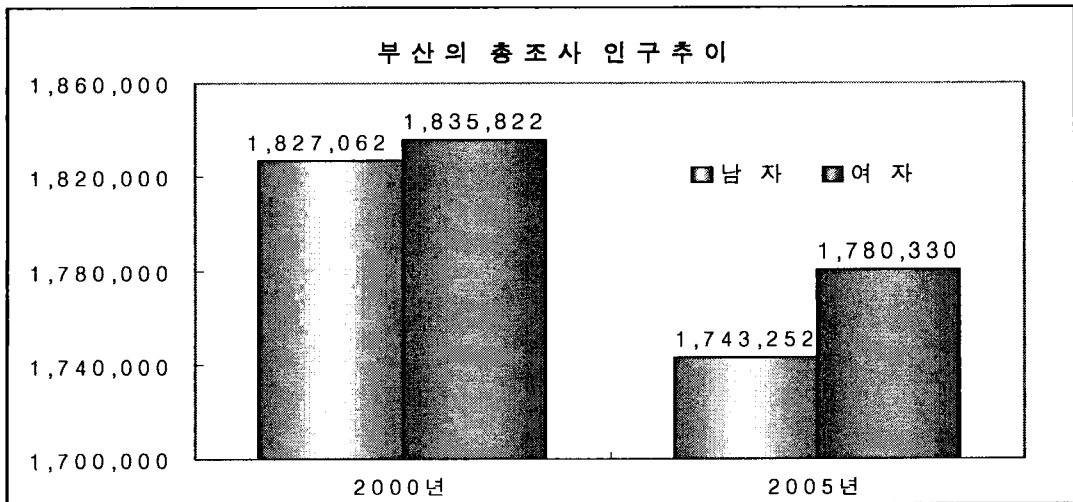
2005. 11. 1. 현재 부산의 총조사 인구는 3,524천명

- 2005. 11. 1. 현재 부산의 총조사 인구는 3,524천명으로 2000년에 비해 3.8%감소
- 성별로 보면 남자 1,743천명, 여자 1,780천명으로 여자가 약간 높은 수준이며, 2000년 총조사 대비 남자는 4.6%, 여자는 3.0% 감소
- 성별 구성비를 보면, 남자는 2000년 49.9%에서 2005년 49.5%로 0.4%p 감소한 반면, 여자는 50.1%에서 50.5%로 0.4%p 증가하였음

<표1> 총조사 인구 규모

(단위 : 천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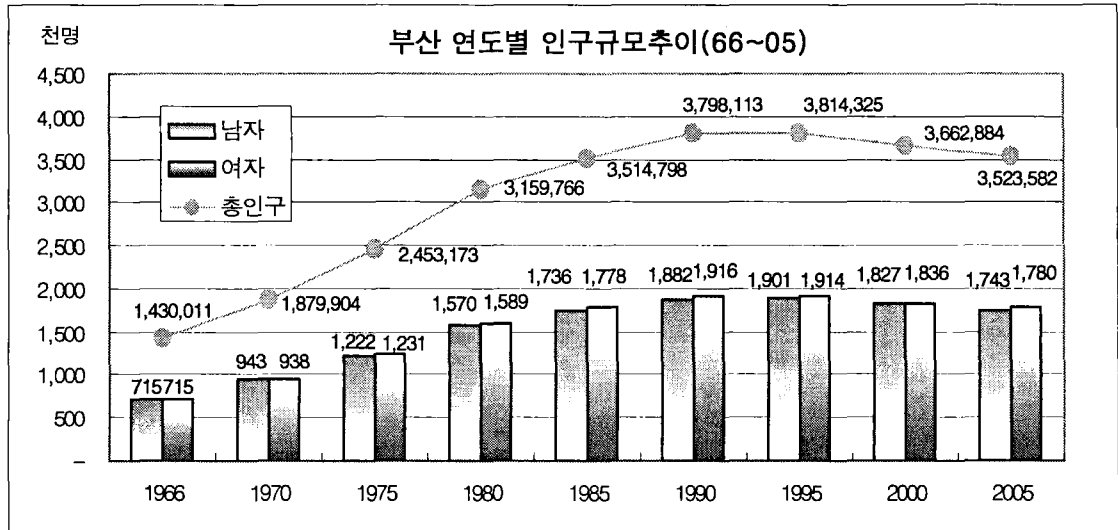
	부 산						전 국	
	2005년	구성비	2000년	구성비	증 감 인구	증감률	2005년	구성비
계	3,524	100.0	3,663	100.0	△139	△3.8	47,279	100.0
남 자	1,743	49.5	1,827	49.9	△84	△4.6	23,624	50.0
여 자	1,780	50.5	1,836	50.1	△55	△3.0	23,655	50.0



<표2>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연도별 총조사 인구

(단위 : 천명, %)

조사년도	부 산		전 국	
	인구	연평균증가율	인구	연평균증가율
2005년	3,524	△3.8	47,279	0.5
2000년	3,663	△4.0	46,136	0.7
1995년	3,814	0.4	44,609	0.5
1990년	3,798	8.1	43,411	1.4
1985년	3,515	11.2	40,448	1.6
1980년	3,160	28.8	37,436	1.5
1975년	2,453	30.5	34,707	2.4
1970년	1,880	31.5	31,466	1.4
1966년	1,430	-	29,193	2.6



2) 인구분포 및 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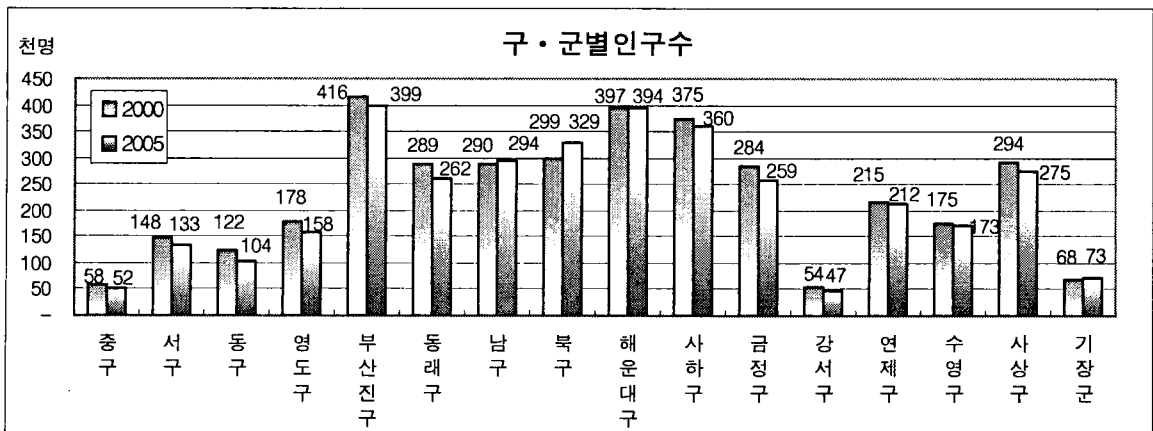
2.1. 구·군별 인구

16개 구·군 중 부산진구의 인구가 399천명(11.3%)으로 가장 많음

- 2005. 11. 1일 현재 부산의 구·군별 총조사 인구를 보면 부산진구의 인구가 399천명(11.3%)으로 가장 많으며, 해운대구 394천명(11.2%), 사하구 360천명(10.2%) 순임
- 16구·군 중 북구는 지난 5년간 인구가 31천명으로 가장 많이 증가한 반면, 동래구는 27천명으로 가장 많이 감소하였음
- 2000년 이후 북구(31천명), 기장군(5천명), 남구(4천명)순으로 인구가 증가 나머지 구·군은 감소를 나타내고 있음

<표3> 구·군별 인구증가 및 감소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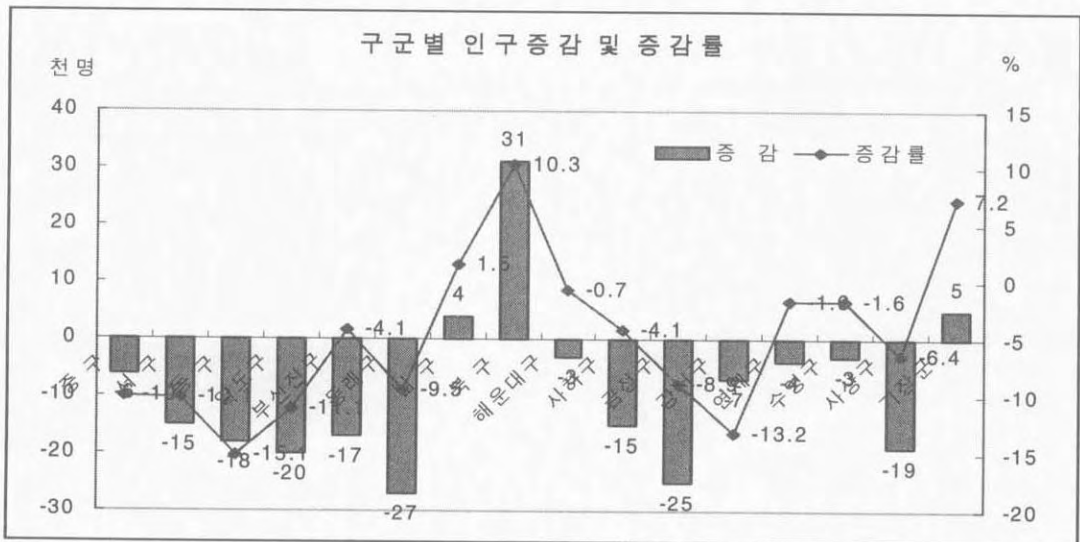
증 가	감 소
남구(1.5%) 북구(10.3%) 기장군(7.2%)	중구(△10.0%), 서구(△10.1%), 동구(△15.1%), 영도구(△11.1%), 부산진구(△4.1%), 동래구(△9.5%), 해운대구(△0.7%), 사하구(△4.1%), 금정구(△8.9%), 강서구(△13.2%), 연제구(△1.6%), 수영구(△1.6%), 사상구(△6.4%)



<표4> 구 · 군별 인구규모 및 분포

(단위 : 천명, %)

	2005년		2000년		증 감	
	인 구	구성비	인 구	구성비	인 구	증감률
부 산	3,524	100.0	3,663	100.0	△139	△3.8
중 구	52	1.5	58	1.6	△6	△10.0
서 구	133	3.8	148	4.0	△15	△10.1
동 구	104	2.9	122	3.3	△18	△15.1
영도구	158	4.5	178	4.9	△20	△11.1
부산진구	399	11.3	416	11.4	△17	△4.1
동래구	262	7.4	289	7.9	△27	△9.5
남 구	294	8.3	290	7.9	4	1.5
북 구	329	9.3	299	8.2	31	10.3
해운대구	394	11.2	397	10.8	△3	△0.7
사하구	360	10.2	375	10.2	△15	△4.1
금정구	259	7.4	284	7.8	△25	△8.9
강서구	47	1.3	54	1.5	△7	△13.2
연제구	212	6.0	215	5.9	△4	△1.6
수영구	173	4.9	175	4.8	△3	△1.6
사상구	275	7.8	294	8.0	△19	△6.4
기장군	73	2.1	68	1.9	5	7.2



2.2. 인구밀도 및 접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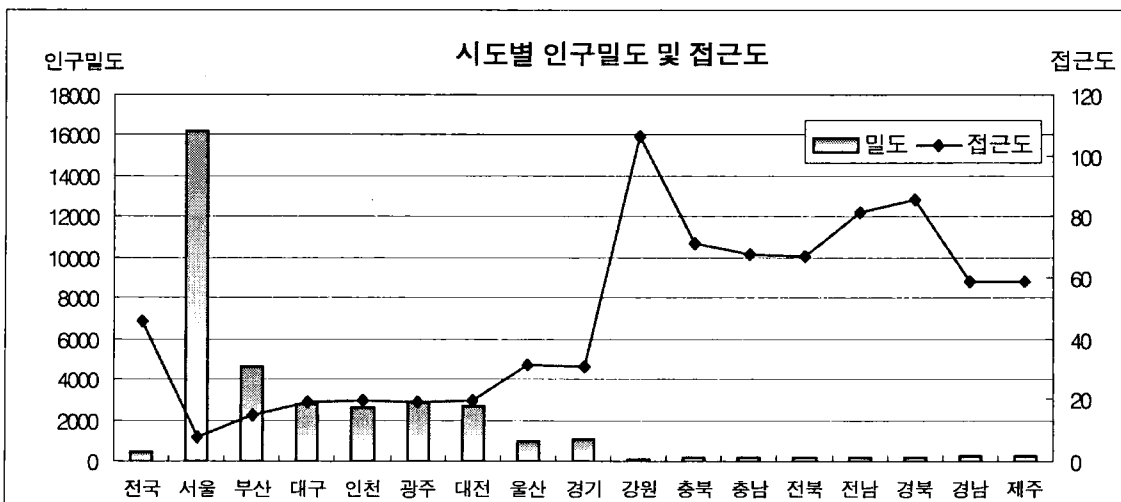
부산의 인구밀도는 4609명/km², 인구접근도는 14.7m

- 2005. 11.1 현재 부산의 인구밀도는 4,609명(km²당)으로 2000년의 4,820명보다 211명 낮아짐
 - 전국은 474명(km²당)으로 부산의 인구밀도가 10배 정도임
- km²당 인구를 동일간격으로 배치할 경우의 개인간 거리를 나타내는 인구접근도는 14.7m로 2000년(14.4m)보다 0.3m 멀어짐

<표5> 시도별 인구밀도 및 접근도

(단위 : 밀도(km²), 접근도(m))

	2005년		2000년		증 감	
	인구밀도	인구접근도	인구밀도	인구접근도	인구밀도	인구접근도
부 산	4,609	14.7	4,820	14.4	△211	0.3
전 국	474	45.9	464	46.4	10	△0.5



2.3. 구·군별 인구밀도 및 접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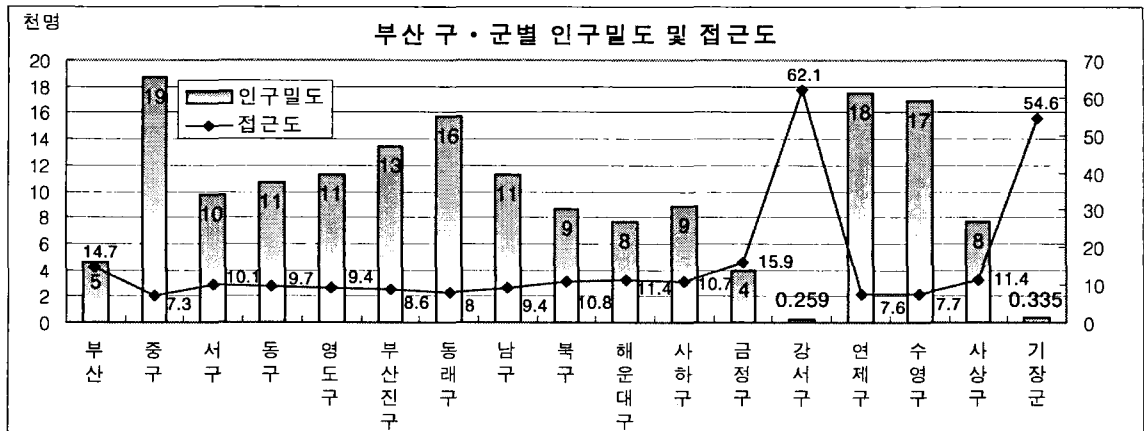
중구의 인구밀도는 18,731명/km², 강서구의 인구접근도는 62.1m

- 부산에서 중구의 인구밀도가 18,731명/km²으로 가장 높고, 강서구의 인구 접근도가 62.1m로 가장 높음

<표6> 구·군별 인구밀도 및 접근도

(단위 : 밀도(km²), 접근도(m))

	2005년		2000년		증 감	
	인구밀도	인구 접근도	인구밀도	인구 접근도	인구밀도	인구 접근도
부 산	4,609	14.7	4,820	14.4	△211	0.3
중 구	18,731	7.3	20,820	6.9	△2,090	0.4
서 구	9,716	10.1	11,084	9.5	△1,368	0.6
동 구	10,621	9.7	12,483	9.0	△1,863	0.8
영도구	11,270	9.4	12,734	8.9	△1,464	0.6
부산진구	13,444	8.6	14,033	8.4	△589	0.2
동래구	15,744	8.0	17,329	7.6	△1,585	0.4
남 구	11,300	9.4	11,305	9.4	△5	0.0
북 구	8,599	10.8	7,800	11.3	799	△0.5
해운대구	7,654	11.4	7,708	11.4	△54	0.0
사하구	8,804	10.7	9,196	10.4	△392	0.2
금정구	3,975	15.9	4,365	15.1	△390	0.7
강서구	259	62.1	304	57.3	△45	4.8
연제구	17,533	7.6	17,825	7.5	△292	0.1
수영구	16,912	7.7	17,271	7.6	△359	0.1
사상구	7,667	11.4	8,190	11.0	△523	0.4
기장군	335	54.6	313	56.5	22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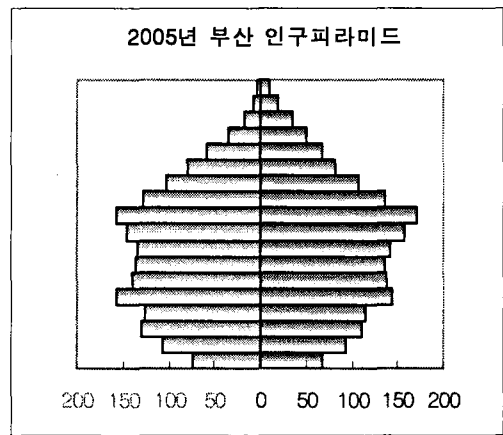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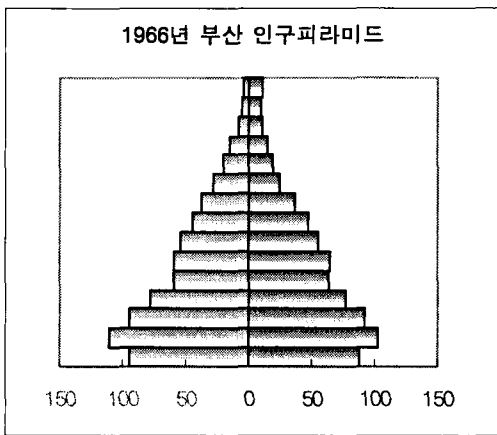


3) 인구구조(내국인)

3.1. 연령별 인구

유소년 인구(0-14세)의 비중은 2.2%p 감소
노년 인구(65세 이상)의 비중은 2.5%p 증가

- 2005년 부산의 총조사 인구는 30~40대의 인구가 1,175천명(33.5%)으로 연령별 구조의 중심을 이루면서, 30대 미만과 50대 이상은 적은 『항아리형』 인구피라미드를 나타냄
- 5세 계급별로는 45~49세 인구가 328천명(9.3%)으로 가장 많음



<표7> 5세 계급별 인구

(단위 : 천명, %)

	부 산		전 국			부 산		전 국	
	인 구	구 성 비	인 구	구 성 비		인 구	구 성 비	인 구	구 성 비
계	3,513	100.0	47,041	100.0	35-39	275	7.8	4,113	8.7
0-4	141	4.0	2,382	5.1	40-44	302	8.6	4,123	8.8
5-9	200	5.7	3,169	6.7	45-49	328	9.3	3,901	8.3
10-14	241	6.9	3,435	7.3	50-54	264	7.5	2,855	6.1
15-19	241	6.8	3,101	6.6	55-59	209	6.0	2,278	4.8
20-24	301	8.6	3,662	7.8	60-64	161	4.6	1,889	4.0
25-29	276	7.8	3,672	7.8	65-69	127	3.6	1,680	3.6
30-34	270	7.7	4,096	8.7	70세+	177	5.0	2,685	5.7

- 2005년 부산의 총조사 인구 중 유소년 인구(0~14세)는 582천명(16.6%), 생산 가능인구인 청장년 인구(15~64세)는 2,627천명(74.8%), 65세 이상의 노년 인구는 304천명(8.7%)으로 나타남
 - 유소년 인구의 비중은 16.6%로 2000년에 비해 2.2%p 감소한 반면, 노년 인구는 8.7%로 2.5%p 증가하였음
- 유소년 부양비는 22.2%, 2000년(24.9%)에 비해 2.8%p 감소한 반면 노년 부양비는 11.6%로 3.4%p 증가하였음
- 유소년인구 대비 노년인구의 비율인 노령화 지수는 52.2로 나타남
 - 2000년(32.9%)보다 19.3 증가하였으며, 전국 48.6보다 높은 수치

<표8> 연령별 인구

(단위 : 천명, %, %p)

		부 산			전 국
		2005년	2000년	증 감	2005년
유소년 (0-14세)	인 구	582	684	△103	8,986
	구성비	(16.6)	(18.7)	(△2.2)	(19.10)
청장년인구 (15-64세)	인 구	2,627	2,745	△119	33,690
	구성비	(74.8)	(75.1)	(△0.3)	(71.62)
노년인구 (65세이상)	인 구	304	225	79	4,365
	구성비	(8.7)	(6.2)	(2.5)	(9.28)
유소년 부양비		22.2	24.9	△2.8	26.7
노년 부양비		11.6	8.2	3.4	13.0
노령화 지수		52.2	32.9	19.3	48.6

※ 유소년 부양비 = (유소년 인구 / 청장년 인구) × 100
 노년 부양비 = (노년 인구 / 청장년 인구) × 100
 노령화 지수 = (노년 인구 / 유소년 인구) × 100

3.2. 성별 인구(내국인)

**2005 부산의 총조사 인구(내국인) 중
남자는 1,736천명, 여자는 1,777천명으로 여자가 41천명 더 많음**

- 외국인을 제외한 2005년 부산의 총조사 인구의 성별분포를 보면, 남자는 1,736천명 여자는 1,777천명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41천명 많음
- 5세 계급별 성비를 보면 10~14세의 성비가 117.1%으로 가장 높고, 30세 미만에서는 모두 100%초과(남자가 많음)하며, 30세 이상에서는 100% 미만(여자가 더 많음)임

<표9> 5세 계급별 성비

(단위 :%)

연령	전국	부산	연령	전국	부산
합계	99.5	97.7	40~44세	102	92.5
0~4세	108.1	108.4	45~49세	101.2	92.3
5~9세	109.2	112.1	50~54세	99.8	95.5
10~14세	112.2	117.1	55~59세	97.9	96.7
15~19세	110.3	111.7	60~64세	90.5	95.6
20~24세	109.7	110.0	65~69세	81.8	86.2
25~29세	102.5	101.1	70~74세	69.6	69.4
30~34세	101.2	99.6	75~79세	54.5	50.5
35~39세	100.9	95.2	80세이상	24.7	35.7

3.3. 교육정도별 인구(6세 이상)

고등학교 이하 졸업자는 67.4%로 전국 65.7%보다 높은 반면, 대학 졸업 이상 고학력자는 32.6%로 전국보다 낮게 나타남

가. 교육상대별 인구

- 부산의 6세 이상 총조사 인구(3,334천명)의 교육상대별 구성비를 보면 초·중·고, 대학 등 정규학교 재학자는 814천명(24.4%), 졸업자는 2,309천명(69.3%), 중퇴자는 79천명(2.4%), 불취학자 132천명(4.0%)등으로 나타남
- 졸업자는 2000년에 비해 각각 54천명 증가한 반면, 재학자, 중퇴자, 불취학자는 감소함
 - 부산의 불취학률은 4.0%로 전국 5.3%보다 1.3%p 낮음

<표10> 교육상대별 인구(6세이상)

(단위 : 천명, %)

		계	재학	졸업 (수료)	중퇴	불취학	미취학	무학	
부 산	인구	3,334	814	2,309	79	132	28	104	
	2005 (구성비)	(100.0)	(24.4)	(69.3)	(2.4)	(4.0)	(0.8)	(3.1)	
	증감	△71	△82	54	△22	△21	△6	△15	
	2000	인구	3,404	896	2,255	100	153	34	119
		구성비	100.0	26.3	66.2	2.9	4.5	1.0	3.5
	전 국	2005	인구	44,042	10,888	29,866	962	2,325	456
구성비		100.0	24.7	67.8	2.2	5.3	1.0	4.2	

- 재학인구는 초등학교가 32.1%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대학교 24.2%, 중학교 17.6% 순임
- 부산의 대학교 재학인구는 24.2%로 전국 대학교 재학인구(19.5%) 보다 4.7%p 높음

<표11> 교육정도별 인구

(단위 : 천명, %)

		계	초등	중학	고등	대학 (4년제 미만)	대학교	대학원	불취학	
6세 이상 인구	부산	인구	3,334	550	479	1,098	328	683	64	132
		구성비	100.0	16.5	14.4	32.9	9.8	20.5	1.9	4.0
	전국	구성비	100.0	18.0	12.5	32.2	9.8	19.6	2.6	5.3
재학	부산	인구	814	262	143	139	61	197	12	-
		구성비	100.0	32.1	17.6	17.1	7.5	24.2	1.4	-
	전국	구성비	100.0	36.6	18.1	16.5	7.7	19.5	1.8	-
졸업	부산	인구	2,309	273	322	942	255	466	52	-
		구성비	100.0	11.8	14.0	40.8	11.0	20.2	2.2	-
	전국	구성비	100.0	12.6	11.4	40.9	11.0	21.0	3.1	-
중퇴	부산	인구	79	15	14	17	12	19	1	-
		구성비	100.0	19.7	17.4	21.6	15.5	24.6	1.2	-
	전국	구성비	100.0	21.8	15.7	18.4	17.8	24.5	1.7	-
불취학	부산	132	-	-	-	-	-	-	-	
	전국	2,325	-	-	-	-	-	-	-	
미취학	부산	28	-	-	-	-	-	-	-	
	전국	456	-	-	-	-	-	-	-	
무학	부산	104	-	-	-	-	-	-	-	
	전국	1,870	-	-	-	-	-	-	-	

※ 대학 이상의 경우 졸업에 수료 포함

나. 학력별 졸업 인구(수료 및 중퇴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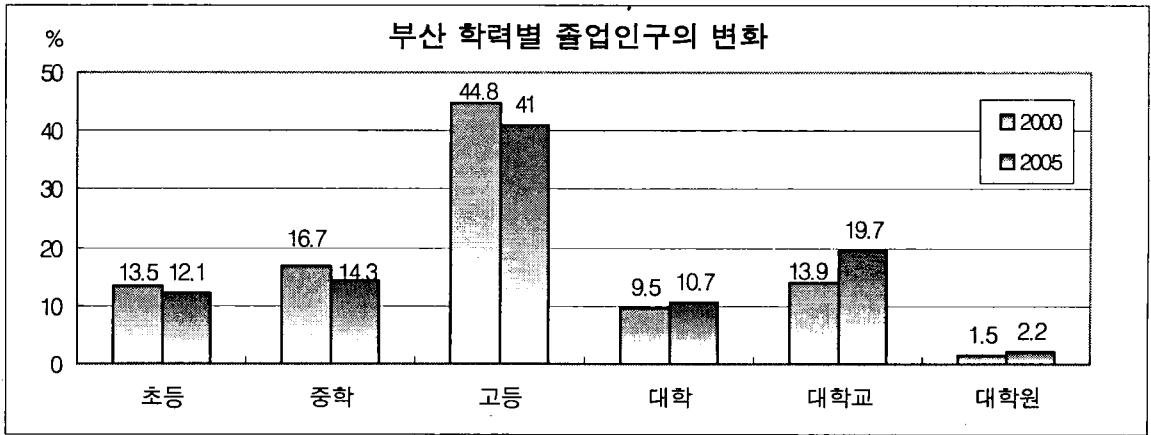
- 초등 및 중학교 졸업자는 26.4%이며, 고등학교 졸업자는 41.0%, 대학 졸업 이상은 32.6%임
- 부산시 학력별 인구분포를 보면, 고등학교 이하 졸업자는 67.4%로 전국 (65.7%)보다 1.7%p 높은 반면, 대학 졸업 이상 고학력자는 32.6%로 전국 (34.4%)보다 4.3%p 낮게 나타남

<표12> 6세 이상 인구의 학력 구성비

(단위 : %)

구분	계	고졸 이하				대학 이상			
		초등	중학	고등	대학 이상	대학 (4년제 미만)	대학교	대학원	
전국	100.0	65.7	12.8	11.7	41.2	34.3	10.8	20.5	3.0
부산	100.0	67.4	12.1	14.3	41.0	32.6	10.7	19.7	2.2
중구	100.0	72.5	12.8	14.6	45.2	26.5	10.7	14.7	1.1
서구	100.0	72.8	15.9	16.0	40.9	27.2	9.2	16.1	1.9
동구	100.0	76.0	17.8	17.5	40.7	24.0	10.1	12.9	1.0
영도구	100.0	76.0	15.8	17.9	42.3	24.0	9.7	13.0	1.2
부산진구	100.0	67.8	13.4	14.9	39.4	32.2	10.9	19.5	1.9
동래구	100.0	65.0	10.5	13.8	40.7	35.0	10.7	21.9	2.5
남구	100.0	65.4	12.6	14.1	38.7	34.6	10.3	21.4	2.8
북구	100.0	68.2	10.3	13.7	44.2	31.8	11.8	18.3	1.7
해운대구	100.0	59.5	9.3	11.3	39	40.5	10.8	26.3	3.4
사하구	100.0	68.7	11.1	13.7	44	31.3	11.0	18.4	1.8
금정구	100.0	65.1	11.3	14.0	39.8	34.9	10.4	21.6	2.9
강서구	100.0	81.4	19.9	20.3	41.2	18.6	9.2	8.5	0.9
연제구	100.0	64.2	10.9	14.1	39.2	35.8	11.3	22.1	2.4
수영구	100.0	60.0	9.5	11.7	38.8	40.0	10.8	26.0	3.2
사상구	100.0	73.5	12.9	16.6	44	26.5	10.9	14.3	1.2
기장군	100.0	72.5	16.4	14.7	41.3	27.5	10.7	15.5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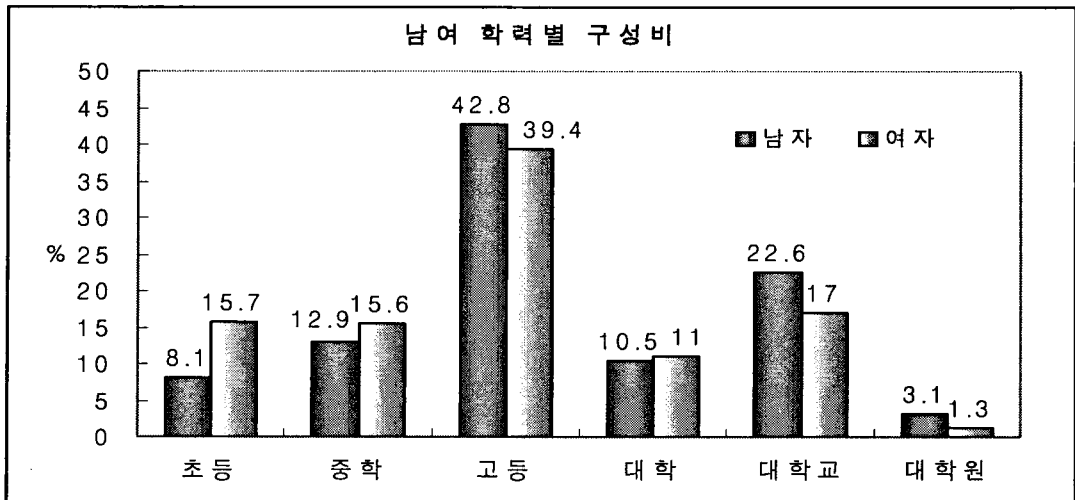
※ 중퇴는 하위 학력에 포함, 대학이상의 경우 졸업에 수료 포함



<표13> 6세 이상 남·여인구의 학력 구성비

(단위 : %)

		계	초등	중학	고등	대학 (4년제미만)	대학교	대학원
2005년	계	100.0	12.1	14.3	41.0	10.7	19.7	2.2
	남	100.0	8.1	12.9	42.8	10.5	22.6	3.1
	여	100.0	15.7	15.6	39.4	11.0	17.0	1.3
2000년	계	100.0	13.5	16.7	44.8	9.5	13.9	1.5
	남	100.0	9.1	15.2	46.9	9.5	16.9	2.3
	여	100.0	17.6	18.2	42.8	9.6	11.1	0.7



3.4. 혼인상태별 인구(15세 이상)

**15세 이상 인구의 56.5%가 유배우자이며,
미혼자는 31.8%, 이혼자는 3.8% ;이혼자 비중이 1.4%p 증가**

- 부산의 15세 이상 인구의 혼인상태별 구성비를 보면 전체 인구 중 유배우자가 56.5%로 가장 많고, 미혼자 31.8%, 사별자 7.8%, 이혼자 3.8% 순임
- 전국과 비교하면 미혼자는 1.6%p, 이혼은 0.8%p 사별은 0.2%p로 높게 나타나고 유배우자는 전국에 비해 2.8%p낮게 나타남
- 부산의 미혼자와 유배우자는 대부분의 구·군에서 비슷한 양상을 보였으나 사별은 강서구에서 11.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혼은 중구에서 7%로 가장 높게 나왔음

<표14> 혼인상태별 인구 구성비

(단위 : 천명, %)

구 분	계	미 혼	유배우	사 별	이 혼
전 국	38,055	30.2	59.3	7.6	3.0
부 산	2,931	31.8	56.5	7.8	3.8
중 구	46	32.5	49.5	11.0	7.0
서 구	114	32.4	52.3	10.4	4.8
동 구	90	31.9	52.5	10.9	4.7
영도구	135	33.5	52.4	9.7	4.4
부산진구	337	33.4	54.9	8.0	3.7
동래구	221	32.1	57.2	7.1	3.6
남 구	246	32.7	56.8	7.4	3.1
북 구	263	29.9	59.5	7.0	3.6
해운대구	317	29.4	59.9	7.2	3.5
사하구	294	31.3	57.9	7.1	3.7
금정구	219	33.9	54.9	7.5	3.7
강서구	40	31.5	53.2	11.9	3.4
연제구	178	32.0	57.2	7.1	3.7
수영구	147	31.1	57.5	7.5	4.0
사상구	225	33.0	56.0	7.2	3.8
기장군	59	26.5	59.4	10.1	4.0

- 2000년에 비해 사별은 0.6%p, 이혼은 1.4%p 증가한 반면, 미혼은 0.7%p 유배우자는 1.3%p 감소
- 이혼자 비중은 40대 50대에서 가장 높으며, 2000년에 비해 모든 연령층에서 증가를 보이는데 특히 40대 ~ 60대의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표15> 연령계급별 혼인상태별 인구구성비

(단위 : 천명, %, %p)

	2005년					2000년 대비증감			
	인구	미혼	유배우	사별	이혼	미혼	유배우	사별	이혼
구성비	100.0	31.8	56.5	7.8	3.8	△0.7	△1.3	0.6	1.4
15~19세	100.0	99.8	0.2	0	0	0.1	△0.1	0.0	0.0
20~24세	100.0	97.6	2.3	0	0.1	1.7	△1.7	0.0	0.0
25~29세	100.0	78.3	21.1	0.1	0.5	14.5	△14.5	0.0	0.0
30~34세	100.0	36.4	61.1	0.2	2.2	13.3	△13.8	△0.1	0.5
35~39세	100.0	15.5	78.9	0.7	4.9	7.3	△8.3	△0.3	1.4
40~44세	100.0	6.6	84.6	1.8	7.0	2.7	△4.0	△0.6	1.9
45~49세	100.0	3.5	84.7	3.7	8.0	1.5	△3.1	△1.1	2.7
50~54세	100.0	2.0	83.7	7.0	7.3	0.9	△2.2	△1.4	2.8
55~59세	100.0	1.1	81.7	11.6	5.6	0.3	△0.4	△2.2	2.3
60~64세	100.0	0.7	76.7	18.8	3.7	0.2	1.5	△3.3	1.6
65~69세	100.0	0.6	68.2	28.7	2.5	0.2	5.4	△6.6	1.0
70~74세	100.0	0.6	53.7	44.0	1.7	0.0	7.7	△8.4	0.7
75~79세	100.0	0.6	37.0	61.1	1.3	0.2	3.6	△4.4	0.6
80~84세	100.0	0.6	25.1	73.4	0.9	0.3	2.9	△3.7	0.5
85세 이상	100.0	0.8	13.5	85.0	0.7	0.4	2.0	△2.9	0.5

3.5. 종교 인구

부산의 인구 중 종교를 가지고 있는 인구는 2,044천명(58.2%)이며, 불교 39.2%, 기독교(개신교) 10.4%, 천주교 7.4% 순임

가. 종교유형별 인구

- 2005. 11. 1. 현재 부산의 종교를 가지고 있는 인구는 2,044천명으로 부산 인구의 58.2%이며, 전국(53.1%)에 비해 5.1%p 높음
- 종교유형별 분포를 보면 종교인구 중 불교인구가 39.2%로 가장 많고 기독교(개신교) 10.4%, 기독교(천주교) 7.4% 순으로 나타남

<표16> 종교유형별 인구 비율

(단위 : 천명, %)

	부 산		전 국	
	인 구	구성비	인 구	구성비
총 인 구	3,513	100.0	47,041	100.0
- 종교 있음	2,044	58.2	24,971	53.1
· 불교	1,378	39.2	10,726	22.8
· 기독교(개신교)	365	10.4	8,616	18.3
· 기독교(천주교)	261	7.4	5,146	10.9
· 유 교	3	0.1	105	0.2
· 원불교	7	0.2	130	0.3
· 기 타	29	0.8	247	0.5
- 종교없음	1,469	41.8	22,071	46.9

※ 종교없음에는 종교미상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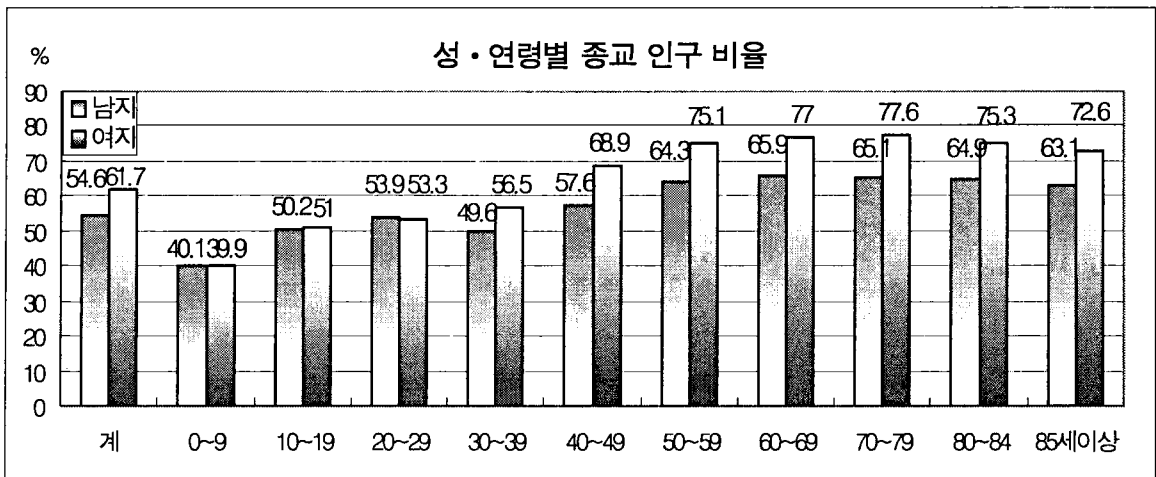
나. 성·연령별 종교 인구

- 성별 종교 인구를 보면, 남자는 54.6%, 여자는 61.7%로 여자가 7.1%p 높게 나타남
- 연령별 종교인구의 비율은 남자는 60대, 여자는 70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성 및 연령별 종교 인구의 비율을 보면, 남자는 60대, 70대, 80대, 여자는 70대, 60대, 80대 순으로 나타나 남·여 모두 고연령층이 저연령층에 비해 높게 나타남

<표17> 성 · 연령별 종교 인구

(단위 : %)

	계	남 자	여 자
계	58.2	54.6	61.7
0 ~ 9	40.0	40.1	39.9
10 ~ 19	50.6	50.2	51.0
20 ~ 29	53.6	53.9	53.3
30 ~ 39	53.1	49.6	56.5
40 ~ 49	63.5	57.6	68.9
50 ~ 59	69.8	64.3	75.1
60 ~ 69	71.7	65.9	77.0
70 ~ 79	72.8	65.1	77.6
80 ~ 84	72.3	64.9	75.3
85세이상	70.5	63.1	72.6



3.6. 남북이산가족 인구

부산 인구 중 북한에 이산가족이 있는 인구는 39천명(1.1%)
- 북한에 부모를 둔 인구는 2,860명, 형제자매 4,273명

- 부산 인구 중 북한에 이산가족이 있는 인구의 비율은 1.1%(39천명)로 전국 1.5%(716천명)보다 0.4%p 낮게 나타남
- 부산의 이산가족이 있는 인구를 가족관계별로 보면 기타 친·인척 0.9%(32천명) 형제자매 0.1%(4천명), 부모 0.1%(3천명) 순임

<표18> 이산가족 인구규모 및 가족관계

(단위 : 명, %)

		계	있음	부모	자녀	배우자	형제 자매	기타 친인척	없음	미상
부산	계	3,512,547	39,946	2,860	444	240	4,273	32,129	3,456,499	16,102
	(구성비)	(100.0)	(1.1)	(0.1)	(0.0*)	(0.0*)	(0.1)	(0.9)	(98.4)	(0.5)
	남	1,735,860	19,357	1,836	189	72	2,587	14,673	1,708,598	7,905
	여	1,776,687	20,589	1,024	255	168	1,686	17,456	1,747,901	8,197
전국	계(천명)	47,041	716	48	7	4	76	580	46,117	208
	(구성비)	(100.0)	(1.5)	(0.1)	(0.0)	(0.0)	(0.2)	(1.2)	(98.0)	(0.4)

※ * : 단위미만

<표19> 이산가족이 있는 가구원의 출생지

(단위 : 명, %)

		있음	남한	북한	해외
부산	계	39,931	30,069	9,540	322
	(구성비)	(100.0)	(75.3)	(23.9)	(0.8)
	남	19,344	14,105	5,090	149
	여	20,587	15,964	4,450	173
전국	계(천명)	716	549	162	5
	(구성비)	(100.0)	(76.6)	(22.6)	(0.8)

여 백

- 전수부문 -

2. 가 구

1) 가구 수	33
2) 가구원수별 가구 수 및 평균 가구원 수	35
3) 가구의 세대구성 및 가족형태	36
4) 가구주의 특성별 가구구성	37
5) 1인가구	41
6) 주거 형태	42
7) 타지 주택 소유여부	46

여

백

1) 가구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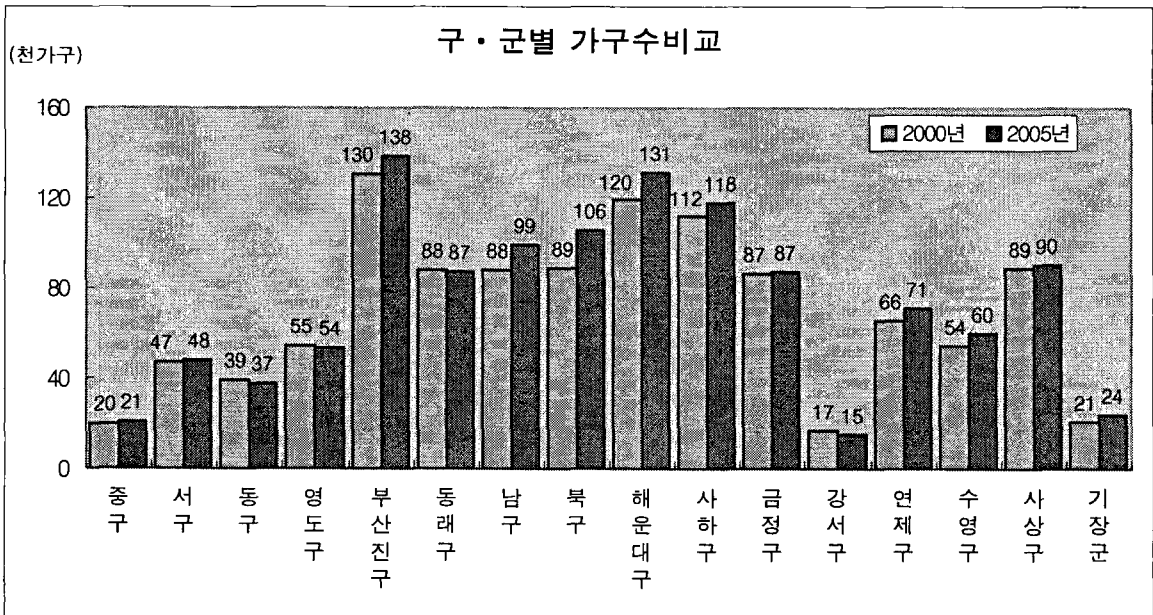
2005. 11. 1. 현재 부산의 총가구수는 1,190천 가구

○ 부산의 총가구수는 1,190천 가구로 2000년에 비해 66천 가구(5.9%) 증가하여 같은 기간의 인구가 감소(-3.8%)된 것과 다른 추세를 나타냄

	<u>2005</u>	<u>2000</u>	<u>증감</u>	<u>증감률(%)</u>
총가구수(천가구)	1,190	1,124	66	5.9

- 이 중 일반가구는 1,186천 가구로 2000년 보다 66천 가구(5.9%) 증가
- 구·군별로는 북구(17천가구), 해운대구(12천가구)순으로 많이 늘어났고, 증가율은 북구(18.9%), 기장군(15.7%)순으로 높게 나타남

※ 이하 가구에 관한 특성 분석은 부산 전체 1,190천가구 중 집단가구와 외국인가구를 제외한 일반가구 1,186천가구를 중심으로 작성함



<표1> 부산의 총조사 가구수

(단위 : 천가구, %)

	2005년	2000년	증감	증감률
총 가 구	1,190	1,124	66	5.9
- 일반가구	1,186	1,120	66	5.9
- 집단가구	1	1	0*	5.2
- 외국인가구	3	3	0*	△3.6

* : 단위미만

<표2> 부산의 총조사 일반가구수

(단위 : 천가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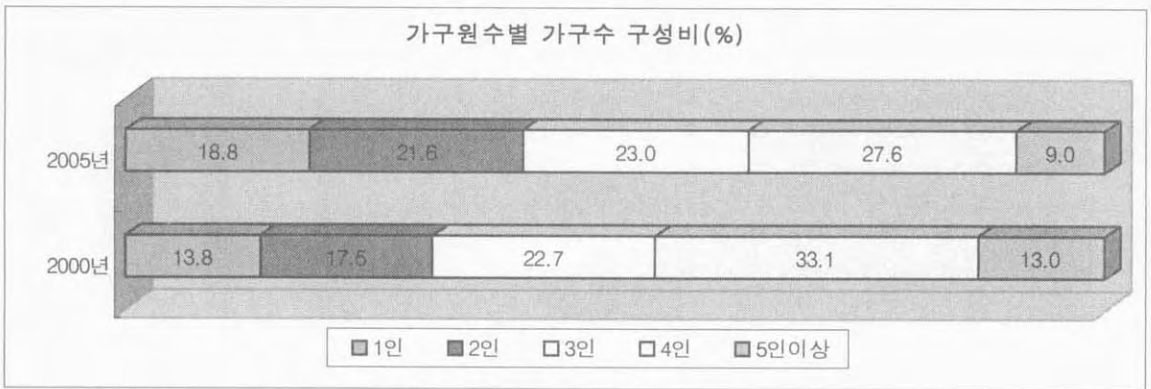
	2005년	2000년	증감	증감률
일반가구	1,186	1,120	66	5.9
중 구	21	20	1	3.9
서 구	48	47	1	1.8
동 구	37	39	△2	△4.4
영도구	54	55	△1	△2.0
부산진구	138	130	8	6.3
동래구	87	88	△1	△0.8
남 구	99	88	11	12.3
북 구	106	89	17	18.9
해운대구	131	120	12	9.6
사하구	118	112	6	5.6
금정구	87	87	0*	0.4
강서구	15	17	△1	△7.9
연제구	71	66	5	7.7
수영구	60	54	6	10.4
사상구	90	89	1	1.6
기장군	24	21	3	15.7

* : 단위미만

2) 가구원수별 가구 수 및 평균 가구원 수

4인 가구가 전체의 27.6%로 가장 많음

- 가구원수별 가구의 구성비를 살펴보면 4인 가구가 전체의 27.6%로 가장 많으며, 3인 가구(23.0%), 2인 가구(21.6%) 순으로 나타남
- 2000년에 비해 4인 이상 가구는 감소한 반면 1인 가구(68천가구), 2인 가구(60천가구)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평균가구원수는 2000년(3.2명)에 비해 0.3명이 줄어든 2.9명으로 나타남
- 부산이 전국(2.88명)에 비해 0.02명 많음

<표3> 가구원수별 가구수

(단위 : 천가구, %, %p 명)

		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이상	평균 가구원수
부 산	2005년	1,186 (100.0)	223 (18.8)	257 (21.6)	273 (23.0)	327 (27.6)	84 (7.1)	17 (1.5)	5 (0.4)	2.9
	2000년	1,120 (100.0)	154 (13.8)	196 (17.5)	254 (22.7)	370 (33.1)	112 (10.0)	25 (2.2)	8 (0.7)	3.2
	증 감	66	68	60	19	△43	△28	△8	△3	△0.3
	증감률(%p)	5.9	6.1	5.4	1.7	△3.9	△2.5	△0.7	△0.3	-
전 국	2005년	15,887 (100.0)	3,171 (20.0)	3,521 (22.2)	3,325 (20.9)	4,289 (27.0)	1,222 (7.7)	267 (1.7)	93 (0.6)	2.88

3) 가구의 세대구성 및 가족형태

한부모 + 자녀 / 조부모 + 손자녀 가구 각각 15%이상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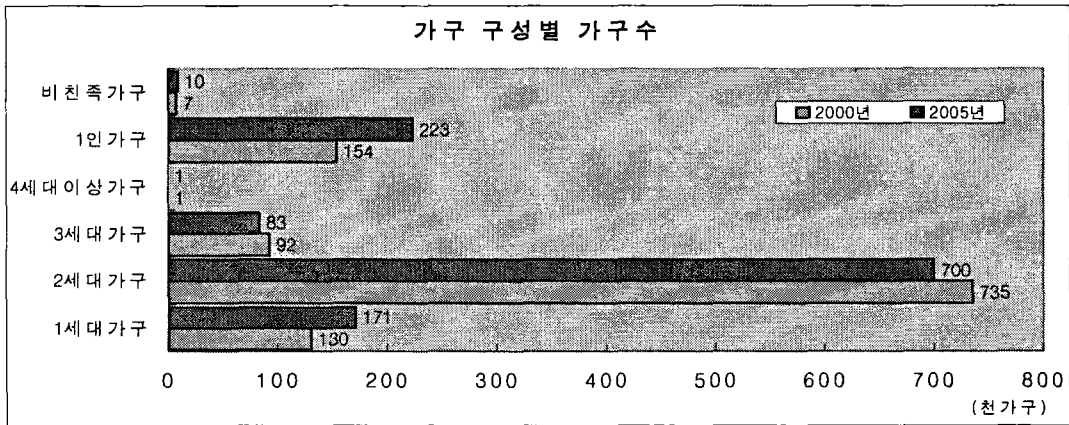
- 일반가구 중에는 주로 부·모와 자녀로 구성되는 2세대 가구의 비중이 59.0%로 가장 많으며, 2000년에 비해 1세대가구의 비중이 31.0% 증가함
- 2000년에 비해 1세대가구를 제외한 2세대, 3세대, 4세대 이상 가구는 감소함
 - 1세대가구 (31.0%증가) · 2세대가구 (4.9%감소)
 - 3세대가구 (9.7%감소) · 4세대이상 가구 (29.6%감소)
- 1세대가구의 비율은 전국보다 낮고, 2세대와 3세대가구의 비율은 전국보다 높음
- 2세대가구 중 가장 대표적인 가족 형태인 '부부+자녀'가구는 2000년에 비해 9.7%(56천가구) 감소한 반면, '한부모+자녀'가구는 16.0%(18천가구), '조부모+손자녀'는 41.9%(1천가구) 증가하였음

<표4> 가구 구성 및 가족형태

(단위 : 천가구, %)

		부 산						전 국	
		2005년		2000년		증 감	증감률	2005년	
계		1,186	(100.0)	1,120	(100.0)	66	5.9	15,887	(100.0)
친 족 가 구	· 1세대가구	171	(14.4)	130	(11.6)	40	31.0	2,575	(16.2)
	· 2세대가구	700	(59.0)	735	(65.7)	△36	△4.9	8,807	(55.4)
	부부+자녀	523	(44.1)	579	(51.7)	△56	△9.7	6,702	(42.2)
	한부모+자녀	130	(10.9)	112	(10.0)	18	16.0	1,370	(8.6)
	조부모+손자녀	4	(0.3)	3	(0.2)	1	41.9	58	(0.4)
	· 3세대가구	83	(7.0)	92	(8.2)	△9	△9.7	1,093	(6.9)
	· 4세대가구이상	1	(0.1)	1	(0.1)	0*	△29.6	16	(0.1)
1인가구		223	(18.8)	154	(13.8)	68	44.3	3,171	(20.0)
비친족가구		10	(0.8)	7	(0.6)	3	37.7	226	(1.4)

* : 단위미만



4) 가구주의 특성별 가구구성

4.1. 가구주의 성 및 연령별

2000년에 비해 여자 가구주 27.7% 증가

○ 성별로 보면 남자 가구주가 909천명(76.6%), 여자 가구주 278천명(23.4%)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3.0배 이상 많으나, 2000년 대비 증가율은 여자가구주(27.7%)가 남자(0.7%)보다 높게 나타남

- 부산의 여자 가구주 비율(23.4%)은 전국(21.9%)보다 높음

<표5> 가구주의 성별 가구구성

(단위 : 천명, %)

	부 산						전 국	
	2005년		2000년		증 감	증감률	2005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계	1,186	(100.0)	1,120	(100.0)	66	(5.9)	15,887	(100.0)
남자	909	(76.6)	903	(80.6)	6	(0.7)	12,402	(78.1)
여자	278	(23.4)	217	(19.4)	60	(27.7)	3,485	(21.9)

4.2. 가구주의 연령별

여자 가구주는 모든 연령층에서 2000년보다 증가한 반면,
남자 가구주는 50세 미만에서 감소

- 가구주의 연령은 40~49세가 28.4%로 가장 많음
- 남자 가구주의 경우 50세 미만에서는 2000년보다 감소한 반면, 50세 이상에서는 증가하였음
- 여자 가구주의 경우 모든 연령층에서 2000년보다 증가하였음

<표6> 가구주의 연령별 가구구성

(단위 : 천명, %)

	부 산						전 국	
	2005년		2000년		증 감	증감률	2005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계	1,186	100.0	1,120	100.0	66	5.9	15,887	100.0
30세미만	74	6.2	80	7.1	△6	△7.8	1,388	8.7
30~39세	219	18.5	261	23.3	△42	△16.0	3,586	22.6
40~49세	337	28.4	337	30.1	0	△0.1	4,369	27.5
50~59세	280	23.6	240	21.4	40	16.8	2,979	18.7
60세이상	277	23.3	202	18.1	74	36.6	3,565	22.4
남자	909	100.0	903	100.0	6	0.7	12,402	100.0
30세미만	43	4.7	56	6.2	△13	△23.1	845	6.8
30~39세	185	20.3	233	25.8	△48	△20.7	3,085	24.9
40~49세	277	30.5	287	31.7	△9	△3.3	3,687	29.7
50~59세	222	24.4	193	21.4	29	15.1	2,417	19.5
60세이상	182	20.0	135	14.9	47	35.2	2,367	19.1
여자	278	100.0	217	100.0	60	27.7	3,485	100.0
30세미만	31	11.1	24	11.1	7	27.4	544	15.6
30~39세	25	12.4	28	12.9	7	23.3	501	14.4
40~49세	60	21.6	51	23.3	9	18.0	682	19.6
50~59세	58	20.8	47	21.5	11	23.9	561	16.1
60세이상	94	34.0	68	31.2	27	39.5	1,197	34.4

4.3. 가구주의 교육정도별

초등학교 이하의 가구주는 16.3%로 전국(17.9%)보다 낮음

- 가구주의 교육정도를 보면 고등학교 학력 보유자가 37.7%(447천명)로 가장 많고, 4년제 대학교(20.2%), 초등학교 이하(16.3%)순으로 나타남
- 2000년에 비해 중학교가구주가 감소(5.9%)한 반면, 대학교(34.1%)와 대학원 이상(33.1%)가구주에서 높은 증가율을 보임
- 대학교(20.2%)와 대학원 이상(3.1%)의 가구주의 비율이 전국의 대학교(22.1%)와 대학원 이상(4.5%)의 가구주의 비율보다 낮게 나타남

<표7> 가구주의 교육정도

(단위 : 천명, %)

	2005년		2000년		증 감	증감률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부 산	1,186	100.0	1,120	100.0	66	5.9
초등이하	193	16.3	193	17.2	0*	0.2
중 학교	171	14.4	182	16.2	△11	△5.9
고등학교	447	37.7	445	39.7	2	0.4
대학(4년제미만)	96	8.1	92	8.2	4	4.5
대 학교	240	20.2	179	16.0	61	34.1
대학원이상	38	3.2	29	2.6	10	33.1
전 국	15,887	100.0	14,312	100.0	1,575	11.0
초등이하	2,839	17.9	2,915	20.4	△75	△2.6
중 학교	1,776	11.2	1,848	12.9	△72	△3.9
고등학교	5,629	35.4	5,265	36.8	363	6.9
대학(4년제미만)	1,427	9.0	1,261	8.8	166	13.2
대 학교	3,506	22.1	2,506	17.5	1,001	39.9
대학원이상	710	4.5	516	3.6	193	37.4

※ 재학, 중퇴인 경우에도 해당 교육정도로 집계(예, 고등학교 중퇴 → 고등학교)

* : 단위미만

4.4. 가구주의 혼인상태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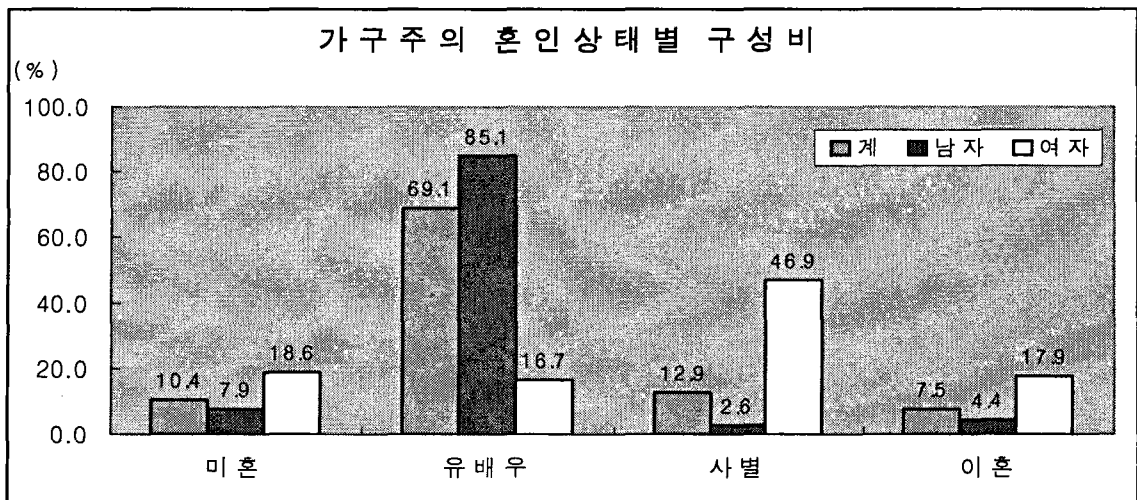
2000년에 비해 미혼, 사별, 이혼 가구주 증가

- 가구주 중에는 유배우가 69.1%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2000년에 비해 유배우가구주의 구성비(6.0%p)는 감소하고, 미혼(2.3%p), 사별(1.3%p), 이혼(2.5%p)은 모두 증가하였음
- 이혼가구주는 7.5%로 전국 5.7%에 비해 1.8%p 높게 나타남
 - 성별로 보면 여자 가구주의 17.9%가 이혼한 것으로 나타나 전국(14.4%)보다 3.5%p 높음

<표8> 가구주의 혼인상태별 구성비

(단위 : %, %p)

		2005년					2000년					증 감(%p)			
		계	미혼	유배우	사별	이혼	계	미혼	유배우	사별	이혼	미혼	유배우	사별	이혼
부 산	계	100.0	10.4	69.1	12.9	7.5	100.0	8.1	75.1	11.7	5.1	2.3	△6.0	1.3	2.5
	남자	100.0	7.9	85.1	2.6	4.4	100.0	6.0	89.2	2.0	2.8	1.9	△4.1	0.6	1.6
	여자	100.0	18.6	16.7	46.9	17.9	100.0	17.0	16.6	51.9	14.5	1.6	0.1	△5.1	3.3
전 국	계	100.0	12.8	70.0	11.5	5.7	100.0	10.2	75.0	10.9	3.9	2.6	△5.0	0.6	1.8
	남자	100.0	9.8	84.6	2.3	3.2	100.0	7.6	88.3	1.9	2.1	2.2	△3.7	0.4	1.1
	여자	100.0	23.2	17.9	44.4	14.4	100.0	21.4	16.6	50.5	11.6	1.8	1.3	△6.1	2.8



5) 1인가구

1인 가구는 모든 연령층에서 증가하여 2000년보다 44.3%증가

- 현재 부산의 1인 가구는 223천 가구로 2000년 154천 가구에 비하여 68천 가구 (44.3%)가 증가
 - 연령별로 보면 40대가 1인 가구의 17.5%로 가장 많음
 - 2000년 대비 연령별 증가율을 보면, 70대가 70.4%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30세 미만은 32.2%로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임
 - 전국과 1인 가구의 구성비를 비교해 보면, 40~60대의 구성비는 부산이 높은 반면, 다른 연령층에서는 전국이 높게 나타남

<표9> 연령별 1인가구

(단위 : 천가구, %)

	2005년		2000년		증 감	증감률
	가구수	구성비	가구수	구성비		
부 산	223	100.0	154	100.0	68	44.3
30세 미만	39	17.4	29	18.9	9	32.2
30~39세	38	17.1	29	18.6	9	32.4
40~49세	39	17.5	27	17.2	12	46.4
50~59세	35	15.7	22	14.3	13	58.3
60~69세	36	16.3	27	17.3	10	36.2
70세이상	36	16.1	21	13.6	15	70.4
전 국	3,171	100.0	2,224	100.0	946	42.5
30세 미만	723	22.8	561	25.2	162	29.0
30~39세	629	19.9	415	18.7	214	51.6
40~49세	474	15.0	295	13.3	179	60.7
50~59세	366	11.5	246	11.1	120	48.7
60~69세	430	13.6	352	15.8	78	22.3
70세이상	548	17.3	355	16.0	193	54.3

6) 주거 형태

6.1. 거처의 종류

아파트에 살고 있는 가구가 43.9%로 가장 많음

- 가구의 주택유형을 살펴보면 아파트에 살고 있는 가구가 43.9% (521천가구)로 가장 많으며, 단독주택 42.1%, 다세대주택 7.4%순으로 나타남
- 2000년에 비해 아파트(96천가구), 다세대주택(57천가구)에 거주하는 가구는 증가한 반면, 단독주택(58천가구), 연립주택(19천가구)은 감소
- 2000년 대비 증가율을 보면 전국, 부산 모두 주택 중 다세대주택과 주택 이외의 거처의 증가율이 매우 높게 나타남

<표10> 주택유형별 가구수

(단위 : 천가구, %)

		계	단독주택	아 파 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 택	영업용 건물 내 주택	주택 이외의 거처
부산	2005년	1,186 (100.0)	499 (42.1)	521 (43.9)	39 (3.3)	88 (7.4)	24 (2.0)	16 (1.3)
	2000년	1,120 (100.0)	557 (49.7)	425 (38.0)	58 (5.2)	31 (2.8)	44 (3.9)	5 (0.4)
	증감	66	△58	96	△19	57	△20	11
	증감률	5.9	△10.4	22.5	△32.8	181.2	△45.6	237.4
전국	2005년	15,887 (100.0)	7,064 (44.5)	6,629 (41.7)	527 (3.3)	1,168 (7.4)	282 (1.8)	217 (1.4)
	2000년	14,312 (100.0)	7,103 (49.6)	5,238 (36.6)	836 (5.8)	458 (3.2)	593 (4.1)	84 (0.6)
	증감	1,575	△39	1,391	△309	710	△311	133
	증감률	11.0	△0.5	26.6	△37.0	155.1	△52.5	157.1

6.2. 거처 점유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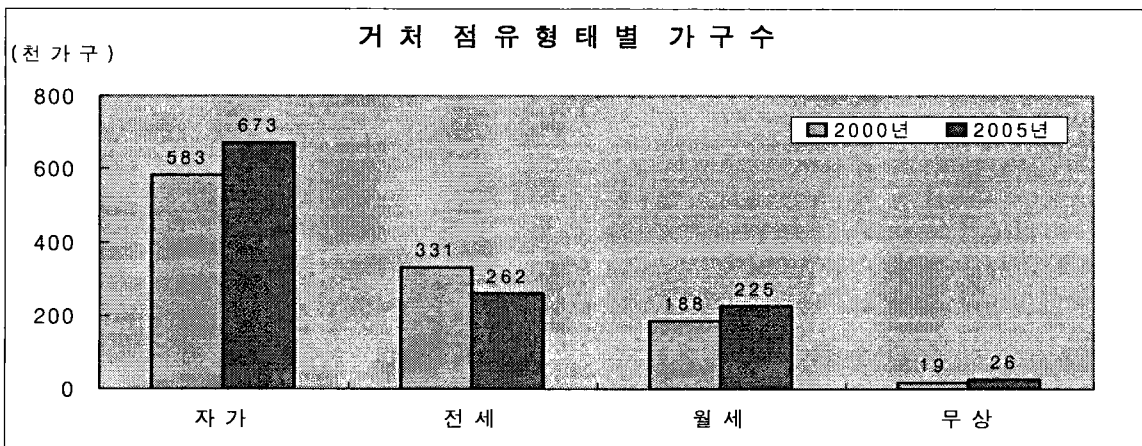
부산의 가구 중 56.7%가 자기집에 살고 있음

- 거처의 점유형태를 보면 자기집에 살고 있는 가구가 56.7%(673천가구)로 가장 많으며, 전세(22.1%), 월세(19.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2000년에 비해 자가(15.5%), 월세(20.0%), 무상(41.4%)은 증가한 반면, 전세(20.8%)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거처 점유형태를 구성비를 전국과 비교해보면, 부산은 자가비율이 56.7%로 전국 55.6%보다 1.1%p 높게 나타남

<표11> 거처 점유형태

(단위 : 천가구, %)

		계	자가	전세	월세	무상
부 산	2005년	1,186 (100.0)	673 (56.7)	262 (22.1)	225 (19.0)	26 (2.2)
	2000년	1,120 (100.0)	583 (52.0)	331 (29.6)	188 (16.7)	19 (1.7)
	증 감	66	90	△69	37	8
	증감률	5.9	15.5	△20.8	20.0	41.4
전 국	2005년	15,887 (100.0)	8,828 (55.6)	3,557 (22.4)	3,012 (19.0)	490 (3.1)
	2000년	14,312 (100.0)	7,753 (54.2)	4,040 (28.2)	2,113 (14.8)	406 (2.8)
	증 감	1,575	1,075	△483	899	85
	증감률	11.0	13.9	△12.0	42.5	20.9



6.3. 사용방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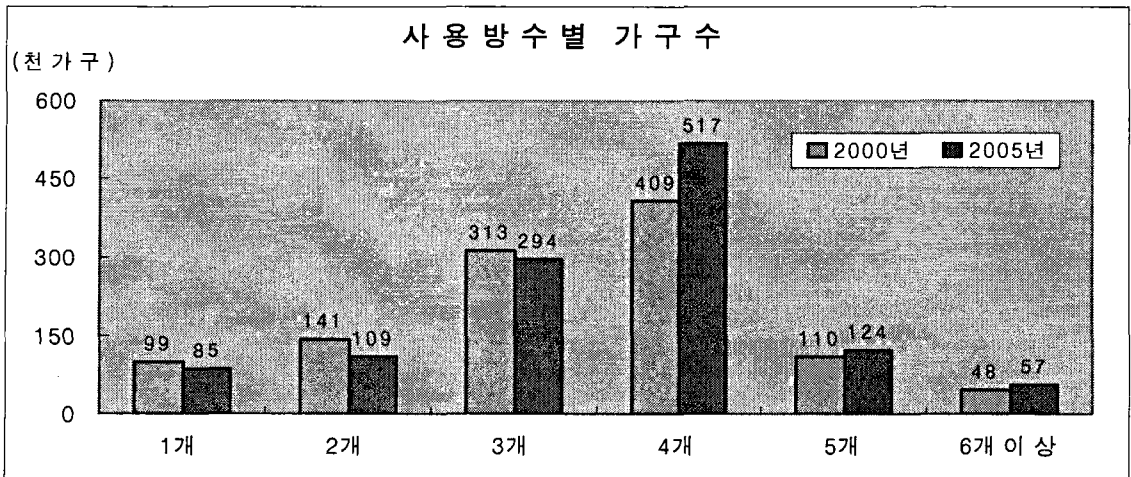
**사용방수가 4개인 가구가 43.6%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3개(24.8%), 5개(10.5%) 순임**

- 가구의 사용방수를 보면 4개의 방을 사용하는 가구가 43.6%로 가장 많고, 3개 사용가구(24.8%), 5개 사용가구(10.5%) 순으로 나타남
- 2000년에 비해 4개 미만의 방을 사용하는 가구는 모두 감소
- 가구의 평균 사용방수는 3.6개로 2000년보다 0.2개 증가하여 전국(3.6개)와 같음

<표12> 사용방수별 가구

(단위 : 천가구, %, 개)

		사 용 방 수							평균사용방수
		계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이상	
부 산	2005년	1,186 (100.0)	85 (7.2)	109 (9.2)	294 (24.8)	517 (43.6)	124 (10.5)	57 (4.8)	3.6
	2000년	1,120 (100.0)	99 (8.9)	141 (12.6)	313 (27.9)	409 (36.5)	110 (9.8)	48 (4.3)	3.4
	증감	66	△14	△32	△19	108	14	9	0.2
	증감률	5.9	△13.8	△22.8	△6.0	26.3	13.1	18.8	
전 국	2005년	15,887 (100.0)	1,025 (6.5)	1,323 (8.3)	4,070 (25.6)	6,887 (43.4)	1,916 (12.1)	665 (4.2)	3.6
	2000년	14,312 (100.0)	1,124 (7.9)	1,673 (11.7)	4,352 (30.4)	5,279 (36.9)	1,413 (9.9)	471 (3.3)	3.4
	증감	1,575	△98	△350	△282	1,608	503	194	0.2
	증감률	11.0	△8.7	△20.9	△6.5	30.5	35.6	41.3	



6.4. 주거시설형태

입식부엌을 사용하는 가구는 97.1%, 수세식 화장실은 95.2%,
온수 목욕시설이 있는 가구는 93.5%로 나타남

- 주거시설형태별 가구의 분포를 보면 입식부엌을 사용하는 가구는 97.1%, 수세식 화장실 95.2%, 온수 목욕시설이 있는 가구는 93.5%로 나타남
- 2000년에 비해 입식부엌시설, 수세식 화장실, 온수 목욕시설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13> 주거시설형태

(단위 : 천가구, %)

	2005년		2000년		증 감	증감률
계	1,186	(100.0)	1,120	(100.0)	66	5.9
부엌시설						
· 입 식	1,512	(97.1)	1,033	(92.2)	119	11.5
· 재래식	30	(2.5)	84	(7.5)	△54	△64.2
· 없 음	5	(0.4)	3	(0.3)	1	38.8
화장실						
· 수세식	1,130	(95.2)	1,002	(89.4)	128	12.8
· 재래식	51	(4.3)	110	(9.9)	△59	△53.9
· 없 음	6	(0.5)	8	(0.7)	△3	△33.2
목욕시설						
· 온수시설	1,110	(93.5)	935	(83.4)	175	18.7
· 비온수시설	2	(0.2)	13	(1.1)	△11	△85.4
· 없 음	75	(6.3)	173	(15.4)	△98	△56.6

7) 타지 주택 소유여부

현재 살고 있는 집 이외에 타지에 1채 이상 주택 소유가구는 11.0%

○ 부산에서 다른 지역에 주택을 소유한 가구는 131천가구로 전체가구의 11.0%로 나타남

※ 「타지 주택 소유가구」란 현재 살고 있는 집 이외에, 가구주나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다른 지역에 1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를 말함

- 타지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의 점유형태별로 보면 현재 자가에 살고 있는 가구가 68.2%로 가장 많고, 전세(22.1%), 월세(7.0%), 무상(2.7%)의 순임

○ 전국의 타지주택 소유비중은 11.3%로 부산(11.0%)이 0.3%p 낮음

<표14> 타지역 주택 소유가구의 거주형태

(단위 : 천가구, %)

		계		자 가	전 세	월 세	무 상
			구성비				
부산	합 계	1,186		673	262	225	26
	구성비	(100.0)	100.0	(56.7)	(22.1)	(19.0)	(2.2)
	- 타지주택소유	131	11.0	89	29	9	3
	구성비	(100.0)		(68.2)	(22.1)	(7.0)	(2.7)
	- 타지주택미소유	1,055	89.0	583	233	216	23
	구성비	(100.0)		(55.3)	(22.1)	(20.5)	(2.2)
전국	합 계	15,887		8,828	3,557	3,012	490
	구성비	(100.0)	100.0	(55.6)	(22.4)	(19.0)	(3.1)
	- 타지주택소유	1,794	11.3	1,047	505	163	79
	구성비	(100.0)		(58.4)	(28.2)	(9.1)	(4.4)
	- 타지주택미소유	14,093	88.7	7,781	3,052	2,849	411
	구성비	(100.0)		(55.2)	(21.7)	(20.2)	(2.9)

- 전수부문 -

3. 주 택

1) 주택 수	49
2) 주택유형	50
3) 거주가구수별 주택	51
4) 주택의 방수	52
5) 주택의 규모	53
6) 건축년도별 주택	54
7) 주택유형별 빈집수	55

여

백

1) 주택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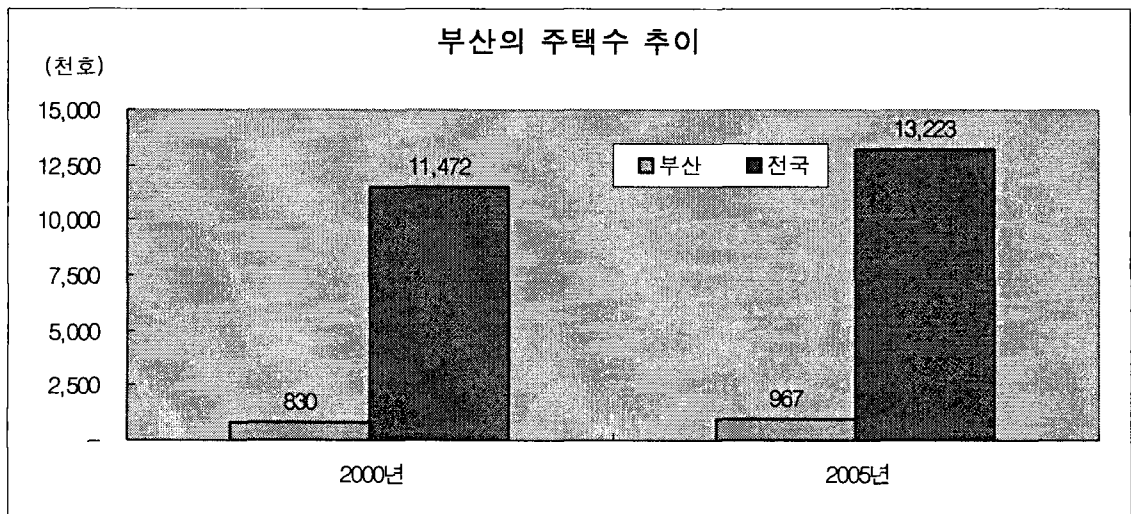
2005. 11. 1. 현재 부산의 총 주택 수는 967천 호로 나타남

- 부산의 총 주택 수(빈집포함)는 967천 호로 2000년에 비해 16.5% 증가하여 일반 가구 증가율 5.9%보다 큰 폭으로 증가함
- 빈집 증가율은 114.3%로 전국 증가율(41.9%)보다 높음

<표1> 부산의 주택수

(단위 : 천호, %)

	2005년	2000년	증 감	증감률
부 산	967	830	137	16.5
빈 집	54	25	29	114.3
전 국	13,223	11,472	1,750	15.3
빈 집	728	513	215	41.9



2) 주택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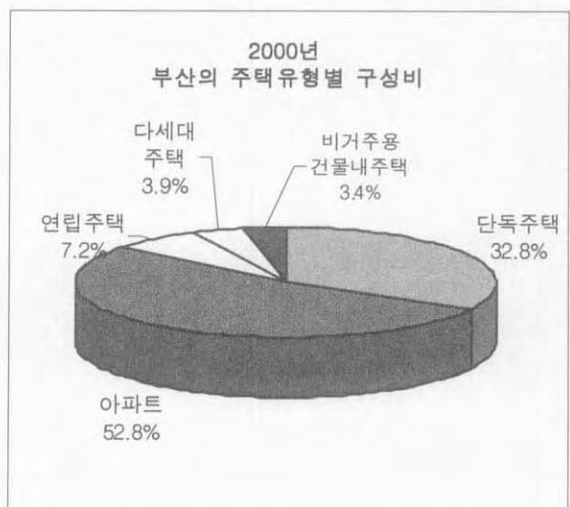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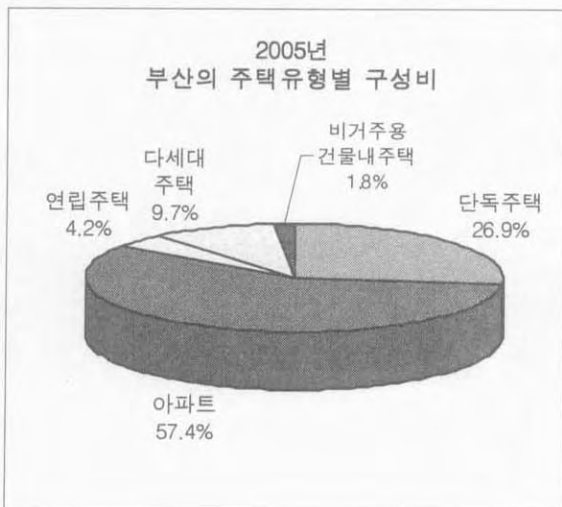
아파트가 57.4%로 가장 많고,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순임

- 주택유형을 보면 아파트가 57.4%(555천호)로 가장 많아 아파트가 전체 주택의 절반을 넘어섰고,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의 순으로 나타남
- 2000년에 비해 연립주택, 비거주용 건물내주택, 단독주택 등이 감소한 반면,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은 증가함

<표2> 주택유형

(단위 : 천호, %)

		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거주용 건물내주택
부산	2005년	967 (100.0)	261 (26.9)	555 (57.4)	41 (4.2)	93 (9.7)	17 (1.8)
	2000년	805 (100.0)	264 (32.8)	425 (52.8)	58 (7.2)	31 (3.9)	28 (3.4)
	증감	162	△3	130	△17	62	△11
	증감률	20.1	△1.2	30.5	△28.7	200.4	△38.5
전국	2005년	13,223 (100.0)	4,264 (32.2)	6,963 (52.7)	559 (4.2)	1,229 (9.3)	209 (1.6)
	2000년	11,472 (100.0)	4,269 (37.2)	5,480 (47.8)	850 (7.4)	472 (4.1)	401 (3.5)
	증감	1,750	△6	1,483	△291	757	△193
	증감률	15.3	△0.1	27.1	△34.3	160.3	△48.0



3) 거주가구수별 주택

한 주택에 한 가구만 살고 있는 주택의 비율이 85.1%로 나타남

- 한 주택에 한 가구만 살고 있는 주택의 비율이 85.1%(778천호)로 전국 (90.2%)에 비해 낮고, 2가구 이상 거주하는 주택의 비율은 높음
- 단독주택의 경우 1가구 거주주택이 47.5%, 2가구 거주주택이 26.5%인 반면, 공동주택인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은 1가구 거주주택이 모두 99.0% 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남

<표3> 거주가구수별 주택유형

(단위 : 천호, %)

		계	1가구	2가구	3가구	4가구	5가구	6가구 이상
부 산	합 계	913 (100.0)	778 (85.1)	70 (7.6)	39 (4.3)	15 (1.7)	7 (0.7)	6 (0.6)
	· 단독주택	250 (100.0)	119 (47.5)	66 (26.5)	38 (15.2)	15 (5.9)	7 (2.7)	5 (2.1)
	· 아파트	521 (100.0)	521 (100.0)	0 [*] (0.0)	0 [*] (0.0)	0 [*] (0.0)	0 (0.0)	0 (0.0)
	· 연립주택	39 (100.0)	39 (99.2)	0 [*] (0.7)	0 ^{**} (0.1)	0 [*] (0.0)	0 (0.0)	0 (0.0)
	· 다세대주택	87 (100.0)	87 (99.7)	0 [*] (0.3)	0 [*] (0.0)	0 [*] (0.0)	0 (0.0)	0 (0.0)
	· 영업용 건물내주택	16, (100.0)	12 (74.5)	3 (16.7)	1 (5.1)	0 [*] (1.8)	0 [*] (0.9)	0 [*] (1.1)
	합 계	12,495 (100.0)	11,267 (90.2)	536 (4.3)	284 (2.3)	155 (1.2)	102 (0.8)	150 (1.2)
전 국	· 단독주택	3,985 (100.0)	2,816 (70.7)	494 (12.4)	275 (6.9)	152 (3.8)	101 (2.5)	147 (3.7)
	· 아파트	6,627 (100.0)	6,623 (99.9)	4 (0.1)	0 (0.0)	0 (0.0)	0 (0.0)	0 (0.0)
	· 연립주택	520 (100.0)	514 (98.7)	7 (1.3)	0 (0.0)	0 (0.0)	0 (0.0)	0 (0.0)
	· 다세대주택	1,164 (100.0)	1,160 (99.6)	4 (0.3)	0 (0.0)	0 (0.0)	0 (0.0)	0 (0.0)
	· 영업용 건물내주택	198 (100.0)	155 (78.1)	27 (13.7)	9 (4.5)	3 (1.6)	2 (0.8)	3 (1.3)

* : 단위미만

4) 주택의 방수

방이 4개인 주택이 47.0%로 가장 많음

- 주택의 방수를 기준으로 분포를 살펴보면 방이 4개인 주택이 47.0%로 가장 많고, 3개(16.2%), 5개(9.9%)등의 순으로 나타남
 - 방의 수가 3~4개인 비율이 전체의 63.2%를 차지함
 - 전국과 비교해 보면, 방의 수가 1~2개 그리고 6개 이상인 경우의 비율은 부산이 더 높지만, 3~4개 비율은 전국이 더 높음
- 평균방수는 4.8개로 단독주택 7.3개, 아파트·연립주택 3.9개, 다세대주택 3.5개 등으로 나타남

<표4> 주택 방 수

(단위 : 천호, %)

	부 산				전 국
	2005년	2000년	증 감	증감률	2005년
계	913 (100.0)	805 (100.0)	108	13.4	12,495 (100.0)
1개	19 (2.1)	7 (0.9)	12	165.8	102 (0.8)
2개	40 (4.3)	37 (4.6)	3	7.8	322 (2.6)
3개	148, (16.2)	156, (19.4)	△8	△5.0	2,363 (18.9)
4개	430 (47.0)	336 (41.7)	94	27.9	5,996 (48.0)
5개	91 (9.9)	76 (9.4)	15	19.4	1,802 (14.4)
6개	51 (5.6)	50 (6.2)	1	1.5	606 (4.8)
7개	29 (3.1)	31 (3.8)	△2	△6.6	257 (2.1)
8개이상	107 (11.7)	113 (14.0)	△6	△4.9	1,048 (8.4)

<표5> 주택유형별 평균방수

(단위 : 개, %)

	평균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비거주용 건물내주택
부 산	4.8	7.3	3.9	3.9	3.5	5.2
전 국	4.8	6.6	3.9	3.9	3.7	5.1

5) 주택의 규모

46~96㎡(14~29평) 미만이 전체의 63.1%를 차지함

- 연건평을 기준으로 주택의 분포를 살펴보면 46~62㎡(14~19평)미만(24.3%)과 62~96㎡(19~29평)미만(38.8%)이 전체의 63.1%를 차지함
 - 전국이 2000년에 비해 30㎡(9평) 미만을 제외한 모든 주택의 수가 증가한 반면, 부산은 162㎡(49평) 이상을 제외하고 모든 크기에서 증가함
 - 연건평별 구성비를 전국과 비교해 보면 30㎡(9평) 미만과 62~96㎡(19~29평) 미만, 129~228㎡(39~69평)미만의 크기에서는 전국보다 높은 반면, 다른 크기에서는 전국보다 낮음

<표6> 연건평별 주택규모

(단위 : 천호, %)

		계	30㎡ (9평) 미만	30~46㎡ (9~14평) 미만	46~62㎡ (14~19평) 미만	62~96㎡ (19~29평) 미만	96~129㎡ (29~39평) 미만	129~162㎡ (39~49평) 미만	162~228㎡ (49~69평) 미만	228㎡ (69평) 이상
부 산	2005년	913	33	83	222	355	99	67	40	14
		(100.0)	(3.6)	(9.1)	(24.3)	(38.8)	(10.9)	(7.3)	(4.4)	(1.5)
	2000년	805	32	78	202	289	87	61	41	15
		(100.0)	(4.0)	(9.7)	(25.1)	(35.9)	(10.8)	(7.6)	(5.1)	(1.8)
	증 감	108	1	5	20	66	13	6	△1	△1
	증감률	13.4	2.0	6.8	10.1	22.7	14.5	9.0	△1.9	△6.9
전 국	2005년	12,495	252	1,216	3,509	4,767	1,363	637	449	301
		(100.0)	(2.0)	(9.7)	(28.1)	(38.2)	(10.9)	(5.1)	(3.6)	(2.4)
	2000년	10,959	247	1,208	3,198	3,970	1,120	545	408	263
		(100.0)	(2.3)	(11.0)	(29.2)	(36.2)	(10.2)	(5.0)	(3.7)	(2.4)
	증 감	1,536	-153	8	311	797	243	92	41	48
	증감률	14.0	-62.0	0.7	9.7	20.1	21.7	16.8	10.0	18.2

6) 건축년도별 주택

최근 10년 동안 지어진 주택의 비율이 41.7%

- 건축시기를 5년 단위로 묶어서 살펴보면 95~99년이 22.8%, 90~94년이 19.4%, 2000년 이후 18.9%로 나타남
- 10년 미만된 주택의 비율은 41.7%로 전국(45.1%) 보다 낮음

<표7> 건축년도별 주택

(단위 : 천호, %)

	부 산		전 국	
	호 수	구성비	호 수	구성비
계	913	100.0	12,495	100.0
2000년 이후	173	18.9	2,756	22.1
1995~1999년	208	22.8	2,873	23.0
1990~1994년	178	19.4	2,836	22.7
1980~1989년	215	23.6	2,445	19.6
1970~1979년	107	11.7	872	7.0
1960~1969년	20	2.2	302	2.4
1959년 이전	12	1.4	411	3.3

7) 주택유형별 빈집수

빈집은 54천 호로 2000년보다 112.1% 증가

- 빈집은 54천호로 2000년(25천호)에 비해 112.1% 증가함
 - 주택유형별로 보면 아파트가 34천호로 63.9%를 차지하며, 단독주택 11천호 (19.8%) 순으로 나타남
 - 전국과 비교해 보면, 아파트의 비율은 17.8%p 높은 반면, 단독주택의 비율은 18.5%p 낮음
 - 부산의 빈집 증가율은 112.1%로 전국 41.9%의 2.7배 정도임

<표8> 주택유형별 빈집 수

(단위 : 천호, %)

		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비거주용 건물내주택
부 산	2005년	54	11	34	2	6	0*
		(100.0)	(19.8)	(63.9)	(4.2)	(11.3)	(0.8)
	2000년	25	7	13	3	2	1
		(100.0)	(26.5)	(53.3)	(10.6)	(6.5)	(2.1)
	증 감	28	4	21	0*	4	0*
	증감률	112.1	58.6	154.3	△15.8	269.9	△14.7
전 국	2005년	728	279	336	38	65	10
		(100.0)	(38.3)	(46.1)	(5.2)	(8.9)	(1.4)
	2000년	513	200	249	37	19	9
		(100.0)	(38.9)	(48.4)	(7.2)	(3.7)	(1.7)
	증 감	215	79	87	1	46	1
	증감률	41.9	39.5	35.1	3.8	239.8	16.2

* : 단위미만

여 백

- 표본부문 -

1. 인구이동, 통근·통학

1) 인구이동	59
2) 통근·통학	63
3) 주간인구	68

여

백

1) 인구이동

□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부산의 인구이동, 통근통학 집계 결과의 특성은

- 인구이동률이 2000년의 20.9%에 비해 13.8%로 현저히 감소하였으며 특히 부산시내의 이동률이 2000년의 14.6%에서 7.9%로 많이 줄어 들었음
- 시·도간 통근인구는 유입(52,952명)보다, 김해·양산 등으로 유출(112,108명)이 많았으며,
- 시·도간 통학인구는 유출(11,895명)보다, 유입(16,408명)이 많았음

1.1. 이동인구 규모

2005. 11. 1일 기준으로 지난 5년간 부산에서 시·구·군 경계를 넘어 거주지를 이동한 5세이상 인구는 459천명

- 5년 전의 이동인구 708,102명에 비해 35.1% 감소
- 시·도간 경계를 기준으로 「시·도내 이동」이 「시·도간 이동」보다 크게 감소(46.9%)

<표1> 부산의 이동인구

(단위 : 명,%)

	2005			2000			증 감		
	5세이상 인구	이동인구	이동률	5세이상 인구	이동인구	이동률	이동인구	증감률	이동률
부 산	3,318,887	459,389	13.8	3,381,596	708,102	20.9	-248,713	-35.1	-7.1
남 자	1,609,468	220,749	13.7	1,644,956	343,658	20.9	-122,909	-35.8	-7.2
여 자	1,709,419	238,640	14.0	1,736,640	364,444	21.0	-125,804	-34.5	-7.0
시·도내이동	-	261,682	7.9	-	492,476	14.6	-230,794	-46.9	-6.7
시·도간이동	-	197,707	12.3	-	215,626	13.1	-17,919	-8.3	-0.8

주) 1. 이동인구 : 시, 구·군 경계를 넘어서 거주지를 이동한 인구임

2. 이동률 = (이동인구 / 총인구) × 100

1.2. 부산 시내 인구이동

부산 시내에서 거주지를 이동한 인구는 262천명

- 5년 전 492,476천명에 비해 230,794명 감소

<표2> 대도시별 지역내 이동인구

(단위 : 천명)

	부 산	서 울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2005	262	1,084	181	147	83	66	41
2000	492	1,219	327	215	135	111	94
증 감	-231	-135	-146	-68	-52	-45	-53

1.3. 부산과 타 시·도간 인구이동

**부산으로 유입된 인구는 198천명, 유출된 인구는 380천명으로
순이동(유입-유출)의 규모는 -182,472명**

- 순이동을 기준으로 2000년(-184,317명)에 이어 인구유출 추세가 계속됨

<표3> 부산과 타 지역간 이동인구

(단위 : 명)

	유입인구	유출인구	순이동
2005	197,707	380,179	-182,472
2000	215,626	399,943	-184,317
증 감	-17,919	-19,764	-

- 유입인구의 분포지역(이전 거주지)은 경남(83,429명), 서울(23,940명), 경기(18,044명), 울산(16,289명) 등으로 나타남

<표4> 부산 유입인구의 분포

(단위 : 명, %)

5년전 거주지	합 계	서 울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경 기
유입인구	197,707	23,940	11,621	3,997	1,857	3,902	16,289	18,044
구성비	100.0	12.1	5.9	2.0	0.9	2.0	8.2	9.1
5년전 거주지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유입인구	3,865	2,334	3,091	2,419	4,969	15,803	83,429	2,147
구성비	2.0	1.2	1.6	1.2	2.5	8.0	42.2	1.1

1.4. 이동인구의 특성

**부산으로 유입된 인구는 여성(51.7%), 30대(25.3%),
고등학교졸업자(30.5%), 유배우자(57.7%) 비율이 높음**

- 여성이 102,183명으로 남성(95,524명)보다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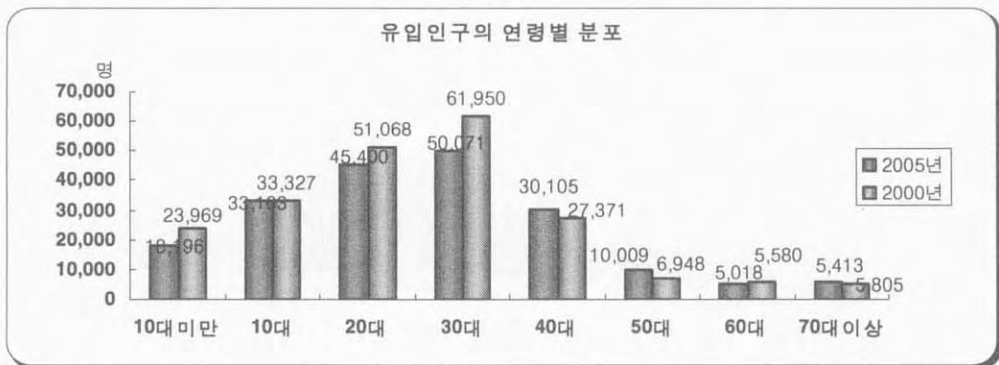
<표5> 부산 유입인구의 성별 분포 (단위: 명, %)

	2005	2000	증 감
부 산	197,707	215,626	-17,919 (-8.3)
남 자	95,524 (48.3)	104,914 (48.7)	-9,390 (-9.0)
여 자	102,183 (51.7)	110,712 (51.3)	-8,529 (-7.7)

- 연령별 이동인구는 20대 45,400명(23.0%), 30대 50,071명(25.3%)으로 젊은 층 비율이 높음
- 5년 전과 비교하여 50대, 7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유입인구가 감소

<표6> 부산 유입인구의 연령별 분포 (단위: 명, %)

	2005		2000		증 감	
	이동인구	구성비	이동인구	구성비	이동인구	증감률
합 계	197,707	100.0	215,626	100.0	-17,919	-8.3
0 ~ 9세	18,196	9.2	23,969	11.1	-5,773	-24.1
10 ~ 19세	33,103	16.7	33,327	15.5	-224	-0.7
20 ~ 29세	45,400	23.0	51,068	23.7	-5,668	-11.1
30 ~ 39세	50,071	25.3	61,950	28.7	-11,879	-19.2
40 ~ 49세	30,105	15.2	27,371	12.7	2,734	10.0
50 ~ 59세	10,009	5.1	6,948	3.2	3,061	44.1
60 ~ 69세	5,018	2.5	5,580	2.6	-562	-10.1
70세이상	5,805	2.9	5,413	2.5	392	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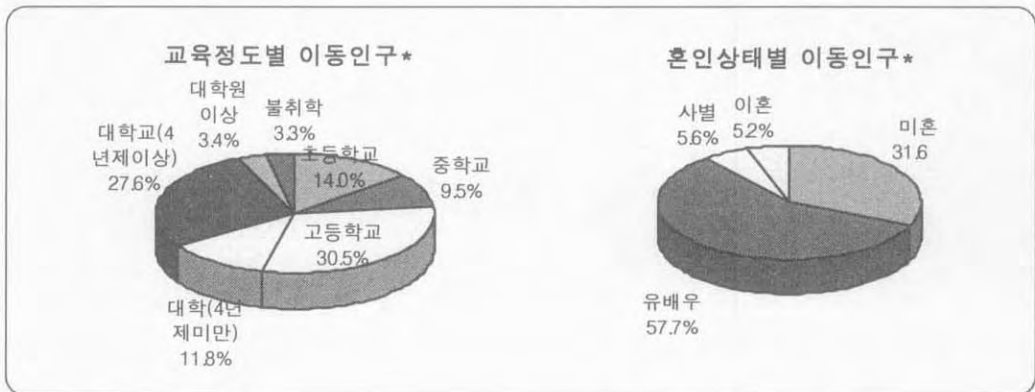


- 교육정도별 이동인구는 고등학교(138천명, 30.5%), 대학교(125천명, 27.6%) 등으로 나타남

<표7> 교육정도별 이동인구

(단위: 명, %, %p)

	2005		2000		증 감		
	이동인구	구성비	이동인구	구성비	이동인구	증감률	구성비
합 계	451,198	100.0	692,588	100.0	-241,390	-34.9	0.0
초등학교	62,951	14.0	107,183	15.5	-44,232	-41.3	-1.5
중 학교	42,645	9.5	76,324	11.0	-33,679	-44.1	-1.6
고등학교	137,566	30.5	257,804	37.2	-120,238	-46.6	-6.7
대학(4년제미만)	53,400	11.8	75,084	10.8	-21,684	-28.9	1.0
대학교(4년제이상)	124,595	27.6	135,779	19.6	-11,184	-8.2	8.0
대학원이상	15,245	3.4	14,438	2.1	807	5.6	1.3
불 취 학	14,796	3.3	25,976	3.8	-11,180	-43.0	-0.5



- 혼인상태는 유배우자(223천명, 57.7%), 미혼(122천명, 31.6%) 등으로 나타남

<표8> 부산 혼인상태별 분포

(단위: 명, %, %p)

	2005			2000			증 감		
	이동인구	남자	여자	이동인구	남자	여자	이동인구	남자	여자
합 계	386,834 (100.0)	183,140 (100.0)	203,694 (100.0)	585,259 (100.0)	278,409 (100.0)	306,850 (100.0)	-198,425 (100.0)	-95,269 (100.0)	-103,156 (100.0)
미 혼	122,141 (31.6)	63,033 (34.4)	59,108 (29.0)	157,135 (26.8)	82,903 (29.8)	74,232 (24.2)	-34,994 (4.8)	-19,870 (4.6)	-15,124 (4.8)
유배우	223,017 (57.7)	109,750 (59.9)	113,267 (55.6)	377,207 (64.5)	183,960 (66.1)	193,247 (63.0)	-154,190 (-6.8)	-74,210 (-6.1)	-79,980 (-7.4)
사 별	21,714 (5.6)	2,771 (1.5)	18,943 (9.3)	31,783 (5.4)	4,014 (1.4)	27,769 (9.0)	-10,069 (0.2)	-1,243 (0.1)	-8,826 (0.3)
이 혼	19,962 (5.2)	7,586 (4.1)	12,376 (6.1)	19,134 (3.3)	7,532 (2.7)	11,602 (3.8)	828 (1.9)	54 (1.4)	774 (2.3)

2) 통근·통학

2.1. 통근·통학인구 규모(12세이상)

12세이상 인구(3,026천명) 중 통근·통학인구는 1,710천명(5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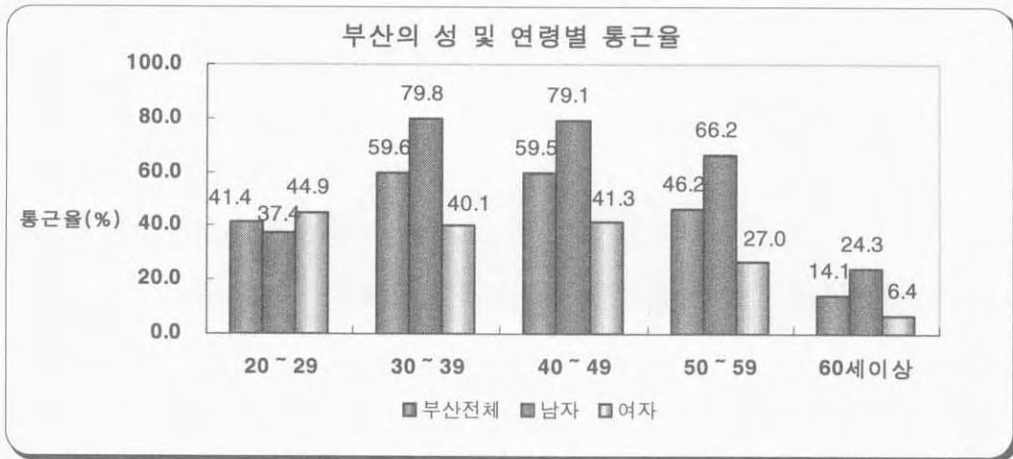
- 통근·통학인구 중 남자는 1,017,456명, 여자는 692,578명

<표9> 부산의 통근·통학인구 및 통근·통학률 (단위: 명, %)

	2005			2000			증 감	
	12세이상 인구	통근·통학 인구	통근·통학률	12세이상 인구	통근·통학 인구	통근·통학률	통근·통학 인구	증감률 (%p)
부 산	3,025,713	1,710,034	56.5	3,044,695	1,786,058	58.7	-76,024	-2.2
남 자	1,453,472	1,017,456	70.0	1,463,099	1,071,397	73.2	-53,941	-3.2
여 자	1,572,241	692,578	44.1	1,581,596	714,661	45.2	-22,083	-1.1

※ 통근·통학률 = (통근·통학인구 / 12세이상 인구) × 100

- 연령별 통근율은, 생산활동이 가장 활발한 30대(59.6%), 40대(59.5%)까지 증가하다가 50대(46.2%)부터 감소



- 성 및 연령별로 통근율을 비교해 보면

- 남자는 30대(79.8%)를 정점으로 통근율이 감소하여 50대 66.2%, 60대이상은 24.3%가 통근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여자는 20대의 통근율(44.9%)이 가장 높고 점차 감소하여 60대이상은 6.4%가 통근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10> 성·연령별 통근인구

	12세이상 인 구	부산 통근인구		12세이상 인 구	남자 통근인구		12세이상 인 구	여자 통근인구	
		통근률			통근률			통근률	
합 계	3,025,713	1,208,101	39.9	1,453,472	751,180	51.7	1,572,241	456,921	29.1
12~19	382,355	5,464	1.4	200,708	2,768	1.4	181,647	2,696	1.5
20~29	530,910	219,594	41.4	250,462	93,710	37.4	280,448	125,884	44.9
30~39	544,757	324,725	59.6	268,035	213,781	79.8	276,722	110,944	40.1
40~49	628,869	373,920	59.5	301,591	238,642	79.1	327,278	135,278	41.3
50~59	473,546	218,729	46.2	232,034	153,539	66.2	241,512	65,190	27.0
60세이상	465,276	65,669	14.1	200,642	48,740	24.3	264,634	16,929	6.4

2.2. 부산 시내 통근·통학

부산시내로 통근·통학하는 인구는 1,586천명으로
구·군별로 부산진구(186천명)의 이동이 가장 많음

- 5년 전 1,786,058명에 비해 200,105명 감소

<표11> 부산 시내 통근·통학인구 (단위 : 명)

	통근·통학	통근인구	통학인구
2005	1,585,953	1,095,915	490,038
2000	1,786,058	1,226,241	559,817
증 감	-200,105	-130,326	-69,779

- 시내 통근·통학자의 거주지별 분포*는 부산진구(186,021명), 해운대구(174,360명), 사하구(169,718명) 등으로 나타남

<표12> 부산 시내 통근·통학 흐름 (단위 : 명)

구·군	합 계	중 구	서 구	동 구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 구	북 구
2005	1,585,953	22,265	59,765	43,883	66,887	186,021	116,780	135,351	140,216
2000	1,786,058	27,374	70,533	56,879	83,639	203,694	144,778	141,738	144,611
증 감	-200,105	-5,109	-10,768	-12,996	-16,752	-17,673	-27,998	-6,387	-4,395
구·군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기장군
2005		174,360	169,718	114,023	21,428	96,512	77,249	130,875	30,620
2000		186,380	188,051	140,441	29,924	105,704	84,054	145,137	33,121
증 감		-12,020	-18,333	-26,418	-8,496	-9,192	-6,805	-14,262	-2,501

2.3. 부산과 타 시·도간 통근·통학

부산시외로 통근·통학하는 인구는 124천명이며 시외에서
 부산으로 통근·통학하는 인구는 69천명으로 순이동은 -55천명

- 통근으로 인한 이동은 부산 인접지역의 산업공단 등으로 통근하는 인구로 인해 유출인구가 유입인구보다 많음
- 반면, 통학으로 인한 이동은 유입인구가 유출인구보다 많음

<표13> 부산의 통근·통학 흐름 (단위 : 명)

	2005년			2000년		
	유 입	유 출	순이동	유 입	유 출	순이동
통근·통학	69,360	124,003	-54,643	59,876	123,283	-63,407
- 통근인구	52,952	112,108	-59,156	44,343	108,149	-63,806
- 통학인구	16,408	11,895	4,513	15,533	15,134	399

- 통근·통학에 따른 주요 유입 및 유출지역은 경남 김해시, 양산시

<표14> 시외 통근·통학의 주요 유입·유출 지역 (단위 : 명)

	유입지역	유입인구	유출지역	유출인구
1	김 해 시	31,212	김 해 시	42,634
2	양 산 시	17,821	양 산 시	36,900
3	진 해 시	6,402	울 주 군	8,152
4	창 원 시	3,114	창 원 시	6,870
5	마 산 시	2,155	진 해 시	6,372

2.4. 통근·통학 이용교통수단

이용교통수단은 버스(32.5%), 승용차(29.0%), 도보(25.4%) 등

- 교통수단별로 버스 555,485명(32.5%), 승용차 496,021명(29.0%), 도보 434,935명(25.4%)으로 버스가 통근·통학의 주된 교통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음

<표15> 부산의 통근·통학 이용교통수단

(단위 : 천명, %)

		합 계	단일수단	승용차	버스	자전거	도보	기 타	복합수단
2005	인 구	1,710	1,652	496	555	109	435	57	58
	구성비	100.0	96.6	29.0	32.5	6.4	25.4	3.3	3.4
2000	인 구	1,786	1,696	415	746	90	377	68	90
	구성비	100.0	94.9	23.2	41.8	5.0	21.1	3.8	5.1
증 감(%p)		-	1.7	5.8	-9.3	1.3	4.3	-0.5	-1.7

- 버스의 이용률이 7개 대도시(평균 24.3%) 중 가장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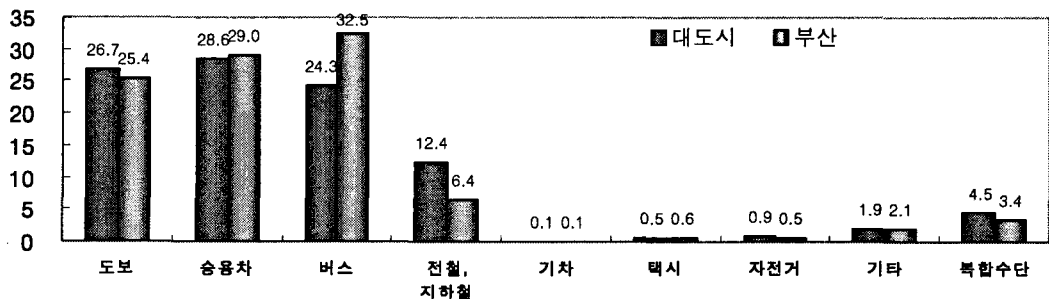
<표16> 부산과 대도시의 통근·통학 이용교통수단

(단위 : 천명, %)

	계	부산	서울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통근·통학 인구	11,310	1,710	5,164	1,188	1,291	706	716	535
도 보	26.7	25.4	27.2	27.1	25.0	27.2	27.7	27.1
승용차	28.6	29.0	20.6	38.1	34.4	38.4	43.4	37.4
버 스	24.3	32.5	20.0	25.9	25.5	29.8	24.3	26.9
지하철	12.4	6.4	22.3	2.6	8.1	0.5	0.0	0.0

대도시와 부산의 이용교통수단별 비교

비율 (%)



2.5. 통근·통학 소요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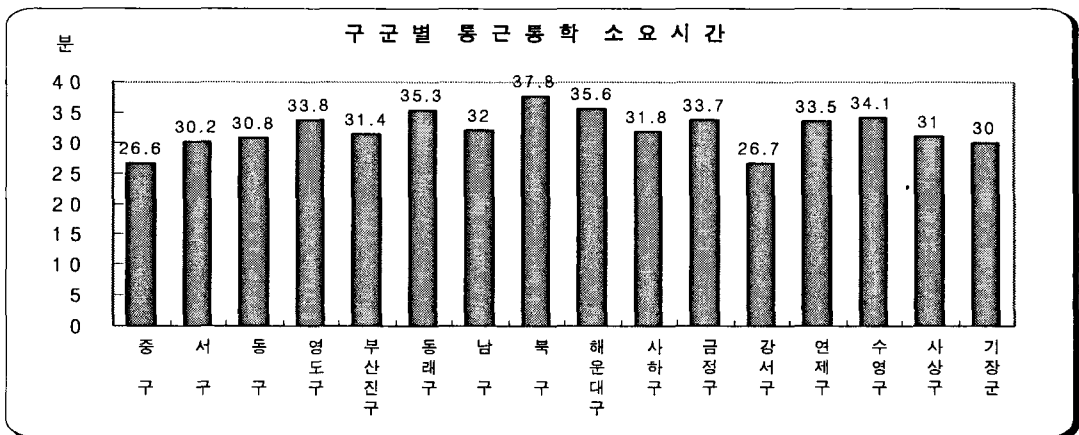
평균소요시간은 33.1분으로 5년 전보다 2.5분 감소

- 지역별 소요시간은 북구가 37.8분으로 가장 길며, 다음으로 해운대구(35.6분), 동래구(35.3분) 등으로 나타남
- 5년 전보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감소하였고 특히 해운대구는 5.1분이 단축되어 단축 폭이 가장 큼

<표17> 통근·통학 소요시간

(단위 : 분)

구·군	부 산	중 구	서 구	동 구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 구	북 구
2005	33.1	26.6	30.2	30.8	33.8	31.4	35.3	32	37.8
2000	35.6	29.9	32.8	32.8	36.4	34.5	36.7	34.9	39.1
증감	-2.5	-3.3	-2.6	-2	-2.6	-3.2	-1.4	-3	-1.3
구·군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기장군
2005		35.6	31.8	33.7	26.7	33.5	34.1	31	30
2000		40.7	33.3	36.9	28.4	37.3	37.7	32	29.5
증감		-5.1	-1.5	-3.3	-1.7	-3.8	-3.6	-1	0.5



3) 주간인구

3.1. 구·군별 주간인구

부산시 주간인구는 3,405천명으로, 주간인구지수는 98.4

- 주간에 54,643명이 유출되어 주간인구는 3,405,555명
- 주간인구지수는 98.4로 5년 전 98.0에 비해 0.4 증가

<표18> 부산의 주간인구지수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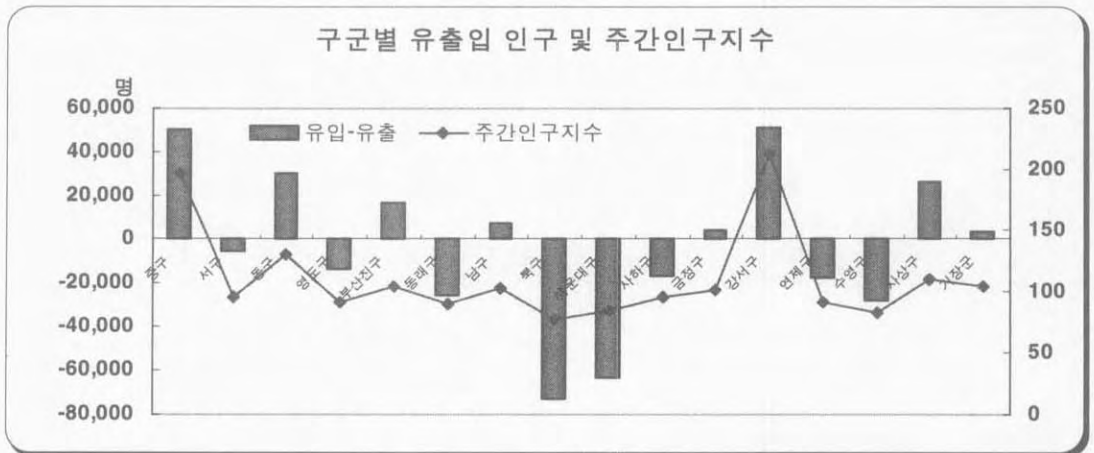
	상주인구	유·출입인구			주간인구	주간인구지수
		유 입	유 출	순이동		
2005	3,460,198	69,360	124,003	-54,643	3,405,555	98.4
2000	3,585,496	59,876	123,273	-60,026	3,522,099	98
증 감	-125,298	9,484	730	-	-116,544	0.4

※ 주간인구지수 = (주간인구 / 상주인구) × 100
 - 주간인구 = 상주인구 + 유입인구 - 유출인구

- 구·군별 주간인구지수는 강서구가 213.3으로 가장 높고 북구가 77.4로 부산을 비롯한 전국에서 가장 낮음

<표19> 구·군별 주간인구지수

구·군	부 산	중 구	서 구	동 구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 구	북 구
주간인구지수	98.4	197.3	95.6	129.5	91.5	104.3	90.1	102.5	77.4
구·군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기장군
주간인구지수		83.8	95.2	101.4	213	91.5	83.3	109.9	104



- 표본부문 -

2. 주거실태·경제활동

1) 주거실태	71
2) 경제활동상태	87

여

백

1) 주거실태

1.1. 거주기간

가. 가구주 성, 연령별 거주기간

거주기간별 가구는 5~10년 거주가 274천 가구(23.1%)로 가장 많음

- 가구의 거주기간별 분포를 보면, 5~10년 거주가구가 274천 가구(23.1%)로 가장 많고 1년미만 176천 가구(14.9%), 3~5년 161천 가구(13.6%) 등임
 - 2000년에 비해 2년미만의 단기간 거주가구의 비율이 30.4%에서 26.5%로 3.9%p 감소
- 가구주 성별로는 남자가구주의 경우는 5~10년 거주가구가 24.2%, 여자 가구주의 경우도 5~10년 거주가구가 19.4%로 가장 높음

<표1> 가구주 성, 연령별 거주기간

(단위 : 천가구, %)

	계	1년미만	1~2	2~3	3~5	5~10	10~15	15~20	20~25	25년이상
2005	1,187 (100.0)	176 (14.9)	137 (11.6)	130 (10.9)	161 (13.6)	274 (23.1)	141 (11.8)	54 (4.6)	45 (3.8)	69 (5.8)
남자	906	(13.7)	(11.1)	(10.8)	(14.1)	(24.2)	(12.3)	(4.7)	(3.8)	(5.3)
여자	280	(18.7)	(13.0)	(11.4)	(12.1)	(19.4)	(10.5)	(4.2)	(3.6)	(7.2)
19세이하	5	(68.2)	(14.6)	(4.1)	(4.1)	(5.7)	(1.5)	(1.7)	(0.0)	(0.0)
20~29	68	(47.3)	(22.3)	(11.1)	(7.6)	(6.8)	(2.9)	(0.7)	(0.6)	(0.6)
30~39	213	(24.4)	(18.7)	(16.3)	(17.0)	(17.9)	(3.1)	(0.7)	(0.7)	(1.3)
40~49	339	(13.6)	(11.8)	(12.1)	(16.4)	(29.7)	(11.1)	(2.5)	(1.2)	(1.7)
50~59	285	(8.9)	(8.7)	(9.2)	(13.0)	(25.9)	(17.9)	(7.1)	(4.8)	(4.6)
60세이상	277	(6.3)	(6.2)	(7.2)	(9.9)	(20.2)	(15.7)	(8.7)	(9.0)	(16.8)
2000	1,120 (100.0)	179 (16.0)	172 (15.4)	104 (9.3)	137 (12.2)	276 (24.6)	105 (9.4)	48 (4.3)	36 (3.2)	63 (5.6)

※ 계에는 거주기간 미상가구 포함

나. 점유형태별 거주기간

자가 가구의 거주기간은 5~10년이 26.2%로 가장 많고,
임차 가구의 거주기간은 1년 미만이 가장 많음

- 가구의 주택(거처) 점유형태를 기준으로 거주기간별 분포를 보면,
 - 자가 가구의 경우 5~10년이 26.2%, 10~15년 15.6%, 3~5년 13.9% 등임
 - 임차 가구(전세, 월세, 사글세)의 경우 1년 미만 거주가구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임차가구의 1년미만 거주가구 비율
 - : 전세 가구(23.4%), 월세 가구(29.0%), 사글세 가구 (23.3%)

<표2> 점유형태별 거주기간

(단위 : 천가구, %)

	계	1년미만	1~2	2~3	3~5	5~10	10~15	15~20	20~25	25년이상
계	1,187 (100.0)	176 (14.9)	137 (11.6)	130 (10.9)	161 (13.6)	274 (23.1)	141 (11.8)	54 (4.6)	45 (3.8)	69 (5.8)
자기집	677	(6.8)	(6.5)	(9.1)	(13.9)	(26.2)	(15.6)	(7.0)	(5.8)	(9.2)
전세	226	(23.4)	(18.4)	(15.4)	(15.0)	(19.8)	(5.4)	(1.0)	(0.8)	(0.7)
월세	244	(29.0)	(19.3)	(12.3)	(11.8)	(16.9)	(8.0)	(1.2)	(0.8)	(0.6)
사글세	2	(23.3)	(9.0)	(7.6)	(8.9)	(24.1)	(9.2)	(4.7)	(4.0)	(9.3)
무상	38	(16.2)	(11.9)	(9.0)	(11.9)	(26.4)	(8.8)	(3.9)	(4.1)	(7.7)

※ 계에는 거주기간 미상가구 포함

1.2. 주거시설 형태별 가구현황

부엌, 수도, 화장실, 목욕시설을 모두 갖춘 가구는 1,104천 가구(93.0%), 하나라도 못 갖춘 가구는 83천 가구(7.0%)

- 전체 1,187천 가구 중 부엌, 수도, 화장실, 목욕시설을 모두 갖춘 주택(거처)에서 거주하는 가구는 1,104천 가구(93.0%)이며,
 - 주거시설(부엌, 수도, 화장실, 목욕시설)을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 가구는 83천 가구(7.0%) 임
- 주거시설 미비가구 비중이 높은 구·군은 강서구(18.8%), 기장군(16.0%), 서구(15.2%) 등이며 주거시설 미비가구 비중이 낮은 구·군은 해운대구(2.6%), 금정구(4.0%), 수영구(4.2%) 등임

<표3> 구·군 및 주거시설 형태별 가구현황

(단위 : 천가구, %)

구·군	계	주거시설을 모두 갖춘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주거시설을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가구수	구성비	가구수	구성비
계	1,187	1,104	93.0	83	7.0
중 구	21	19	89.7	2	10.3
서 구	48	40	84.8	7	15.2
동 구	37	33	88.0	4	12.0
영도구	54	50	93.9	3	6.1
부산진구	138	125	90.4	13	9.6
동래구	87	81	93.2	6	6.8
남 구	99	94	94.7	5	5.3
북 구	106	101	95.5	5	4.5
해운대구	131	128	97.4	3	2.6
사하구	118	112	95.0	6	5.0
금정구	87	84	96.0	3	4.0
강서구	15	12	81.2	3	18.8
연제구	71	65	92.2	5	7.8
수영구	60	57	95.8	3	4.2
사상구	90	82	90.5	9	9.5
기장군	24	20	84.0	4	16.0

1.3. 거주 층 (지하·반지하, 지상, 옥상·옥탑)

지하(반지하), 옥상(옥탑) 거주가구는 9천 가구로 전체가구의 0.8%

- 가구의 거주층별 분포는 지하(반지하) 거주가구가 7천 가구(0.6%), 옥상(옥탑) 거주가구가 2천 가구(0.2%)로 나타남
- 구·군별로 지하(반지하)거주가구는 중구 2.8%, 서구 1.1%, 북구 1.1%, 동구 0.9% 등으로 나타났으며 옥상(옥탑)거주가구는 중구 1.0%, 서구 0.4%, 동구 0.4% 등으로 비중이 높음

<표4> 구·군별 거주층

(단위 : 천가구, %)

	계	지하(반지하)	지상	옥상(옥탑)
계	1,187 (100.0)	7 (0.6)	1,177 (99.2)	2 (0.2)
중 구	21	(2.8)	(96.2)	(1.0)
서 구	48	(1.1)	(98.5)	(0.4)
동 구	37	(0.9)	(98.7)	(0.4)
영 도 구	54	(0.7)	(99.1)	(0.1)
부산진구	138	(0.4)	(99.2)	(0.2)
동 래 구	87	(0.5)	(99.4)	(0.1)
남 구	99	(0.5)	(99.3)	(0.2)
북 구	106	(1.1)	(98.8)	(0.0)
해운대구	131	(0.3)	(99.5)	(0.1)
사 하 구	118	(0.5)	(99.1)	(0.3)
금 정 구	87	(0.5)	(99.5)	(0.0)
강 서 구	15	(0.2)	(99.8)	(-)
연 제 구	71	(0.2)	(99.7)	(0.1)
수 영 구	60	(0.3)	(99.6)	(0.1)
사 상 구	90	(0.6)	(99.3)	(0.1)
기 장 군	24	(0.0)	(99.8)	(0.1)

1.4. 임차료(주거전용)

가. 점유형태별 평균 임차료

평균 전세금은 3,740만원, 월세는 15만원, 사글세는 17만원

- 임차가구의 평균 임차료를 보면, 평균 전세금이 3,740만원, 평균 월세가 15만원, 평균 사글세가 17만원으로 나타남
 - 전세의 경우 아파트 전세금이 6,223만원으로 나타났으며 보증금 있는 월세의 경우 평균 보증금이 968만원
- 2000년에 비해 평균전세금은 1,091만원(41.2%), 아파트 전세금은 2,168만원(53.4%) 증가하였으며 보증금 있는 월세의 보증금이 222만원(29.7%) 증가하였음

<표5> 임차가구의 점유형태별 평균 임차료

(단위 : 만원, %)

	2005		2000		증 감	
	보증금	월세	보증금	월세	보증금	월세
전 세	3,740	-	2,649	-	1,091 (41.2)	- -
아파트	6,223	-	4,055	-	2,168 (53.4)	- -
월 세	968	15	746	13	222 (29.7)	2 (15.4)
사글세	-	17	-	17	- -	0 (0.0)

나. 전세가구

나-1. 주택의 종류별 전세금 규모

전세금 「2천만원~3천만원」 이 60천 가구(27.2%)로 가장 많음

- 전세가구 220천 가구의 전세금별 분포를 보면, 「2천만원~3천만원」 이 60천 가구(27.2%)로 가장 많고, 「5천만원~1억원」 42천 가구(19.2%), 「3천만원~4천만원」 39천 가구(17.8%) 등임
- 주택(거처) 종류별로 보면, 단독주택의 경우 전세금 「2천만원~3천만원」 이 38.6%로 가장 많고, 아파트는 「5천만원~1억원」 이 46.0%로 가장 많으며, 「1억원이상」 도 14.8% 임
- 연립주택의 경우 「2천만원~3천만원」 이 32.5%, 다세대주택은 「5천만원~1억원」 26.8% , 비거주용건물내주택은 「3천만원~4천만원」 25.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표6> 주택(거처)의 종류 및 전세 규모별 전세가구

(단위 : 천가구, %)

	계	500만원 미만	500~ 1000	1000~ 2000	2000~ 3000	3000~ 4000	4000~ 5000	5000~ 1억원	1억원 이상
계	220 (100.0)	3 (1.2)	8 (3.7)	39 (17.5)	60 (27.2)	39 (17.8)	18 (8.4)	42 (19.2)	11 (5.0)
주택	218	(1.2)	(3.7)	(17.6)	(27.1)	(17.6)	(8.4)	(19.3)	(5.0)
단독주택	124	(0.9)	(5.8)	(27.0)	(38.6)	(19.3)	(5.5)	(2.8)	(0.0)
아파트	73	(1.8)	(0.9)	(3.2)	(8.5)	(13.3)	(11.5)	(46.0)	(14.8)
연립주택	5	(0.9)	(2.4)	(11.6)	(32.5)	(18.0)	(13.9)	(20.4)	(0.4)
다세대주택	13	(0.4)	(0.5)	(12.8)	(21.0)	(23.6)	(14.4)	(26.8)	(0.5)
비거주용건물내주택	3	(0.7)	(3.3)	(12.5)	(23.3)	(25.7)	(14.6)	(18.9)	(1.1)
주택이외의 거처	2	(4.5)	(1.3)	(4.4)	(31.9)	(35.4)	(15.9)	(6.5)	(0.0)

나-2. 가구주의 연령별 전세금 규모

가구주 연령별 전세금은 19세이하 가구주는 「1천만원~2천만원」, 20대 「2천만원~3천만원」, 30대 「5천만원~1억원」 비중이 가장 높음

- 가구주 연령별 전세금 분포를 보면 19세미만은 「1천만원~2천만원」 32.7%, 20대는 「2천만원~3천만원」 27.9%, 30대는 「5천만원~1억원」 28.3% 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음
- 40대, 50대 및 60대이상은 「2천만원~3천만원」 에서 각각 29.3%, 28.4%, 29.9%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음

<표7> 가구주의 연령 및 전세금 규모별 전세가구

(단위 : 천가구, %)

	계	500만원 미만	500~ 1000	1000~ 2000	2000~ 3000	3000~ 4000	4000~ 5000	5000~ 1억원	1억원 이상
계	220 (100.0)	3 (1.2)	8 (3.7)	39 (17.5)	60 (27.2)	39 (17.8)	18 (8.4)	42 (19.2)	11 (5.0)
19세이하	1	(2.0)	(4.0)	(32.7)	(26.7)	(20.5)	(8.0)	(6.2)	(0.0)
20~29세	19	(3.5)	(3.3)	(20.9)	(27.9)	(19.0)	(7.2)	(17.1)	(1.1)
30~39세	63	(0.6)	(1.7)	(13.6)	(23.2)	(16.7)	(10.6)	(28.3)	(5.2)
40~49세	65	(0.9)	(2.9)	(15.9)	(29.3)	(18.2)	(8.5)	(17.5)	(6.7)
50~59세	37	(1.1)	(3.1)	(16.1)	(28.4)	(21.6)	(8.6)	(15.8)	(5.3)
60세이상	19	(1.0)	(6.5)	(22.0)	(29.9)	(16.8)	(6.4)	(13.4)	(4.0)

나-3. 구·군별 전세금 규모

**구·군별 평균 전세금은 해운대구 4,836만원,
연제구 4,365만원, 수영구 3,947만원 등**

- 구·군별 평균 전세금은 해운대구 4,836만원, 연제구 4,365만원, 수영구 3,947만원 등으로 나타남
- 평균 전세금이 낮은 곳은 강서구 1,727만원, 동구 2,600만원 등임
- 구·군별로 전세금 분포를 보면, 해운대구는 「5천만원~1억원」(29.3%), 「1억이상」(12.6%)의 구성비가, 강서구는 「1천만원~2천만원」(40.1%)에서의 구성비가 타 지역에 비해 높음

<표8> 구·군 및 전세 규모별 전세가구

(단위 : 천가구, %, 만원)

	계	500만원 미만	500~ 1000	1000~ 2000	2000~ 3000	3000~ 4000	4000~ 5000	5000~ 1억원	1억원 이상	평균 전세금
계	220 (100.0)	3 (1.2)	8 (3.7)	39 (17.5)	60 (27.2)	39 (17.8)	18 (8.4)	42 (19.2)	11 (5.0)	3,740 -
중 구	4	(0.3)	(7.2)	(18.5)	(30.0)	(23.5)	(8.0)	(11.7)	(0.9)	2,896
서 구	10	(0.9)	(6.5)	(20.5)	(29.0)	(19.3)	(9.2)	(12.0)	(2.7)	3,100
동 구	8	(0.8)	(5.3)	(22.9)	(36.5)	(21.6)	(5.5)	(6.6)	(0.7)	2,600
영도구	9	(1.8)	(4.2)	(21.5)	(33.3)	(19.4)	(8.0)	(10.6)	(1.1)	2,865
부산진구	24	(0.8)	(3.6)	(18.1)	(27.9)	(16.9)	(8.1)	(19.0)	(5.6)	3,782
동래구	18	(0.2)	(2.7)	(12.0)	(28.8)	(23.1)	(11.1)	(18.5)	(3.5)	3,696
남 구	19	(1.1)	(3.7)	(17.1)	(33.7)	(16.8)	(7.6)	(15.1)	(4.8)	3,611
북 구	18	(0.3)	(3.2)	(18.4)	(26.3)	(16.7)	(9.2)	(21.4)	(4.4)	3,861
해운대구	26	(2.6)	(2.4)	(21.2)	(16.2)	(9.9)	(5.7)	(29.3)	(12.6)	4,836
사하구	22	(0.4)	(3.0)	(16.2)	(24.5)	(24.3)	(10.9)	(18.6)	(2.2)	3,508
금정구	17	(0.7)	(3.2)	(16.7)	(28.1)	(18.7)	(8.3)	(19.6)	(4.7)	3,811
강서구	1	(5.9)	(10.4)	(40.1)	(33.1)	(8.0)	(0.8)	(1.6)	(0.0)	1,727
연제구	14	(0.4)	(3.3)	(13.6)	(28.4)	(17.5)	(7.2)	(19.8)	(10.0)	4,365
수영구	12	(0.4)	(2.3)	(14.0)	(30.8)	(17.2)	(8.2)	(21.4)	(5.6)	3,947
사상구	14	(5.0)	(4.3)	(17.4)	(25.9)	(14.5)	(8.4)	(23.3)	(1.3)	3,362
기장군	3	(1.5)	(15.7)	(11.7)	(15.6)	(16.0)	(17.5)	(22.0)	(0.0)	3,241

다. 월세 가구

**보증금 있는 월세가 200천 가구(86.9%),
월세 보증금은 「1000~2000만원」 이 22.9%**

- 월세가구 230천 가구 중 보증금 있는 월세가구는 200천 가구(86.9%)이며 보증금이 없는 월세가구는 30천 가구(13.1%) 임
- 보증금이 없는 월세가구 중에서는 월세 「10~15만원」 이 33.7%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20~30만원」 22.8%, 「15~20만원」 18.0%, 「5~10만원」 15.6% 등임
- 월세 보증금은 「1000~2000만원」 이 22.9%, 「500~700만원」 19.7%, 「2000만원이상」 17.0%, 「200~300만원」 이 11.7% 등임

<표9> 보증금 및 월세 규모별 월세가구

(단위 : 천가구, %)

월세	보증금 계*	보증금 없음	보증금 있음								
			100 만원 미만	100~ 200	200~ 300	300~ 500	500~ 700	700~ 1000	1000~ 2000	2000 만원 이상	
계	230 (100.0)	30 (100.0)	200 (100.0)	6 (3.2)	23 (11.4)	23 (11.7)	21 (10.5)	39 (19.7)	7 (3.6)	46 (22.9)	34 (17.0)
5만원미만	18	(1.0)	(100.0)	(0.8)	(23.8)	(44.4)	(5.9)	(5.7)	(2.8)	(10.1)	(6.5)
5~10	42	(12.7)	(100.0)	(3.9)	(7.9)	(11.9)	(16.0)	(13.3)	(6.8)	(17.7)	(22.5)
10~15	68	(33.7)	(100.0)	(5.9)	(16.9)	(7.2)	(8.4)	(14.6)	(3.9)	(24.4)	(18.9)
15~20	31	(18.0)	(100.0)	(3.9)	(11.8)	(10.3)	(9.7)	(16.6)	(3.0)	(29.8)	(14.9)
20~30	43	(22.8)	(100.0)	(0.8)	(5.8)	(7.8)	(11.1)	(29.0)	(2.2)	(28.0)	(15.2)
30~40	19	(7.7)	(100.0)	(0.6)	(3.8)	(6.6)	(12.3)	(43.7)	(1.1)	(19.9)	(12.0)
40~50	5	(1.8)	(100.0)	(0.4)	(1.4)	(7.0)	(7.6)	(44.8)	(1.0)	(19.7)	(17.9)
50만원이상	4	(2.2)	(100.0)	(0.9)	(3.1)	(1.3)	(3.8)	(19.8)	(0.9)	(35.1)	(35.1)

* 표본집계결과로 전수집계결과와 차이가 날 수 있음

라. 사글세 가구

사글세 「10~15만원」 인 가구가 517가구(30.0%)

- 사글세 1,722가구 중 사글세 「10~15만원」 가구가 517가구(30.0%), 「5~10만원」 340가구(19.7%), 「20~30만원」 252가구(14.6%) 등임
- 사글세 가구 중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 비주거용건물내주택은 「10~15만원」 인 가구가 각각 31.2%, 39.2%, 40.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 아파트, 연립주택은 「50만원이상」 이 각각 22.8%, 30.2% 로 가장 많음
- 사글세 가구 중 주택이외의 거처는 사글세 「5만원 미만」 인 경우가 45.0%로 나타남

<표10> 주택(거처)의 종류 및 사글세 규모별 가구

(단위 : 가구, %)

	계	5만원 미만	5~10	10~15	15~20	20~30	30~40	40~50	50만원 이상
계	1,722 (100.0)	145 (8.4)	340 (19.7)	517 (30.0)	205 (11.9)	252 (14.6)	154 (8.9)	32 (1.9)	77 (4.5)
주택	1,642	(6.6)	(20.0)	(31.5)	(12.5)	(14.6)	(8.2)	(1.9)	(4.7)
단독주택	1,325	(6.8)	(23.3)	(31.2)	(15.5)	(13.4)	(5.7)	(0.8)	(3.2)
아파트	92	(0.0)	(20.7)	(22.8)	(0.0)	(21.7)	(12.0)	(0.0)	(22.8)
연립주택	43	(0.0)	(0.0)	(20.9)	(0.0)	(30.2)	(18.6)	(0.0)	(30.2)
다세대주택	51	(0.0)	(0.0)	(39.2)	(0.0)	(19.6)	(41.2)	(0.0)	(0.0)
비주거용건물내주택	131	(14.5)	(0.0)	(40.5)	(0.0)	(13.7)	(15.3)	(16.0)	(0.0)
주택이외의 거처	80	(45.0)	(15.0)	(0.0)	(0.0)	(16.3)	(23.8)	(0.0)	(0.0)

1.5. 자동차 보유

가. 가구주 성, 연령별 자동차 보유가구

**자동차보유가구는 643천 가구(54.2%)이며,
2대이상 보유가구는 94천 가구(7.9%)**

-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는 643천가구로 전체가구의 54.2%이며, 94천 가구(7.9%)는 자동차를 2대이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00년에 비해 자동차 보유가구 비율은 4.1%p 증가하였고, 2대이상 보유 가구 비율도 3.0%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남자 가구주의 자동차 보유비율은 64.0%로 여자 가구주 자동차 보유비율 22.2%보다 약 2.8배 높음
- 가구주 연령대별 자동차 보유비율을 보면, 30대 가구주의 자동차 보유 비율이 68.8%로 가장 높고, 다음이 40대 65.4%, 50대 58.7% 등임

<표11> 가구주 성, 연령별 자동차 보유가구

(단위 : 천가구, %)

	가구수	자동차 보유			자동차 미보유
		계	1대	2대이상	
2005	1,187	643	549	94	543
	(100.0)	(54.2)	(46.3)	(7.9)	(45.8)
남자	906	(64.0)	(54.2)	(9.8)	(35.9)
여자	280	(22.2)	(20.5)	(1.7)	(77.7)
19세이하	5	(2.1)	(2.1)	(0.0)	(97.9)
20~29	68	(30.6)	(29.0)	(1.7)	(69.3)
30~39	213	(68.8)	(61.4)	(7.4)	(31.2)
40~49	339	(65.4)	(55.3)	(10.1)	(34.5)
50~59	285	(58.7)	(47.7)	(11.0)	(41.3)
60세이상	277	(31.1)	(27.0)	(4.1)	(68.9)
2000	1,120	562	507	55	559
	(100.0)	(50.1)	(45.9)	(4.9)	(49.9)

※ 가구수에는 자동차 보유여부 미상 포함

나. 구·군별 자동차 보유현황

해운대구의 자동차 보유비율이 64.8%, 중구 28.9%

- 구·군별 가구의 자동차 보유현황을 보면, 해운대구의 자동차보유율이 64.8%로 가장 높고, 기장군 64.4%, 북구 62.5% 등임
- 가구의 자동차 보유비율이 낮은 구·군은 중구 28.9%, 동구 34.1%, 서구 37.5% 등임

<표12> 구·군별 자동차 보유가구

(단위 : 천가구, %)

	가구수	자동차 보유		자동차 미보유	
		1대	2대이상		
부 산	1,187 (100.0)	643 (54.2)	549 (46.3)	94 (7.9)	543 (45.8)
중 구	21	28.9	26.7	2.2	71.1
서 구	48	27.5	33.1	4.5	62.5
동 구	37	34.1	31.2	2.9	65.9
영도구	54	38.3	34.8	3.6	61.6
부산진구	138	49.0	42.8	6.2	50.9
동래구	87	57.7	48.8	9.0	42.2
남 구	99	53.7	45.6	8.1	46.2
북 구	106	62.5	53.4	9.1	37.4
해운대구	131	64.8	53.5	11.3	35.2
사하구	118	56.7	49.8	6.9	43.3
금정구	87	55.2	46.4	8.8	44.8
강서구	15	53.6	39.7	13.9	46.4
연제구	71	56.5	48.6	7.9	43.3
수영구	60	56.5	47.4	9.1	43.5
사상구	90	55.9	48.0	8.0	44.0
기장군	24	64.4	51.7	12.7	35.6

※ 가구수에는 자동차 보유여부 미상 포함

다. 가구의 점유형태별 자동차 보유

자기집 거주가구의 자동차 보유비율은 65.8%, 전세가구는 50.2%

- 점유형태별 가구의 자동차 보유비율은 자기집 거주가구의 자동차 보유비율이 65.8%로 가장 높고, 전세가구 50.2%, 무상 41.9%, 월세 27.9%, 사글세 22.3% 임
- 2대이상 자동차보유 가구 비율은 자기집 거주가구가 11.4%로 가장 높고, 전세 4.6%, 무상 4.3%, 월세 1.9%, 사글세 0.6% 임

<표13> 가구의 점유형태별 자동차 보유가구

(단위 : 천가구, %)

	가구수	자동차 보유		자동차 미보유	
		1대	2대이상		
계	1,187 (100.0)	643 (54.2)	549 (46.3)	94 (7.9)	543 (45.8)
자기집	677	65.8	54.3	11.4	34.2
전세	226	50.2	45.6	4.6	49.8
월세	244	27.9	26.0	1.9	72.1
사글세	2	22.3	21.8	0.6	77.7
무상	38	41.9	37.6	4.3	57.9

※ 가구수에는 자동차 보유여부 미상 포함

라. 가구주의 직업별 자동차 보유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의 자동차 보유비율 91.2%

- 가구주 직업별 자동차 보유비율을 보면,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의 자동차 보유비율이 91.2%, 「전문가」 81.7%, 「기술공 및 준전문가」 78.4%, 「사무 종사자」 76.3% 등임
- 자동차 보유비율이 낮은 직업군은 「단순 노무종사자」 42.1%, 「서비스 종사자」 47.8%,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련종사자」 52.7% 등임

<표14> 가구주의 직업별 자동차 보유가구

(단위 : 천가구, %)

	가구수	자동차 보유		자동차 미보유	
		1대	2대이상		
계	1187 (100.0)	643 (54.2)	579 (46.3)	93 (7.9)	543 (45.8)
일 하였음	773	(67.3)	(56.6)	(10.7)	(32.7)
0.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55	(91.2)	(62.2)	(28.9)	(8.8)
1. 전문가	57	(81.7)	(63.5)	(18.2)	(18.2)
2. 기술공 및 준전문가	72	(78.4)	(67.5)	(10.9)	(21.6)
3. 사무 종사자	100	(76.3)	(67.4)	(8.9)	(23.7)
4. 서비스 종사자	70	(47.8)	(43.2)	(4.6)	(52.2)
5. 판매 종사자	88	(68.4)	(56.1)	(12.3)	(31.6)
6.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련 종사자	13	(52.7)	(38.7)	(14.1)	(47.3)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09	(64.6)	(56.9)	(7.7)	(35.4)
8.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122	(67.3)	(58.3)	(9.0)	(32.7)
9. 단순 노무종사자	85	(42.1)	(37.1)	(4.9)	(57.9)
A. 기타	2	(94.7)	(89.9)	(4.8)	(5.3)
직업 미상	1	(61.2)	(57.7)	(3.4)	(38.8)
일 하지 않았음	413	(29.7)	(26.9)	(2.7)	(70.3)

※ 가구수에는 가구주의 취업여부 및 자동차 보유여부 미상 포함

1.6. 자동차 보유가구의 주차시설

자동차 보유가구의 주차시설이 자가주차장인 가구는 459천 가구 (71.5%), 도로변 및 골목길은 85천 가구(13.2%)로 나타남

- 자동차 보유가구의 주차시설을 보면, 자가주차장 가구의 비율이 71.5%, 도로변·골목길(주차선 없는 곳) 13.2%, 노상주차장(주차선 있는 곳) 6.7%, 영업용 또는 건물부설 주차장 5.0%, 공휴지 1.2%로 나타남
 - 2000년에 비해 자가주차장의 비율은 7.4%p 증가, 복합주차시설의 비율은 0.9%p 증가하였음
 - 도로변·골목길 주차비율은 6.7%p, 공휴지는 1.6%p 감소하였음
- 거처의 종류별 자동차 보유가구의 주차시설을 보면, 아파트의 경우 자가주차장 비율이 97.0%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단독주택의 자가주차장 비율이 20.6%로 가장 낮음
 - 2000년에 비해 전체적으로 자가주차장 및 복합주차시설의 비율이 증가하였으나 아파트의 경우 자가주차장 비율이 1.3%p 감소하였음

<표15> 주택(거처)의 종류별 주차시설

(단위 : 천가구, %)

	계	단일 주차시설							복합
		자가 주차장	영업용 또는 건물부설 주차장	노상 주차장	도로변 · 골목길	공휴지	기타		
2005	643	630	459	32	43	85	8	2	13
	(100.0)	(97.9)	(71.5)	(5.0)	(6.7)	(13.2)	(1.2)	(0.4)	(2.1)
주택	639	(97.9)	(71.5)	(4.9)	(6.7)	(13.3)	(1.2)	(0.4)	(2.1)
단독주택	187	(97.7)	(20.6)	(12.8)	(19.5)	(40.1)	(3.7)	(1.0)	(2.3)
아파트	375	(98.2)	(97.0)	(0.5)	(0.3)	(0.3)	(0.0)	(0.1)	(1.8)
연립주택	20	(96.4)	(74.3)	(3.1)	(6.2)	(11.1)	(1.5)	(0.2)	(3.6)
다세대주택	45	(97.3)	(77.3)	(5.0)	(4.9)	(9.0)	(0.6)	(0.5)	(2.7)
비거주용건물내주택	11	(97.5)	(38.4)	(24.6)	(12.2)	(19.5)	(2.3)	(0.4)	(2.5)
주택이외의 거처	4	(99.6)	(68.8)	(16.1)	(5.1)	(6.6)	(2.9)	(0.1)	(0.4)
2000	562	555	360	30	35	112	16	3	6
	(100.0)	(98.8)	(64.1)	(5.3)	(6.3)	(19.9)	(2.8)	(0.5)	(1.2)
주택	560	(98.8)	(64.2)	(5.2)	(6.3)	(19.9)	(2.8)	(0.5)	(1.2)
단독주택	202	(98.1)	(17.2)	(10.8)	(14.4)	(48.0)	(6.5)	(1.1)	(1.9)
아파트	292	(99.3)	(98.3)	(0.3)	(0.2)	(0.4)	(0.0)	(0.1)	(0.7)
연립주택	30	(99.2)	(71.9)	(3.7)	(6.2)	(14.6)	(2.4)	(0.4)	(0.8)
다세대주택	15	(98.7)	(65.1)	(6.2)	(6.3)	(18.2)	(2.4)	(0.5)	(1.3)
비거주용건물내주택	21	(99.1)	(29.2)	(21.5)	(13.5)	(29.0)	(5.1)	(0.8)	(0.9)
주택이외의 거처	1	(100.0)	(45.1)	(10.7)	(4.3)	(21.0)	(17.7)	(1.2)	-

2) 경제활동상태

2.1. 부산의 취업자

부산의 취업자 비율은 45.7%로 7개 특·광역시 중 가장 낮음

- 부산의 15세 이상 인구 가운데 취업자는 1,315천 명으로 취업자 비율이 45.7%로 나타남
 - 전국 평균 51.5%보다 5.8%p 낮으며 7개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
- 취업자 성비는 1.6으로 여자 취업자 1명당 남자 취업자 6명으로 전국 평균과 동일

<표16> 특·광역시별 취업자

(단위 : 천명, %)

시도	15세이상	일 하였음		일하지 않았음		취업자 구성비	취업자성비 (남자/여자)
			%		%		
전국	37,406	19,277	51.5	18,112	48.4	100.0	1.6
특·광역시	17,828	8,702	48.8	9,117	51.1	45.1	1.6
서울	8,013	4,003	50.0	4,005	50.0	20.8	1.6
부산	2,878	1,315	45.7	1,563	54.3	6.8	1.6
대구	1,951	906	46.4	1,044	53.5	4.7	1.7
인천	1,971	995	50.5	975	49.4	5.2	1.8
광주	1,089	523	48.0	566	51.9	2.7	1.6
대전	1,127	542	48.1	584	51.9	2.8	1.7
울산	799	418	52.4	381	47.6	2.2	2.1

※ 15세이상 인구에는 취업여부 미상 포함

2.2. 성, 연령별 취업자

취업자 중 여자비율은 38.1%로 2000년에 비해 1.0%p 증가하였고, 취업자 평균연령은 42.0세로 1.8세 증가

- 취업자의 성별 구성비는 남자가 61.9%, 여자가 38.1% 임
 - 2000년에 비해 취업자 중 남자 구성비는 1.0%p(62.9%→61.9%) 감소하고, 여자의 구성비는 1.0%p(37.1%→38.1%) 증가
- 취업자의 연령별 구성비를 보면, 40대가 30.9%로 가장 많고, 30대 26.0%, 50대 19.0%, 20대 17.5% 등임
 - 2000년에 비해 40대이상의 취업자는 증가하고 30대이하 취업자는 감소
- 취업자의 평균연령은 42.0세로 2000년에 비해 취업자 평균연령이 1.8세 증가하였으며, 남자 43.5세, 여자 39.7세로 남자취업자의 평균연령이 높음

<표17> 성, 연령별 취업자

(단위 : 천명, %, %p, 세)

	2005		2000		증감	
		%		%		%p
계	1,315	100.0	1,336	100.0	△21	-
남 자	813	61.9	840	62.9	△26	△1.0
여 자	501	38.1	496	37.1	5	1.0
19세이하	6	0.4	19	1.4	△13	△1.0
20~29	230	17.5	273	20.4	△43	△3.0
30~39	342	26.0	376	28.2	△35	△2.2
40~49	406	30.9	401	30.0	6	0.9
50~59	249	19.0	205	15.3	44	3.6
60세이상	82	6.2	62	4.7	20	1.6
평균연령	42.0	-	40.2	-	1.8	-
남 자	43.5	-	41.4	-	2.1	-
여 자	39.7	-	38.1	-	1.6	-

2.3. 산업별 취업자

산업별 취업자의 연령별 구성비는 「농림어업」에 60세 이상이 31.7%, 「광공업」에 40대 33.9%,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에 40대 30.2%

- 산업별 취업자 중 남자의 구성비가 높은 산업은 「건설,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91.3%, 「운수·통신업」 88.7%, 「제조업」 71.6% 등임
- 여자의 구성비가 높은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 66.5%, 「공공행정, 교육,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56.6% 임
- 산업별 취업자의 연령별 구성비를 보면, 「농림어업」은 60세 이상이 31.7%로 가장 많고, 「광공업」 및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 40대가 각각 33.9%, 30.2%로 가장 많이 종사하고 있음
- 산업별 취업자의 평균연령은 「농림어업」 52.5세, 「광공업」 43.5세,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 41.2세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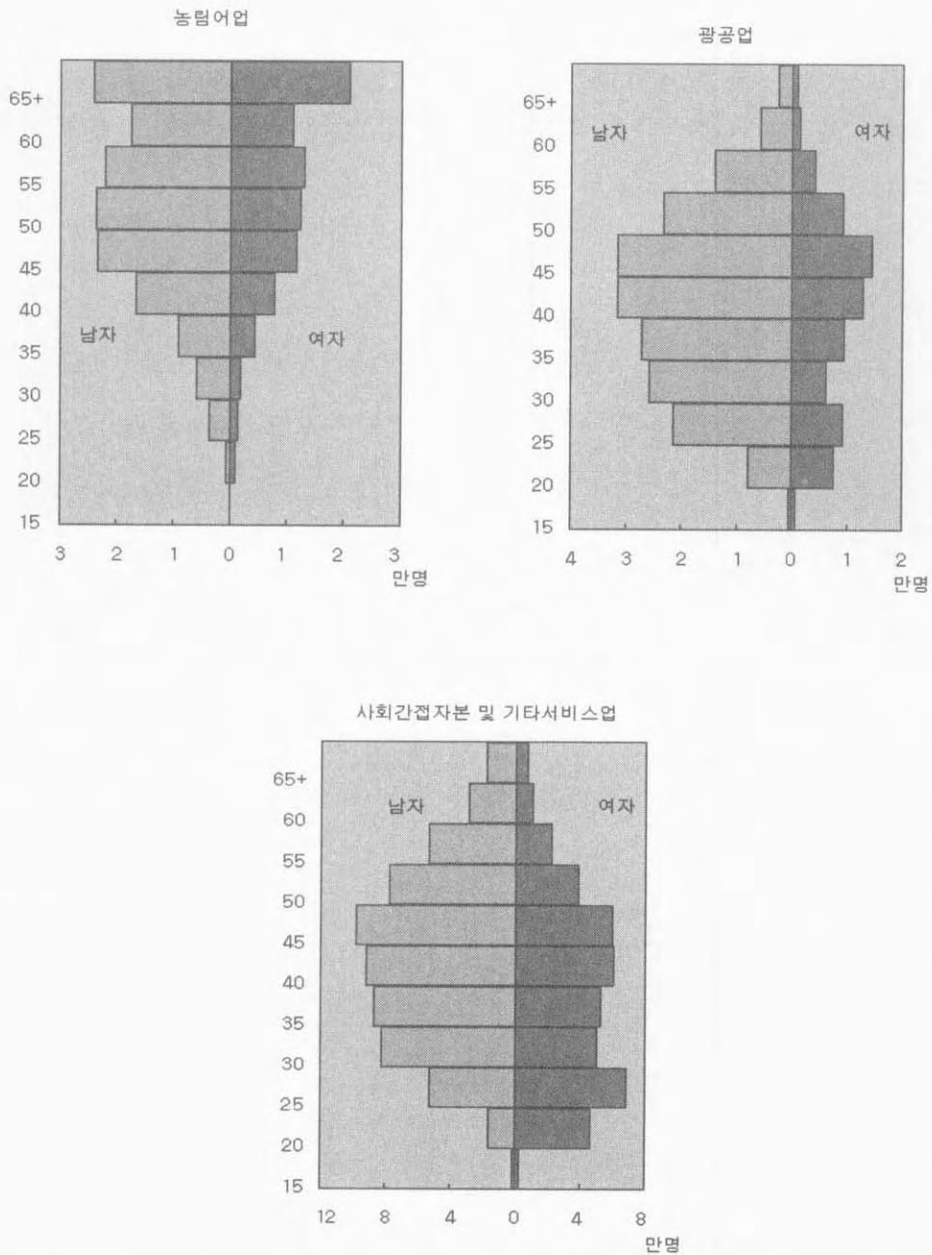
<표18> 성, 연령 및 산업별 취업자

(단위 : 천명, %)

	계	농림 어업	광공업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 수도사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 통신업	금융보험 부동산 임대업	사업서 비스업	공공행정 교육보건 사회복지	오락문화 개인 서비스업		
계	1,315 (100.0)	23 (100.0)	267 (100.0)	266 (100.0)	1,024 (100.0)	111 (100.0)	241 (100.0)	120 (100.0)	118 (100.0)	74 (100.0)	59 (100.0)	200 (100.0)	100 (100.0)
남자	813 (63.3)	(71.6)	(71.6)	(71.6)	(59.3)	(91.3)	(55.7)	(33.5)	(88.7)	(59.2)	(66.1)	(43.4)	(56.5)
여자	501 (36.7)	(28.4)	(28.4)	(28.4)	(40.7)	(8.7)	(44.3)	(66.5)	(11.3)	(40.8)	(33.9)	(56.6)	(43.5)
19세이하	6 (0.0)	(0.5)	(0.5)	(0.5)	(0.4)	(0.1)	(0.4)	(1.2)	(0.1)	(0.0)	(0.2)	(0.3)	(0.8)
20~29	230 (2.8)	(17.2)	(17.2)	(17.2)	(17.9)	(11.3)	(18.2)	(12.2)	(11.7)	(14.4)	(25.1)	(26.8)	(18.8)
30~39	342 (9.2)	(25.6)	(25.6)	(25.6)	(26.5)	(28.5)	(26.0)	(20.2)	(22.7)	(28.8)	(30.8)	(30.6)	(24.8)
40~49	406 (25.6)	(33.9)	(33.9)	(33.9)	(30.2)	(35.5)	(29.7)	(38.6)	(31.4)	(27.7)	(21.9)	(26.2)	(29.2)
50~59	249 (30.6)	(18.9)	(18.9)	(18.9)	(18.7)	(20.4)	(18.1)	(22.1)	(26.5)	(16.5)	(15.0)	(13.3)	(20.0)
60세이상	85 (31.7)	(3.9)	(3.9)	(3.9)	(6.3)	(4.2)	(7.6)	(5.6)	(7.6)	(12.6)	(7.1)	(2.8)	(6.4)
평균 연령	2005 42.0	52.5	43.5	41.1	41.2	41.6	41.6	43.2	41.1	43.9	39.4	38.0	41.8
	2000 40.2	50.1	42.0	39.4	40.5	40.7	39.9	41.5	39.1	42.6	38.2	36.9	43.2

※ 계에는 산업 미상 포함

<그림 1> 연령 및 산업별 인구구조



2.4. 직업별 취업자

가. 규모 및 구조

취업자의 직업별 분포는 「사무종사자」 16.2%, 「판매종사자」 13.2%,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2.5% 등임

- 취업자의 직업별 분포를 보면, 「사무종사자」 직군이 16.2%로 가장 많고, 「판매종사자」 13.2%,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2.5%,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12.0%, 「서비스종사자」 10.8% 등임
 - 2000년에 비해 「기술공 및 준전문가」 비중은 2.2%p 증가, 「판매종사자」는 2.9%p 감소
- 남자 구성비가 높은 직군은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90.4%,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85.2%,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80.4% 등
 - 여성 구성비가 높은 직군은 「서비스종사자」 63.3%, 「전문가」 55.2%, 「판매종사자」 51.4% 등임
- 직업군별 성비는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가 9.4로 여자 1명당 남자 9.4명이 종사하는 직군이며,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5.8,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4.1 등임
- 직업별 평균 연령은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련종사자」 54.7세, 「단순노무종사자」 47.8세,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47.6세 등으로 나타남

<표19> 성, 연령별 취업자의 직업

(단위 : 천명, %)

	계											
		0	1	2	3	4	5	6	7	8	9	기타
2005	1,315 (100.0)	62 (4.7)	126 (9.6)	120 (9.1)	213 (16.2)	142 (10.8)	174 (13.2)	20 (1.5)	158 (12.0)	165 (12.5)	128 (9.7)	3 (0.2)
남자	813	(90.4)	(44.8)	(70.1)	(52.4)	(36.7)	(48.6)	(62.2)	(80.4)	(85.2)	(64.9)	(98.7)
여자	501	(9.6)	(55.2)	(29.9)	(47.6)	(63.3)	(51.4)	(37.8)	(19.6)	(14.8)	(35.1)	(1.3)
성비(남/여)	1.6	9.4	0.8	2.3	1.1	0.6	0.9	1.6	4.1	5.8	1.9	76.6
평균연령	42.0	47.6	37.7	38.7	36.8	42.4	43.5	54.7	42.9	44.0	47.8	39.3
2000	1,336 (100.0)	70 (5.2)	105 (7.9)	92 (6.9)	205 (15.3)	145 (10.9)	215 (16.1)	23 (1.7)	184 (13.8)	171 (12.8)	125 (9.4)	2 (0.1)
남자	840	(93.4)	(50.0)	(70.0)	(54.7)	(37.8)	(49.8)	(60.8)	(75.6)	(86.8)	(64.8)	(98.8)
여자	496	(6.6)	(50.0)	(30.0)	(45.3)	(62.2)	(50.2)	(39.2)	(24.4)	(13.2)	(35.2)	(1.2)
성비(남/여)	1.7	14.1	1.0	2.3	1.2	0.6	1.0	1.6	3.1	0.6	1.8	79.3
평균연령	40.2	45.4	36.6	36.8	34.5	40.7	41.4	52.7	40.4	41.3	45.3	37.6

※ 계에는 직업미상 포함

0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1 전문가, 2 기술공 및 준전문가, 3 사무종사자, 4 서비스 종사자, 5 판매종사자, 6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련종사자,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8 장차,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9 단순노무종사자

나. 가구주 부부의 직업

가구주 부부가 함께 살고 있는 가구 중 부부 모두 일하는 가구는 218천 가구(28.4%)

- 가구주 부부가 함께 살고 있는 766천 가구 중 부부가 함께 일한 가구는 218천 가구(28.4%)
 - 남편만 일한 가구는 362천 가구(47.3%), 부인만 일한 가구는 38천 가구(5.0%), 부부 모두 일하지 않은 가구는 148천 가구(19.3%) 임
- 부부 모두 일한 가구 중 부부의 직업 일치도는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련노동자」가 47.5%로 가장 높고, 「판매 종사자」 33.3%, 「서비스종사자」 33.1% 등임

<표20> 가구주 부부의 직업

(단위 : 천명, %)

남편 \ 부인	계	일하지 않았음	일 하였음										
				0	1	2	3	4	5	6	7	8	9
계	766 (100.0)	511 (66.6)	256 (33.4)	3 (3.6)	27 (3.6)	13 (1.7)	41 (5.3)	48 (6.3)	54 (7.0)	6 (0.7)	22 (2.9)	15 (1.9)	27 (3.5)
일하지 않았음	186 (24.3)	148 (19.3)	38 (5.0)	1 (0.3)	3 (0.3)	1 (0.1)	3 (0.4)	9 (1.2)	7 (1.0)	0 (0.1)	4 (0.5)	3 (0.4)	7 (0.9)
일하였음	580 (75.7)	362 (47.3)	218 (28.4)	3 (0.4)	25 (3.3)	12 (1.6)	38 (4.9)	39 (5.1)	46 (6.1)	5 (0.7)	18 (2.3)	12 (1.5)	19 (2.5)
0	50	(69.9)	(30.1)	(1.7)	(4.8)	(2.0)	(9.6)	(3.7)	(4.0)	(0.0)	(1.4)	(1.4)	(1.5)
1	42	(62.1)	(37.9)	(1.0)	(22.1)	(3.6)	(5.0)	(1.9)	(2.5)	(0.1)	(0.5)	(0.4)	(0.6)
2	58	(66.8)	(33.2)	(0.7)	(6.7)	(6.0)	(7.9)	(3.3)	(4.7)	(0.1)	(1.2)	(0.8)	(1.6)
3	77	(64.1)	(35.9)	(0.5)	(5.7)	(2.9)	(10.5)	(5.9)	(5.3)	(0.0)	(1.7)	(1.6)	(1.8)
4	35	(46.6)	(53.4)	(0.3)	(2.1)	(1.4)	(8.2)	(33.1)	(3.1)	(0.0)	(0.9)	(0.4)	(3.8)
5	63	(49.9)	(50.1)	(0.4)	(2.1)	(1.2)	(6.5)	(3.1)	(33.3)	(0.0)	(1.2)	(0.8)	(1.4)
6	10	(35.7)	(64.3)	(0.1)	(0.9)	(0.4)	(1.0)	(4.1)	(4.5)	(47.5)	(1.8)	(1.2)	(2.8)
7	87	(63.5)	(36.5)	(0.2)	(1.6)	(1.2)	(6.3)	(5.3)	(5.8)	(0.1)	(9.2)	(2.7)	(4.1)
8	101	(68.1)	(31.9)	(0.3)	(1.0)	(1.1)	(4.0)	(6.6)	(6.0)	(0.1)	(3.8)	(4.7)	(4.3)
9	56	(65.6)	(34.4)	(0.1)	(0.7)	(0.7)	(2.9)	(8.4)	(5.4)	(0.2)	(3.4)	(2.3)	(10.3)
기타	2	(84.7)	(15.3)	(0.0)	(3.9)	(2.0)	(3.3)	(2.9)	(1.1)	(0.0)	(0.0)	(0.0)	(2.1)

※ 계에는 직업미상 포함

0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1 전문가, 2 기술공 및 준전문가, 3 사무종사자, 4 서비스종사자, 5 판매종사자, 6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련종사자,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8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9 단순노무종사자

2.5. 종사상의 지위별 취업자

「임금근로자」는 69.0%, 「고용원 없는 자영자」 18.2%, 「고용원 둔 사업주」 7.5%, 「무급가족종사자」 5.3%

- 취업자의 종사상의 지위별 분포를 보면, 「임금근로자」가 69.0%,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18.2%, 「고용원을 둔 사업주」 7.5%, 「무급가족 종사자」 5.3%로 나타남
 - 「고용원을 둔 사업주」는 여자 1명당 남자 4.4명으로 남자의 비율이 높고, 「무급가족종사자」는 남자 1명당 여자 8.9명으로 여자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 보면, 「임금근로자」비율은 19세미만 95.0%, 20대 93.2%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임금근로자」비율이 낮아짐
 -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및 고용원을 둔 사업주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구성비가 증가하여 60대에서 각각 36.5%, 11.3%로 가장 높음

<표21> 성, 연령 및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단위 : 천명, %)

	계	임금근로자		고용원이없는자영자		고용원을둔사업주		무급가족종사자	
			%		%		%		%
2005	1,315	907	69.0	239	18.2	99	7.5	69	5.3
남	813	555	68.2	171	21.0	81	9.9	7	0.9
여	501	352	70.3	68	13.6	18	3.7	62	12.4
성비(남/여)	1.6	1.6	-	2.5	-	4.4	-	0.1	-
성비(여/남)	0.6	0.6	-	0.4	-	0.2	-	8.9	-
19세이하	6	5	95.0		2.6		0.4		2.0
20~29	229	213	93.2	9	3.8	2	1.1	4	1.9
30~39	301	232	77.2	37	12.1	19	6.2	13	4.5
40~49	350	208	59.5	75	21.4	38	11.0	28	8.0
50~59	215	115	53.3	61	28.2	23	10.9	16	7.6
60세이상	66	29	44.3	24	36.5	7	11.3	5	7.9
2000	1,336	915	68.5	246	18.4	100	7.5	75	5.6

2.6. 근로장소별 취업자

취업자 중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78.5%, 야외 작업현장 6.7%

- 취업자의 근로장소를 살펴보면, 전체 취업자 중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78.5%로 가장 많고, 다음이 「야외 작업현장」 6.7%, 「거리」 5.0%, 「운송수단」 3.7%, 「자기집」 3.6% 등임
- 근로장소별 취업자의 성비(여자 1명당 남자 취업자 수)를 보면, 「운송수단」에서 일하는 경우의 성비가 47.6명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야외 작업현장」 7.0명, 「거리」 2.1명 등임
- 연령별 구성비를 보면, 「자기집」은 50대가 30.9%로 가장 많고, 「남의집」·「운송수단」·「야외 작업현장」·「거리」·「사업장」은 40대의 구성비가 각각 35.3%, 34.5%, 32.5%, 32.3%, 30.4%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22> 성, 연령 및 근로장소별 취업자

(단위 : 천명, %)

	계	사업장	자기집	남의집	거리	야외 작업현장	운송수단	기타
계	1,315 (100.0)	1,032 (78.5)	47 (3.6)	29 (2.2)	66 (5.0)	87 (6.7)	49 (3.7)	4 (0.3)
남 자	813	608	22	11	44	77	48	3
여 자	501	425	25	18	21	11	1	1
성 비	1.6	1.4	0.9	0.7	2.1	7.0	47.6	3.7
19세이하	6 (0.4)	5 (0.5)	-* (0.0)	-* (0.3)	-* (0.3)	-* (0.1)	-* (0.0)	-* (0.0)
20~29	230 (17.5)	208 (20.2)	2 (4.4)	4 (13.1)	6 (9.0)	7 (7.6)	3 (5.5)	1 (12.7)
30~39	342 (26.0)	281 (27.3)	7 (15.3)	8 (26.9)	15 (23.0)	21 (24.2)	8 (17.0)	1 (17.4)
40~49	406 (30.9)	314 (30.4)	14 (30.5)	10 (35.3)	21 (32.3)	28 (32.5)	17 (34.5)	1 (34.1)
50~59	249 (19.0)	175 (16.9)	14 (30.9)	6 (19.6)	16 (24.3)	21 (24.1)	16 (33.1)	1 (25.2)
60세이상	82 (6.2)	49 (4.8)	9 (18.8)	1 (4.8)	7 (11.1)	10 (11.5)	5 (9.9)	0 (10.7)

※ -* : 단위 미만

여 백

- 표본부문 -

3. 여성·아동·고령자·활동제약자·혼인연령·1인가구

1) 여성	99
.....	
2) 아동	107
.....	
3) 고령자	110
.....	
4) 활동제약자	117
.....	
5) 혼인연령	120
.....	
6) 1인 가구	121
.....	

여

백

1) 여성

1.1. 여성인구

가. 연령

여성인구는 1,777천명으로 2000년 대비 3.1%(56천명) 감소 ; 여성고령인구는 28.9% 증가하고, 생산가능연령인구는 3.7%, 유소년 인구는 14.4% 감소

- 2005년 11월 1일 현재 부산의 여성인구는 1,777천명으로, 40대가 327천명(18.4%)으로 가장 많고, 20대 280천명(15.8%), 30대 277천명(15.6%), 60세 이상이 265천명(14.9%) 임
 - 2000년에 비해, 30대이하 여성인구는 감소, 40대이상 여성인구는 증가
 - 고령여성인구(65세이상)는 41천명(28.9%) 증가하였으나 생산가능연령 여성인구(15~64세)는 51천명(3.7%), 유소년 여성인구(15세미만)는 46천명(14.4%) 감소

- 여성인구의 평균연령은 38세로 2000년 34.9세보다 3.1세 증가하였음

<표1> 연령별 여성인구

(단위 : 천명, %)

	2005		2000		증감	증감률
	인구	구성비	인구	구성비		
계	1,777	100.0	1,833	100.0	△56	△3.1
9세이하	162	9.1	207	9.1	△45	△21.8
10~19세	225	12.6	267	12.6	△43	△16.0
20~29세	280	15.8	319	15.8	△38	△12.0
30~39세	277	15.6	306	15.6	△30	△9.7
40~49세	327	18.4	319	18.4	9	2.7
50~59세	241	13.6	200	13.6	41	20.5
60세이상	265	14.9	214	14.9	50	23.5
15세미만	273	15.4	319	15.4	△46	△14.4
15~64세	1,322	74.4	1,373	74.4	△51	△3.7
65세이상	182	10.3	141	10.3	41	28.9
평균연령(세)	38	-	34.9	-	3.1	-

나. 혼인상태

주 출산연령(25~34세)의 유배우 비중은 15.3%p 감소, 미혼은 14.9%p 증가

- 15세 이상 여성인구 1,504천명 중 유배우 인구는 836천명(55.6%), 미혼 408천명(27.2%), 사별 199천명(13.2%), 이혼 60천명(4.0%)임
 - 2000년에 비해 유배우 인구 비중은 1.5%p (57.1%→55.6%), 미혼은 0.6%p 감소하고 이혼은 1.5%p, 사별 0.6%p 증가
- 연령별로는 주 출산연령인 25~34세의 유배우 비중은 50.6%, 미혼은 47.4%로 나타남
 - 2000년에 비해 유배우 비중은 15.3%p 감소하고, 만혼화 영향 등으로 미혼 비중은 14.9%p 증가하였음

<표2> 혼인상태별 여성인구

(단위 : 천명, %)

	2005					2000				
	계	미혼	유배우	사별	이혼	계	미혼	유배우	사별	이혼
계	1504	408	836	199	60	1514	422	864	190	38
(구성비)	(100.0)	(27.2)	(55.6)	(13.2)	(4.0)	(100.0)	(27.8)	(57.1)	(12.6)	(2.5)
15-19세	114	99.7	0.2	0.0	0.0	156	99.6	0.4	0.0	0.0
20-24세	143	96.1	3.7	0.0	0.1	162	93.1	6.8	0.0	0.1
25-29세	137	69.5	29.8	0.1	0.7	156	50.0	9.3	0.1	0.6
30-34세	135	25.1	71.7	0.4	2.9	146	13.7	83.7	0.6	2.0
35-39세	141	9.4	83.8	1.1	5.6	161	4.7	89.8	1.7	3.9
40-44세	157	3.8	85.8	2.9	7.5	177	2.5	88.2	4.0	5.3
45-49세	170	2.2	83.6	5.9	8.3	142	1.7	84.7	8.2	5.5
50-54세	135	1.6	79.8	11.5	7.2	113	1.0	79.9	14.6	4.5
55-59세	106	1.0	74.3	19.4	5.3	88	0.8	71.5	24.3	3.3
60-64세	82	0.8	64.0	31.7	3.5	73	0.6	59.4	37.8	2.2
65세이상	182	0.7	31.7	65.9	1.7	141	0.4	26.1	72.4	1.1
25~34세	272	47.4	50.6	0.2	1.8	302	32.5	65.9	0.3	1.3

※ 주1) 계에는 혼인상태 및 연령 미상 포함

1.2. 출생아

가. 가임여성인구

유배우 가임여성인구는 539천명으로 2000년에 비해 92천명(14.6%)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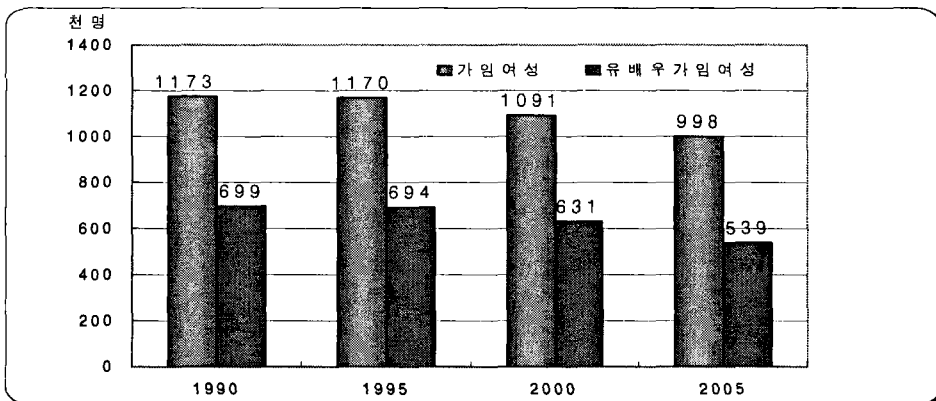
- 부산의 가임여성인구(15~49세)는 998천명으로 2000년 1,091천명보다 93천명(8.6%) 감소하였음
 - 가임여성인구는 1990년 이후 2005년까지 지속적인 감소세
- 출생아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유배우 가임여성인구는 539천명으로 2000년 631천명보다 92천명(14.6%) 감소하였음

<표3> 가임여성인구

(단위 : 천명, %)

	2005		2000		1995		1990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가임여성(15~49세)	998	△8.6	1,091	△6.7	1,170	△0.3	1,173
증감	△93		△78		△3		
유배우 가임여성	539	△14.6	631	△9.1	694	△0.8	699
증감	△92		△63		△5		

[그림1] 가임여성 및 유배우 가임여성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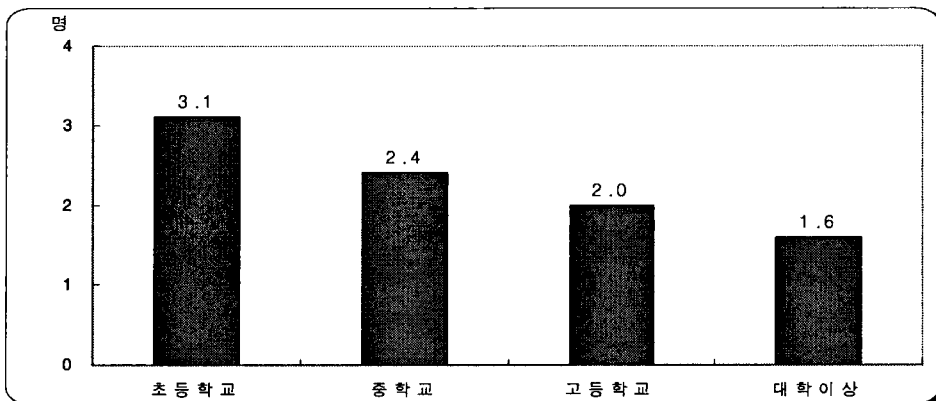


나. 연령 및 교육정도별 출생아수

기혼여성 평균 출생아수는 2.3명, 세자녀 이상 출생여성은 5.0%p 감소

- 기혼여성 1,094천명 중 두자녀를 출생한 여성이 508천명(46.4%)로 가장 많고, 세자녀 191천명(17.5%), 한자녀 175천명(16.0%) 등임
 - 연령대별로는 20대 기혼여성은 한자녀 출생 비중이 44.1%, 30대~50대는 두자녀 출생비중이 58.5%(30대), 67.4%(40대), 48.3%(50대)로 가장 높고, 60대이상은 세자녀 출생비중이 25.0%로 가장 높음
 - 2000년에 비해 세자녀 이상 출생여성은 28.9%로 5.0%p(33.9%→28.9%) 감소하고 두자녀 이하 출생여성은 5.0%p(66.1%→71.1%) 증가
- 기혼여성의 평균출생아수는 2.3명으로 2000년 2.4명에서 0.1명 감소하였음
 - 연령별로는 20대 기혼여성의 평균출생아수가 0.8명, 30대 1.7명, 40대 1.9명, 50대 2.4명, 60대이상은 3.6명으로 나타남
- 교육정도별로는 초등학교 졸업자의 평균출생아수가 3.1명, 중학교 졸업 2.4명, 고등학교 졸업 2.0명, 대학졸업 이상은 1.6명으로 나타남
 - 기혼여성의 학력이 높아질수록 출생아수는 줄어드는 경향을 보임

[그림2] 교육정도별 평균출생아수



<표4> 연령별 출생아수

(단위 : 천명, %)

연령	기혼여성	출생아수							평균 출생아수
		0명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이상	
2005	1,094 (100.0)	60 (5.5)	175 (16.0)	508 (46.4)	191 (17.5)	83 (7.6)	42 (3.8)	-*	2.3
15~19세	-*	80.7	19.3	0.0	0.0	0.0	0.0	0.0	0.2
20~29세	46	36.9	44.1	17.6	1.0	0.0	0.0	0.0	0.8
30~39세	230	7.9	26.3	58.5	7.0	0.3	0.0	0.0	1.7
40~49세	318	2.9	16.9	67.4	11.5	1.1	0.1	0.0	1.9
50~59세	238	2.2	9.8	48.3	30.5	7.4	1.4	0.4	2.4
60세 이상	262	4.0	6.8	13.7	25.0	23.4	14.6	12.5	3.6
2000	1,093 (100.0)	57 (5.3)	175 (16.0)	490 (44.8)	194 (17.8)	88 (8.0)	49 (4.5)	40 (3.6)	2.4

※ 주1) 기혼여성에는 출생아수 미상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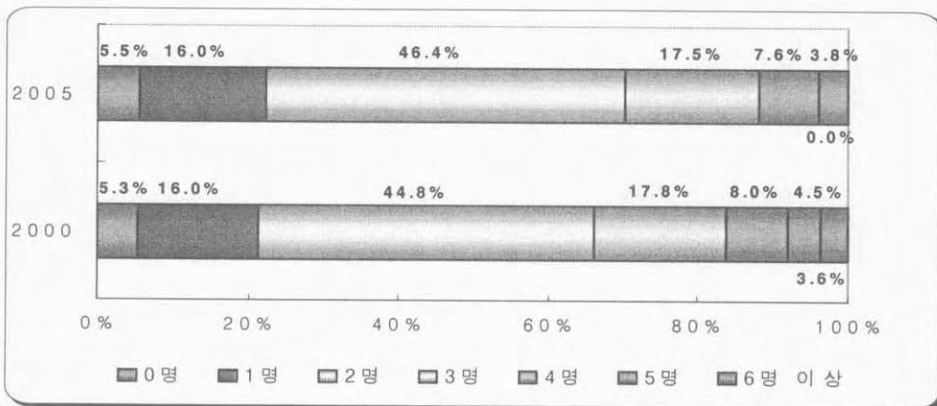
주2) * : 단위미만

<표5> 교육정도별 출생아수

(단위 : 명)

교육정도	초등학교졸업	중학교졸업	고등학교졸업	대학졸업이상
평균출생아수	3.1	2.4	2.0	1.6

[그림3] 기혼여성의 출생아수별 구성비 추이



다. 경제활동상태별 출생아수

취업중인 기혼여성의 평균출생아수는 1.9명, 미취업 기혼여성은 2.5명

- 모의 취업여부별 평균 출생아수는 미취업 기혼여성이 2.5명으로 취업 기혼여성(1.9명)보다 0.6명 많음
- 모의 종사상의 지위별로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및 무급가족종사자의 평균 출생아수가 2.2명으로 가장 높고, 고용원을 둔 사업주 2.0명이며, 임금근로자의 평균출생아수는 1.8명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직업별로는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련종사자의 평균 출생아수가 3.0명으로 가장 높고, 단순노무종사자 2.2명, 판매종사자와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가 2.1명으로 나타남

<표6> 경제활동상태별 출생아수

(단위 : 명, %)

종사상지위	평균 출생아수	직업	평균 출생아수
15세이상	2.3	0.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1.9
취업자	1.9	1. 전문가	1.5
임금근로자	1.8	2. 기술공 및 준전문가	1.6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2.2	3. 사무 종사자	1.6
고용원을 둔 사업주	2.0	4. 서비스 종사자	2.0
무급가족종사자	2.2	5. 판매 종사자	2.1
미취업자	2.5	6.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련 종사자	3.0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2.1
		8.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2.0
		9. 단순 노무 종사자	2.2

라. 출생 · 생존 · 동거 · 타지거주 자녀수

60대이상 기혼여성의 평균 출생아수는 3.6명, 동거자녀는 0.6명, 타지 거주자녀 2.8명

- 20대 기혼 여성의 평균출생아수 및 평균 동거자녀수는 각각 0.8명이며, 30대는 각각 1.7명임
- 40대 기혼 여성의 평균출생아수는 1.9명이며, 이 중 동거자녀수가 1.5명, 타지 거주 자녀수가 0.4명으로 나타남
- 50대의 경우 평균출생아수는 2.4명이며, 타지거주 자녀수가 1.3명으로 동거자녀수 1.0명보다 높게 나타남
- 60대이상 기혼여성의 경우 평균출생아수는 3.6명이며, 이 중 3.4명이 생존하여 0.6명이 동거하고 있으며 2.8명이 타지에 거주하고 있음

<표7> 연령별 출생, 생존, 동거, 타지거주 자녀수

(단위 : 명)

연령	평균출생아수	평균생존자녀수	평균동거자녀수	평균타지자녀수
15세이상	2.3	2.3	1.2	1.1
15~19	0.2	0.2	0.2	-
20~29	0.8	0.8	0.8	0.0
30~39	1.7	1.7	1.6	0.1
40~49	1.9	1.9	1.5	0.4
50~59	2.4	2.3	1.0	1.3
60세이상	3.6	3.4	0.6	2.8

1.3. 추가계획 자녀수

가임기혼여성 중 추가자녀계획이 있는 여성은 10.5%,
계획이 없는 여성은 89.5%

- 가임기혼여성 594천명 중 추가자녀계획을 가지고 있는 여성이 62천명 (10.5%), 추가자녀계획이 없는 여성이 531천명(89.5%)임
- 가임기혼여성의 평균출생아수는 1.7명이며 추가계획자녀수는 0.1명으로 기대자녀수는 1.9명임

<표8> 연령별 추가계획자녀수 및 기대자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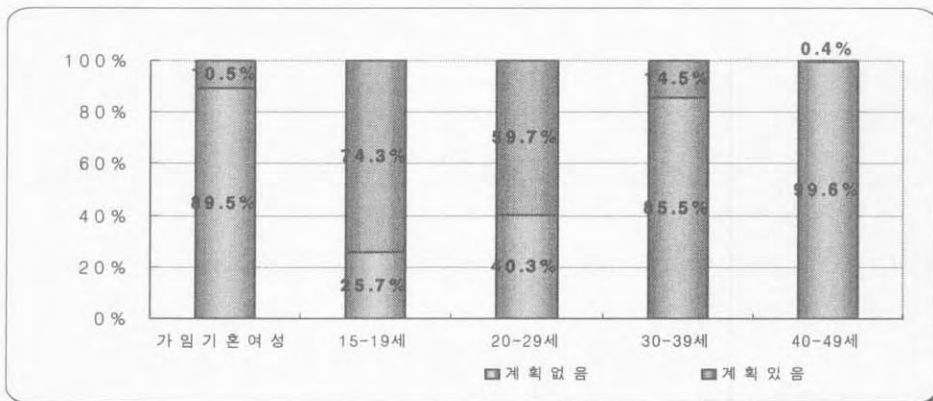
(단위 : 천명, 명, %)

연령	가임 기혼여성(15~49세)	추가자녀계획 없음	추가자녀계획 있음
가임연령	594 (100.0)	531 (89.5)	62 (10.5)
15~19	-*	(25.7)	(74.3)
20~29	46	(40.3)	(59.7)
30~39	230	(85.5)	(14.5)
40~49	318	(99.6)	(0.4)

※ 주1) * : 단위미만

출생아수	추가계획자녀수	기대자녀수
1.7	0.1	1.9

[그림4] 가임 기혼여성의 연령별 추가자녀계획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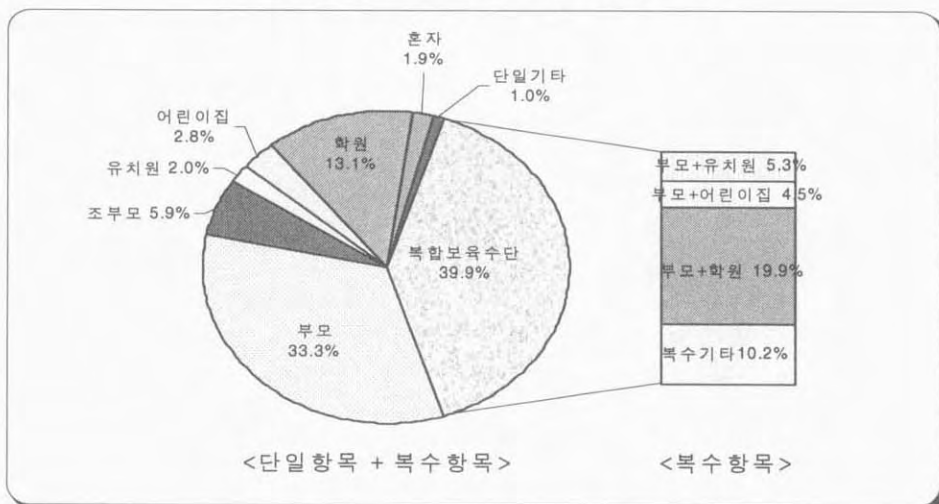
2) 아동

2.1. 아동보육상태

낮 동안 부모가 전적으로 돌보는 비율은 33.3%,
일부라도 돌보는 비율 64.9%

- 초등학교 재학이하(0~12세)인 아동 466천명에 대한 주간 보육상태를 보면, 「자녀의 부모」가 돌보는 경우가 155천명(33.3%)으로 가장 많고
 - 다음은 「부모 + 학원」이 92천명(19.9%), 「학원」 61천명(13.1%), 「조부모」 27천명(5.9%) 등으로 나타남
- 부모가 전적으로 돌보는 경우 155천명과 부모와 다른 보육방법이 결합된 복합보육 147천명을 합한 부모가 일부라도 돌보는 경우는 302천명(64.9%)임
 - 조부모가 일부라도 돌보는 경우는 52천명(11.2%)임
- 주간 「혼자 또는 아동끼리 지냄」은 9천명(1.9%)으로 나타남
- 2000년 대비 「자녀의 부모」가 전적으로 돌보는 비율은 3.7%p (37.0%→33.3%) 감소
 - 조부모가 전적으로 돌보는 비율은 0.7%p (5.2%→5.9%) 증가

[그림5] 아동보육상태별 아동 비율



<표9> 아동보육상태

(단위 : 천명, %)

2005	보육상태						복수항목선택 세부내용		
	계	단일항목선택		복수항목선택		계	186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계	466	100.0	280	60.1	186	39.9			
부모	302	64.9	155	33.3	147	31.6	부모+학원	92	19.9
조부모	52	11.2	27	5.9	25	5.3	부모+유치원	25	5.3
기타 가족, 친인척	5	1.1	3	0.6	3	0.6	부모+어린이집	21	4.5
가사도우미, 이웃사람	3	0.6	1	0.2	2	0.3	학원+혼자,아동끼리	12	2.5
유치원	41	8.8	9	2.0	32	6.8	조부모+학원	11	2.5
어린이집, 기타보육시설	40	8.5	13	2.8	26	5.7	부모+조부모	4	1.0
놀이방	1	0.3	1	0.1	1	0.2	조부모+어린이집	4	0.9
학원	180	38.8	61	13.1	120	25.7	조부모+유치원	4	0.9
혼자,아동끼리	24	5.2	9	1.9	16	3.3	부모+혼자,아동끼리	2	0.5
기타	1	0.4	1	0.2	1	0.2	기타	1	0.2

※ 주1) 아동보육상태는 주된 것 2개까지 선택가능토록 조사되었음; 복수항목선택은 해당 응답 항목에 각각 반영되어 계와 일치하지 않음 예) 부모+학원 => 부모(1), 학원(1)

주2) 계에는 아동보육상태 미상 포함

<표10> 아동의 단일보육상태 변화

(단위 : 천명, %)

	계	단 일 보 육 상 태									
		단일 계	부모	조부모	기타가족 친인척	가사 도우미, 이웃사람	유치원	어린이집, 보육시설 놀이방	학원	혼자, 아동끼리	기타
2005	466	280	155	27	3	1	9	14	61	9	1
	(100.0)	(60.1)	(33.3)	(5.9)	(0.6)	(0.2)	(2.0)	(3.0)	(13.1)	(1.9)	(0.2)
2000	570	413	211	29	4	1	20	18	113	15	1
	(100.0)	(72.5)	(37.0)	(5.2)	(0.6)	(0.3)	(3.5)	(3.2)	(19.9)	(2.7)	(0.1)
증감 (%p)	-	△12.4	△3.7	0.7	-	△0.1	△1.5	△0.2	△6.1	△0.8	0.1

2.2. 모의 동거여부별 아동보육상태

모의 동거 여부에 따른 아동보육상태(동거/비동거)

- 부모(34.9%/4.4%), 조부모(4.3%/34.7%), 혼자 또는 아동끼리(1.6%/6.3%), 기타가족 또는 친인척(0.4%/3.5%)

- 모 동거여부별 주간 아동보육상태를 보면, 「자녀의 부모」가 돌보는 경우는 “모 동거”일 경우의 34.9%, “모 비동거” 4.4%로 모 동거여부에 따른 차이가 30.5%p로 나타남
- 「조부모」가 돌보는 경우는 “모 비동거” 아동이 34.7%로 “모 동거” 아동 4.3% 보다 30.4%p 높음
- 「혼자 또는 아동끼리 지냄」은 “모 비동거” 아동이 6.3%로 “모 동거” 아동 1.6% 보다 4.7%p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기타 친척 또는 친인척」이 돌보는 경우는 “모 비동거” 아동이 3.5%로 “모 동거” 아동 0.4% 보다 3.1%p 높음

<표11> 모의 동거여부별 아동보육상태

(단위 : 천명, %)

보육 상태 동거 여부	계	단일항목선택											복수항목선택			
		단일 계	부모	조부 모	기타 가족	가사 도우 미	유 치 원	어 린 이 집 늘 이 방	기 타 보 육 시 설	학 원	혼 자 또 는 아 동 끼 리	기 타	복 합 계	부모 + 학 원	부모 + 어 린 이 집	부모 + 유 치 원
계	466	60.1	33.3	5.9	0.6	0.2	2.0	2.8	0.1	13.1	1.9	0.2	39.9	19.9	4.5	5.3
모 동거	441	59.7	34.9	4.3	0.4	0.2	2.0	2.9	0.1	13.1	1.6	0.2	40.3	20.9	4.7	5.5
모 비동거	24	66.4	4.4	34.7	3.5	0.2	1.4	2.1	0.4	12.9	6.3	0.4	32.9	1.9	0.6	0.6

※ 주1) 계에는 아동보육상태 미상 포함, 모 비동거에는 모 동거여부 미상 포함

3) 고령자

3.1. 고령인구 규모 및 추이

부산의 총인구는 3.9% 감소, 65세이상 고령자 인구는 34.8% 증가

- 부산의 65세이상 고령인구는 304천명이며 이 중 여자가 182천명(59.9%), 남자가 122천명(40.1%)으로 고령인구 중 여성 비율이 19.8%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000년에 비해 65세이상 인구는 225천명에서 304천명으로 79천명(34.8%) 증가
 - 남자 고령자 비중은 2.8%p(37.3%→40.1%) 증가하고 여자 고령자 비중은 2.8%p(62.7%→59.9%) 감소하여 남녀 고령자 비중 차이가 점차 줄어들고 있음

<표12> 고령인구 규모 및 추이

(단위 : 천명, %)

	2005		2000		증감	증감률	
	인구	구성비	인구	구성비		%	%p
총인구	3,513		3,655		△143	△3.9	-
65세이상	304	100.0	225	100.0	79	34.8	-
남자	122	40.1	84	37.3	38	44.8	2.8
여자	182	59.9	141	62.7	41	28.9	△2.8

3.2. 구·군별 고령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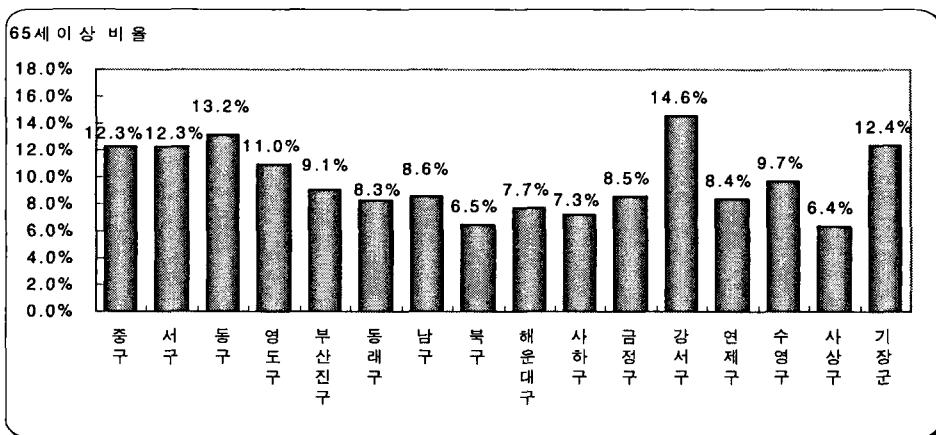
부산의 고령인구 비율은 8.7%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

- 전체인구 대비 65세이상 고령자 비율은 8.7%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남
 - 2000년에 비해 고령자 비율은 6.2%에서 2.5%p 증가하였음
- 구·군별로는 강서구의 고령인구 비중이 14.6%로 인구고령화가 가장 많이 진전되어 있고, 동구 13.2%, 기장군 12.4%, 중구·서구 각 12.3% 등임
 - 고령인구 비중이 가장 낮은 구·군은 사상구 6.4%, 북구 6.5% 등임
 - 2000년에 비해 고령인구 비중 증가가 큰 구·군은 동구(4.2%p), 영도구·강서구(각 3.7%p) 등으로 나타남
- 전체 16개 구·군 중 강서구는 고령사회, 사상구·북구를 제외한 13개 구·군이 고령화 사회로 나타남
 - 2000년에 비해 8개 구·군이 고령화 사회로 진입

※ 65세 이상 인구 구성비

- 7%이상 : 고령화사회 / 14%이상 : 고령사회 / 20%이상 : 초고령사회

[그림6] 구·군별 고령인구 비율



<표13> 구·군별 고령인구

(단위 : 천명, %)

	2005			2000			증감률 (%p)
	총인구	65세이상	비율	총인구	65세이상	비율	
합계	3,513	304	8.7	3,655	225	6.2	2.5
중구	52	6	12.3	58	5	8.8	3.4
서구	133	16	12.3	148	13	8.7	3.6
동구	103	14	13.2	121	11	8.9	4.2
영도구	158	17	11.0	178	13	7.3	3.7
부산진구	398	36	9.1	415	27	6.5	2.6
동래구	262	22	8.3	289	17	5.8	2.5
남구	293	25	8.6	289	18	6.2	2.4
북구	329	21	6.5	299	13	4.5	2.0
해운대구	393	30	7.7	395	21	5.4	2.3
사하구	359	26	7.3	374	19	5.2	2.1
금정구	258	22	8.5	284	17	6.0	2.6
강서구	46	7	14.6	54	6	10.9	3.7
연제구	211	18	8.4	215	13	6.1	2.4
수영구	172	17	9.7	175	12	6.9	2.8
사상구	273	18	6.4	293	13	4.3	2.1
기장군	73	9	12.4	68	7	10.1	2.2

<표14> 고령화 수준별 구·군

(단위 : 개, %)

	2005		2000		증감	증감률(%p)
	개	(%)	개	(%)		
계	16	(100.0)	16	(100.0)	-	
7% 미만	2	(12.5)	11	(68.8)	9	56.3
고령화 사회	13	(81.3)	5	(31.3)	8	50.0
고령 사회	1	(6.3)	0	(0.0)	1	6.3
초고령 사회	0	(0.0)	0	(0.0)	-	-

3.3. 특·광역시별 고령인구

7개 특·광역시 중 부산의 고령인구 비율이 8.7%로 가장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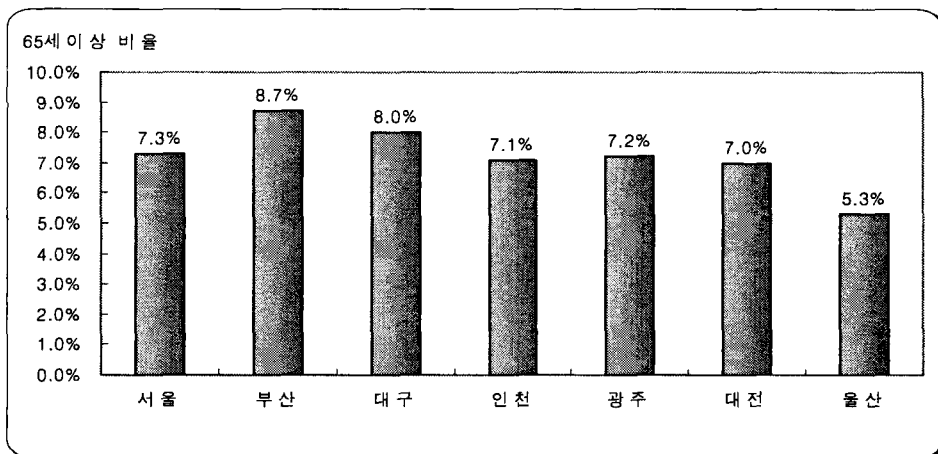
- 7개 특·광역시의 고령인구 비율을 비교하여 보면 부산이 8.7%로 가장 높음
- 2000년 대비 고령인구 증감률 또한 부산이 2.5%p로 가장 높아 부산의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15> 특·광역시별 고령인구

(단위 : 천명, %)

	2005			2000			증감률 (%p)
	총인구	65세이상	비율	총인구	65세이상	비율	
부 산	3,513	304	8.7	3,655	225	6.2	2.5
전 국	47,041	4,365	9.3	45,985	3,372	7.3	2.0
서 울	9,763	711	7.3	9,854	535	5.4	1.9
대 구	2,456	197	8.0	2,474	147	5.9	2.1
인 천	2,518	179	7.1	2,466	137	5.5	1.6
광 주	1,414	101	7.2	1,351	75	5.6	1.6
대 전	1,439	101	7.0	1,366	75	5.5	1.5
울 산	1,045	56	5.3	1,012	41	4.0	1.3

[그림7] 시도별 고령인구 비율



3.4. 혼인상태 및 세대구성

**고령자의 1세대 가구 비중은 5년전보다 4.8%p,
1인가구 비중은 2.8%p 증가**

- 고령자(304천명)의 혼인상태는 유배우가 160천명(52.8%)으로 가장 많고, 사별 136천명(44.8%), 이혼 6천명(1.8%), 미혼 2천명(0.6%)으로 나타남
 - 2000년에 비해 사별은 5.8%p (50.6%→44.8%) 감소하고 유배우는 4.8%p (47.9%→52.8%) 증가
 - 평균수명 증가 및 남녀 평균수명 차이 감소 등으로 유배우 인구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표16> 혼인상태별 고령인구

(단위 : 천명, %)

	2005		2000		증감	
	계	구성비	계	구성비	계	%p
계	304	100.0	225	100.0	79	-
미 혼	2	0.6	1	0.4	1	0.2
유 배 우	160	52.8	108	47.9	52	4.8
사 별	136	44.8	114	50.6	22	5.8
이 혼	6	1.8	2	1.1	3	0.8

- 세대구성은 1세대 가구가 28.9%, 2세대 27.6%, 3세대 24.5%등으로 나타남
 - 2000년에 비해 3세대 이상 가구가 9.7%p(34.6%→24.9%) 감소, 1세대 가구는 4.8%p(24.1%→28.9%) 증가, 1인가구는 2.8%p(15.4%→18.2%) 증가

<표17> 세대구성별 고령인구

(단위 : 천명, %)

	2005		2000		증감	
	계	구성비	계	구성비	계	%p
계	300	100.0	223	100.0	77	-
1세대가구	87	28.9	54	24.1	33	4.8
2세대가구	83	27.6	57	25.5	26	2.2
3세대가구	73	24.5	76	34.0	△2	△9.5
4세대이상가구	1	0.4	1	0.6	0	△0.3
1인가구	55	18.2	34	15.4	20	2.8
비친족가구	1	0.4	1	0.3	0	0.1

※ 주1) 표본항목 집계결과로 전수집계 1인가구수와 일부 차이남

3.5. 경제활동

「단순노무종사자」 6.5%p 증가하고,
「농림어업 숙련종사자」는 3.8%p 감소

- 고령자 중 직업을 가진 330백명의 분포는 「단순노무 종사자」 비율이 26.5%로 가장 높고, 「판매종사자」 20.6%,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12.8%, 「서비스 종사자」 7.7%등으로 나타남
 - 2000년에 비해 「단순노무 종사자」 비중은 6.5%p (20.0%→26.5%) 증가하고,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3.8%p (16.6%→12.8%), 「판매종사자」 3.5%p (24.1%→20.6%) 감소
- 종사상의 지위별 분포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비율이 43.4%로 가장 높고, 「임금근로자」 38.3%, 「고용원을 둔 사업주」 10.7%, 「무급가족종사자」 7.6% 임

<표18> 직업 및 종사상지위별 고령인구

(단위 : 백명, %)

	직업	2005		2000		증 감	
		인구	구성비	인구	구성비	인구	%p
	계	330	100.0	223	100.0	107	-
직업	0.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20	6.1	15	6.7	5	△0.5
	1.전문가	15	4.7	11	5.1	4	△0.4
	2.기술공 및 준전문가	12	3.6	8	3.8	3	△0.2
	3.사무종사자	15	4.6	11	4.8	5	△0.1
	4.서비스종사자	25	7.7	17	7.5	9	0.2
	5.판매종사자	68	20.6	54	24.1	14	△3.5
	6.농업, 임업 및 어업 숙련종사자	42	12.8	37	16.6	5	△3.8
	7.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20	6.0	12	5.3	8	0.7
	8.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25	7.5	14	6.3	11	1.2
9.단순노무종사자	87	26.5	45	20.0	43	6.5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126	38.3	73	32.8	53	5.5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143	43.4	108	48.5	35	△5.1
	고용원을 둔 사업주	35	10.7	24	10.9	11	△0.2
	무급가족종사자	25	7.6	17	7.8	8	△0.2

3.6. 생활비

**생활비 전부를 스스로 마련하는 고령자는 18.5%,
일부라도 마련하는 고령자는 37.7%**

- 고령자의 생활비는 77천명(25.5%)이 「따로 사는 자녀」를 통하여 마련하고 있으며,
 - 「함께 사는 자녀」 72천명(23.7%), 「본인·배우자의 일, 직업」 29천명(9.5%), 「국가·지방자치단체 보조」 22천명 (7.1%) 등임
- 생활비 원천을 2개 응답한 경우는 「함께 사는 자녀 + 따로 사는 자녀」 13천명 (4.4%), 「예금·적금 + 따로 사는 자녀」가 9천명(2.8%), 「부동산+ 따로 사는 자녀」가 6천명(1.9%) 임
- 생활비 전부를 스스로 마련하는 고령자는 56천명(18.5%)이며, 일부라도 마련하는 고령자는 114천명(37.7%)임

<표19> 고령자 생활비

(단위 : 천명, %)

	고령자 생활비						복수항목선택 세부내용		
	계	단일항목선택		복수항목선택		계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계	304	100.0	234	77.1	70	22.9	계	70	22.9
본인 스스로 마련	115	37.7	56	18.5	58	19.1	함께 사는 자녀+ 따로 사는 자녀	13	4.4
· 본인, 배우자의 일, 직업	42	13.8	29	9.5	13	4.3	예금, 적금+ 따로 사는 자녀	9	2.8
· 예금, 적금	28	9.3	10	3.2	18	6.0	부동산 + 따로 사는 자녀	6	1.9
· 연금	23	7.9	11	3.6	13	4.4	본인, 배우자의 일, 직업+ 따로 사는자녀	5	1.5
· 부동산	20	6.5	7	2.1	13	4.4	따로 사는 자녀 + 국가·지자체보조	5	1.5
· 주식, 채권, 증권	-*	0.1	-*	0.0	-*	0.0	따로 사는 자녀+ 연금	3	0.9
함께 사는 자녀	96	31.5	72	23.7	24	7.8	본인, 배우자의 일, 직업+ 함께 사는 자녀	2	0.8
따로 사는 자녀	121	39.8	77	25.5	44	14.4	본인, 배우자의 일, 직업+ 예금, 적금	2	0.5
친·인척	3	0.9	1	0.5	1	0.4	기타	23	7.8
국가지자체보조	31	10.3	22	7.1	10	3.2			
종교사회단체보조	3	0.9	1	0.5	1	0.4			
기타	5	1.8	4	1.3	2	0.5			

※ 주1) 복수항목선택은 해당 응답항목에 각각 반영되어 계와 일치하지 않음
 예) 본인 일 + 자녀 => 본인 일(1), 자녀(1)
 주2) * : 단위미만

4) 활동제약자

4.1. 성, 연령별 활동제약자

5세이상 인구 중 활동제약자수(정신적·육체적, 일상생활) 181천명(5.5%)

- 5세이상 인구 3,319천명 중 정신적·육체적 활동제약이 있는 인구는 178천명(5.4%), 일상생활 활동제약이 있는 인구는 122천명(3.7%)인 것으로 나타남
 - 정신적·육체적 활동제약과 일상생활 활동제약이 모두 있는 인구는 119천명(3.6%), 정신적·육체적 활동제약이나 일상생활 활동제약이 하나라도 있는 인구는 151천명(5.5%) 임
- 성별로는 활동제약이 하나라도 있는 여자비율은 6.2%로 남자(4.7%)보다 높음
- 연령별로는 60세이상 465천명 중 113천명(24.4%)은 「정신적·육체적 활동제약」을 갖고 있으며, 「일상생활 활동제약자」는 80천명(17.3%)이며,
 - 두 가지 제약 중 하나라도 있는 인구는 115천명(24.7%) 임

<표20> 성, 연령별 활동제약자

(단위 : 천명, %)

	5세이상 인구	활동제약 없음	하나라도 있음	정신적·육체적, 일상생활 모두 활동제약	정신적·육체적 활동제약	일상생활 활동제약
계	3,319 (100.0)	3,120 (94.0)	181 (5.5)	119 (3.6)	178 (5.4)	122 (3.7)
남자	1,609	94.7	4.7	3.1	4.7	3.2
여자	1,709	93.3	6.2	4.1	6.1	4.2
5~19세	676	99.1	0.4	0.3	0.4	0.3
20~29	531	98.6	0.9	0.6	0.9	0.7
30~39	545	97.8	1.7	1.0	1.6	1.1
40~49	629	96.3	3.1	1.9	3.1	2.0
50~59	474	93.2	6.3	3.6	6.2	3.7
60세이상	465	74.7	24.7	17.0	24.4	17.3

※ 활동제약은 해당되는 곳 모두에 표시하도록 조사하였음

※ 5세이상 인구에는 활동제약 미상 포함

4.2. 활동제약 형태

**일상생활 활동제약자 중 집밖 활동 제약자 90천명,
집안 활동 제약자 29천명**

- 정신적·육체적 활동제약자 178천명 중 「육체적 활동제약자」가 143천명(4.3%), 「시각·청각·언어 장애」 30천명(0.9%), 「정신적 활동제약자」 30천명(0.9%), 「중풍」 14천명(0.4%), 「치매」 5천명(0.2%)으로 나타남
- 일상생활 활동제약인구 122천명 중 「집밖 활동 제약자」가 90천명(2.7%), 「취업활동 제약자」 40천명(1.2%), 「배우기, 기억하기, 집중하기 제약자」 38천명(1.2%), 「집안 활동 제약자」 29천명(0.9%) 으로 나타남

<표21> 활동제약 형태

(단위 : 천명, %)

정신적·육체적 활동제약			일상생활 활동제약		
	활동제약자	비율		활동제약자	비율
하나라도 있음	178	5.4	하나라도 있음	122	3.7
시각·청각·언어장애	30	0.9	배우기·기억·집중하기	38	1.2
치매	5	0.2	집안 활동 (옷입기, 목욕하기 등)	29	0.9
중풍	14	0.4	집밖 활동 (쇼핑, 병원가기 등)	90	2.7
육체적 제약 (걷기, 계단오르기, 들고 운반하기 등)	143	4.3	취업활동(15세이상)	40	1.2
정신적 제약 (학습어려움, 정신적 질환 등)	30	0.9			

※ 주1) 활동제약은 해당되는 곳 모두에 표시하도록 조사하였음

4.3. 경제활동

**정신적·육체적 활동제약자 중 취업인구는 193백명(10.9%),
일상생활 제약자 중 취업인구는 76백명(6.3%)**

- 15세이상 「정신적·육체적 활동제약」 인구 1,768백명 중 취업자는 193백명 (10.9%)이고, 15세이상 「일상생활 활동제약」 인구 1,209백명 중 취업자는 76백명(6.3%)임
- 「활동제약자」의 취업자 비율은 전체인구에 대한 취업자 비율(45.6%)의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임
- 활동제약자의 직업별로는 「단순노무종사자」가 각각 「정신적·육체적 활동제약」 인구와 「일상생활 활동제약」 인구의 24.6%, 25.5%, 「판매종사자」가 각각 16.6%, 15.7%,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가 각각 13.5%, 14.4%임

<표22> 활동제약자의 경제활동상태

(단위 : 백명, %)

	전 체		정신적·육체적 활동제약		일상생활 활동제약	
	인구	구성비	인구	구성비	인구	구성비
15세 이상	28,782	100.0	1,768	100.0	1,209	100.0
취업자	13,124	45.6	193	10.9	76	6.3
미취업자	15,658	54.4	1,575	89.1	1,133	93.7
0.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621	4.7	5	2.8	21	1.7
1.전문가	1,265	9.6	5	2.8	2	3.0
2.기술공 및 준전문가	1,204	9.2	7	3.9	4	4.6
3.사무종사자	2,134	16.3	11	5.7	3	4.5
4.서비스종사자	1,422	10.8	22	11.3	10	12.5
5.판매종사자	1,742	13.3	32	16.6	12	15.7
6.농업, 임업 및 어업숙련종사자	199	1.5	14	7.0	5	7.2
7.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1,582	12.1	26	13.5	11	14.4
8.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651	12.6	23	11.7	8	10.8
9.단순노무종사자	1,278	9.7	48	24.6	19	25.5

※ 주1) 15세이상에는 취업 미상, 미취업자에는 직업 미상 포함

5) 혼인(초혼)연령

5.1. 성, 연령별 혼인연령

평균 혼인 연령은 남자가 27.7세, 여자가 23.9세

- 혼인(초혼)연령별 분포는, 남자는 25~29세가 56.2%, 20~24세가 18.5%, 30~34세가 18.4% 등이며,
 - 여자는 20~24세가 48.6%, 25~29세가 29.5%, 19세이하가 15.5% 순임
- 15세이상 인구의 평균 혼인연령은 남자는 27.7세 여자는 23.9세로 남자가 3.8세 높음
- 연령별로는 남자 60세이상은 27.1세, 50대 27.5세, 40대 27.9세, 30대 28.4세이며,
 - 여자는 60세이상 21.8세, 50대 23.6세, 40대 24.6세, 30대 25.7세로 나타남

<표23> 성, 연령별 혼인연령

(단위 : 천명, %)

연령 \ 초혼연령	계	19세이하	20~24	25~29	30~34	35~39	40세이상	평균 초혼연령
여자	1,094 (100.0)	169 (15.5)	532 (48.6)	322 (29.5)	50 (4.6)	12 (1.1)	6 (0.5)	23.9 -
15~29세	46	5.8	46.3	47.7	-	-	-	24.5
30~39	230	3.5	38.1	49.6	8.0	0.7	-	25.7
40~49	318	8.8	53.3	31.2	4.7	1.4	0.5	24.4
50~59	238	12.9	59.8	22.0	3.6	0.9	0.6	23.6
60세이상	262	38.1	42.3	13.3	3.2	1.4	1.0	21.8
남자	902 (100.0)	22 (2.4)	167 (18.5)	507 (56.2)	166 (18.4)	28 (3.1)	10 (1.1)	27.7 -
15~29세	19	3.9	28.7	67.0	-	-	-	25.5
30~39	175	0.9	10.8	59.3	26.5	2.3	-	28.4
40~49	280	1.7	17.3	56.5	19.3	3.8	1.1	27.9
50~59	228	1.6	19.5	60.5	14.4	2.4	1.3	27.5
60세이상	199	5.6	24.8	47.0	16.2	4.0	1.9	27.1

※ 계에는 혼인(초혼)연령 미상 포함

6) 1인 가구

6.1. 규모 및 추이

전체가구 증가율은 5.9%, 1인가구 증가율은 44.3%

- 부산의 1인가구수는 223천 가구로 전체가구(1,186천 가구)의 18.8%이며, 2000년 154천 가구에서 68천 가구(44.3%) 증가하였음
 - 1인가구 중 여자 가구가 130천 가구(58.5%)로 남자 가구(92천명, 41.5%)보다 많음
- 1인가구 비율은 95년 10.7%, 2000년 13.8%, 2005년 18.8%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2000년에 비해 1인가구 증가율은 44.3%로 전체가구 증가율(5.9%)보다 높음

<표24> 1인가구 규모 및 추이

(단위 : 천가구, %)

	2005		2000		1995
		증감률		증감률	
총가구	1,186	5.9	1,120	3.8	1,079
1인가구	223	44.3	154	33.5	116
(비율)	(18.8)	-	(13.8)	-	(10.7)
- 남자	92	51.2	61	28.0	48
- 여자	130	39.7	93	37.3	68

6.2. 구·군별 1인가구 비율

1인가구 비율이 높은 구·군은 중구 32.6%, 서구 23.9% 등이며
 일상생활 제약자 비율은 강서구 6.6%, 동구 6.5% 등임

- 구·군별 1인가구 비율은 중구 32.6%, 서구 23.9%, 동구 23.6% 등으로 높게 나타남
- 남성 1인가구 비율은 사상구(50.3), 사하구(45.3%)가 높고, 여성 1인가구는 기장군(64.0%), 동래구(62.7%) 등이 높게 나타남

<표25> 구·군별 1인가구

(단위 : 천가구, %)

	전체가구	1인가구		남		여	
합 계	1,186	223	(18.8)	92	(41.5)	130	(58.5)
중 구	21	7	(32.6)	3	(44.0)	4	(56.0)
서 구	48	11	(23.9)	4	(38.7)	7	(61.3)
동 구	37	9	(23.6)	4	(39.6)	5	(60.4)
영도구	54	10	(19.4)	4	(40.7)	6	(59.3)
부산진구	138	29	(21.1)	12	(41.7)	17	(58.3)
동래구	87	15	(16.8)	5	(37.3)	9	(62.7)
남 구	99	18	(18.3)	8	(42.8)	10	(57.2)
북 구	106	16	(14.7)	7	(42.0)	9	(58.0)
해운대구	131	22	(17.1)	9	(38.3)	14	(61.7)
사하구	118	19	(16.2)	9	(45.3)	10	(54.7)
금정구	87	17	(19.9)	7	(42.2)	10	(57.8)
강서구	15	3	(22.6)	1	(43.2)	2	(56.8)
연제구	71	12	(17.6)	5	(40.2)	7	(59.8)
수영구	60	12	(19.3)	4	(37.7)	7	(62.3)
사상구	90	16	(18.3)	8	(50.3)	8	(49.7)
기장군	24	5	(19.3)	2	(36.0)	3	(64.0)

6.3. 연령 및 혼인상태

유배우이나 직장문제 등으로 혼자 사는 1인가구는 23천 가구

- 1인가구의 연령별 분포는 60세 이상이 72천 가구(32.4%)로 가장 높고, 40대 39천 가구(17.5%), 30대 38천 가구(17.1%), 20대 36천 가구(16.1%) 등임
 - 2000년에 비해 연령별 1인가구의 증가율은 50대가 58.3%로 가장 높고, 60세이상 51.3%, 40대 46.4% 등임

- 혼인상태별 분포는 미혼이 87천 가구(39.0%)로 가장 많고, 사별 74천 가구(33.3%), 이혼 39천 가구(17.6%), 유배우 23천 가구(10.1%) 등임
 - 2000년에 비해 미혼 1인가구는 27천 가구(45.9%) 증가하고, 사별 20천 가구(36.7%), 이혼 16천 가구(69.5%), 유배우 5천 가구(29.3%) 증가
 - 배우자가 있으나 직장 등의 문제로 가족과 떨어져 사는 1인가구가 23천 가구로 2000년 17천 가구에서 5천 가구(29.3%) 증가

<표26> 연령 및 혼인상태별 1인가구

(단위 : 천가구, %)

	2005		2000		증감	증감률
	천가구	구성비	천가구	구성비		
계	223	100.0	154	100.0	68	44.3
15~19세	3	1.2	2	1.4	-	22.1
20~29	36	16.1	27	17.5	9	33.1
30~39	38	17.1	29	18.6	9	32.4
40~49	39	17.5	27	17.2	12	46.4
50~59	35	15.7	22	14.3	13	58.3
60세이상	72	32.4	48	30.9	24	51.3
미 혼	87	39.0	59	38.6	27	45.9
유배우자	23	10.1	17	11.3	5	29.3
사 별	74	33.3	54	35.1	20	36.7
이 혼	39	17.6	23	14.9	16	69.5

6.4. 경제활동

**직업별로는 서비스종사자가 16천 가구로 가장 많으며
기술공 및 준전문가 1인가구 증가율(103.1%)이 가장 높음**

- 1인가구 221천 가구 중 취업 중인 1인가구는 95천 가구(43.1%), 미취업은 126천 가구(56.9%)임
 - 2000년에 비해 취업 중인 가구는 67천 가구(34.5%) 증가하고, 미취업은 42천 가구(50.7%) 증가
- 직업별로는 서비스종사자가 16천 가구로 가장 많으며, 사무종사자, 판매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가 각각 11천 가구로 나타남
- 2000년에 비해 직업별 증가율은 기술공 및 준전문가 103.1%, 전문가 76.7%, 농업·임업 및 어업숙련종사자 57.6% 등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27> 경제활동별 1인가구

(단위 : 천가구, %)

	2005	2000	증 감	증감률
계	221	154	67	43.3
취업	95	71	24	34.5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3	2	1	18.2
전문가	8	5	4	76.7
기술공 및 준전문가	8	4	4	103.1
사무종사자	11	8	3	33.3
서비스종사자	16	14	3	19.2
판매종사자	11	10	1	15.1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련종사자	2	1	1	57.6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11	10	1	11.1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0	8	3	37.4
단순노무종사자	14	9	5	51.1
미취업	126	83	42	50.7

※ 주1) 계에는 취업여부 미상, 취업에는 직업 미상 포함

주2) 표본항목 집계결과로 전수집계 1인가구수와 일부 차이남

6.5. 주거실태

**단독주택의 거주비율은 감소하고,
아파트, 다세대주택·오피스텔은 증가**

- 1인가구의 거처종류는 단독주택이 126천 가구(56.5%)로 가장 많고, 아파트 57천 가구(25.8%), 다세대주택 17천 가구(7.5%), 오피스텔 9천 가구(4.1%) 등
 - 2000년에 비해 아파트, 다세대 주택 거주비율이 각각 5.5%p 증가하고 오피스텔 거주비율은 3.8%p 증가
 - 단독주택 거주비율은 12.6%p 감소

- 점유형태는 월세비율이 42.7%, 자기집 26.9%, 전세 25.4%이며, 2000년에 비해 전세 및 자기집 비중이 각각 3.0%p, 1.7%p 증가하고 기타 점유형태는 감소

<표28> 거처종류 및 점유형태별 1인가구

(단위 : 천가구, %)

		2005		2000		증감	
			구성비		구성비		%p
계		223	100.0	154	100.0	68	-
거처 종류	주택	221	95.0	152	98.8	59	△3.8
	· 단독주택	126	56.5	107	69.1	19	△12.6
	· 아파트	57	25.8	31	20.3	26	5.5
	· 연립주택	5	2.4	5	3.0	1	△0.6
	· 다세대주택	17	7.5	3	1.9	14	5.6
	· 비거주용건물내주택	6	2.8	7	4.6	△1	△1.8
	주택이외거처	11	5.0	2	1.2	9	3.8
	· 오피스텔	9	4.1	-	0.3	9	3.8
· 기타	2	1.0	1	0.9	1	0.1	
점유 형태	자기집	60	26.9	39	25.2	21	1.7
	전세	56	25.4	46	29.8	10	△4.4
	월세	95	42.7	61	39.7	34	3.0
	사글세	3	1.2	1	0.8	1	0.4
	무상	9	3.9	7	4.4	2	△0.5

여 백

Ⅲ. 주요용어 설명

< 전수부문 >

1. 인 구

- 인구피라미드 : 연령별 남녀인구를 절대수나 백분율로 나타낸 것으로 인구 구조를 전체적으로 가장 알기 쉽게 볼 수 있음
 - 종 류 : 피라미드형, 종형, 항아리형, 별형(도시형), 주발형(농촌형)
- 인구밀도 : 인구분포의 조밀한 정도를 측정하는 대표적 지표
 - 인구밀도 = 인구(명)/국토면적(km²)
- 접근도 : 사람들이 균등하게 분포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인접사람과의 평균거리
 - 접근도 = $\sqrt{\text{국토면적(km}^2\text{)}/\text{인구(명)}}$
- 성 비 : 여자 100명당 남자의 수
 - 성 비 = (남자인구(명)/여자인구(명)) × 100
- 노령화 지수 = {노년인구/ 유소년인구} × 100

2. 가 구

- 가 구 :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하는 생활 단위를 말함.
 - 일반가구 : 가족으로 이루어진 가구, 가족과 5인 이하의 남남이 함께 사는 가구, 가족이 아닌 5인 이하의 남남이 함께 사는 가구, 1인가구
 - 집단가구 : 가족이 아닌 6인이상이 생활하는 가구, 기숙사나 고아원, 양로원, 보육원 등 사회시설에 살고 있는 가구

- 외국인가구 :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가구(한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사는 가구는 '일반가구'로 분류하였으며, 내국인과 동일한 항목을 응답)
- 세대별 가구 : 일반가구에 한하여 가구주와 그 가족의 친족관계에 따라서 1세대가구, 2세대가구 등으로 구분함.
 - 1세대 가구 : 가구주와 동일세대에 속하는 친족만이 같이 사는 가구
예)부부, 부부+형제자매, 가구주+형제자매
 - 2세대 가구 : 가구주와 그 직계 또는 방계의 친족이 2세대에 걸쳐 같이 사는 가구
예)부부+자녀, 부+자녀, 모+자녀, 부부+양친
 - 3세대 가구 : 가구주와 그 직계 또는 방계의 친족이 3세대에 걸쳐 같이 사는 가구
예)부부+자녀+양친, 부부+자녀+한부모
 - 4세대이상 가구 : 가구주와 그 직계 또는 방계의 친족이 4세대 이상에 걸쳐 같이 사는 가구
- ※ 「한 부모」 가구 : 부+자녀 또는 모+자녀 형태의 가구
- 가구주의 교육정도 : 재학, 중퇴인 경우에도 해당 교육정도로 집계
(예, 고등학교 중퇴 → 고등학교)

3. 주 택

- 주 택 : 가구가 살수 있도록 지어진 집으로서 주택의 요건을 갖춘 단독 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거주용건물내 주택을 말함.
- ▷ 주택의 요건 : ① 영구건물, ② 한 개 이상의 방과 부엌, ③ 독립된 출입구, ④ 소유 또는 매매의 한 단위
- 단독주택 : 한가구가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된 '일반단독주택'과 여러 가구가 살수 있도록 설계된 '다가구 단독주택', 주거용 부분과 영업용 부분이 함께 있는 건물 중 주거부분이 영업용 부분과

같거나 더 많은 '영업겸용 단독주택'으로 분류

- 아파트 : 한 건물내에 여러 가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되어진 5층이상의 영구건물로서 구조적으로 한 가구씩 독립하여 살 수 있도록 건축된 주택
- 연립주택 : 한 건물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4층 이하의 영구 건물로서 연면적이 200평이 넘는 주택이거나, 건축당시 연립주택으로 허가받은 주택
- 다세대주택 : 한 건물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4층 이하의 영구 건물로서 건물의 연면적이 200평 이하이면서 건축당시 다세대주택으로 허가받은 주택
- 비거주용건물내 주택 : 영업용 목적으로 건축된 건물내에 사람이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으로서 주택의 요건을 갖춘 주택
- 빈집 : 사람이 살지 않는 주택을 말하며 신축되어 아직 입주하지 않은 주택도 포함함.(오랫동안 방치된 폐가는 제외)
- 타지 주택소유 : 가구주나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현재 살고 있는 집 이외에 다른 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를 말함
- 주요 지표 (일반가구)
 - 평균가구원수 = \sum 가구원수/가구수
 - 가구당 평균 사용방수 = \sum 사용방수/가구수
 - 1인당 평균 사용방수 = \sum 사용방수/가구원수

<표본부문>

1. 인구이동·통근통학

- 5년전 거주지 : 5세이상인 사람에 대하여 5년전(2000.11.1)에 거주하였던 곳을 말함

- **인구이동** : 시, 구·군 경계를 기준으로 거주지를 이동한 것을 말함
- **통근·통학인구**
 - 통근인구 : 12세이상 인구 중 정기적으로 직장에 근무하러 다니는 자
 - 통학인구 : 12세이상 인구 중 정규학교(원)뿐만 아니라 입시준비학원, 이미용학원, 각종 기술학원 및 직업훈련원 등에 다니는 자
- **통근·통학장소** : 근무처 또는 학교(원)의 소재지를 말하며 근무처가 일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된 활동지역을 말함
- **이용교통수단** : 평상시 출근 또는 등교시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말함
 - 이용교통수단으로 시내/좌석/마을버스, 기타버스, 고속/시외버스, 전철/지하철, 기차, 승용차, 택시, 자전거, 기타로 구분
 - 도보는 별도의 이용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조사
 - 이용교통수단이 2종류 이상인 경우 주된 이용교통수단 2가지만 조사
- **주간인구** : 해당 지역의 상주인구에 타 지역으로부터 유입된 통근통학인구(유입인구)를 더하고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통근통학인구(유출인구)를 뺀 것
 - 주간인구지수 : $\text{주간인구} / \text{상주인구} \times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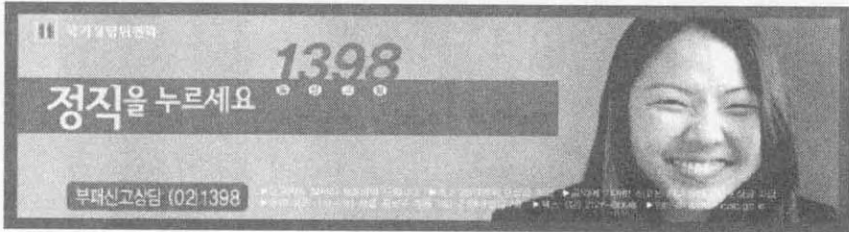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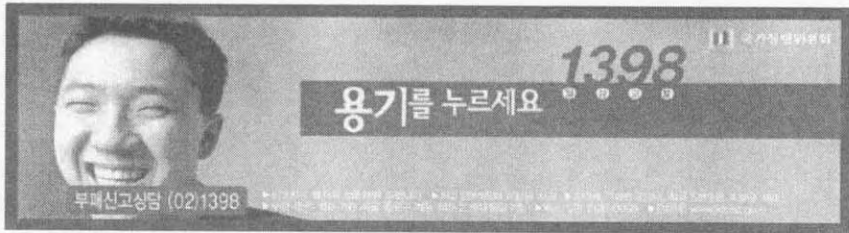
2. 주거실태·경제활동

- **거주기간** : 가구원 중 가장 오래 살고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조사
- **사 글 세** : 1년 또는 10개월치의 집세를 한꺼번에 지불하고 매월 1개월분의 집세를 공제하는 임차 형태
- **옥상(옥탑)** : 건물 옥상에 설치된 주거 공간
- **주차시설** :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을 때 가구에서 주로 주차하고 있는 장소를 기준으로 조사

- 근로장소 : 근로자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장소

3. 여성·아동·고령자·활동제한자·혼인연령·1인가구

- 출생아수 : 자신이 직접 낳은 자녀만을 대상으로 조사
- 아동보육 : 지난 일주일 동안의 주간 아동 보육상태로 주된 것 2개까지 조사
- 정신적·육체적 활동제한 : 6개월 이상 지속되어 왔거나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신적·육체적 제약
- 고령자 생활비 원천 : 본인 및 배우자 양쪽 모두 포함하여 주된 것 2개까지 조사
- 혼인연령 : 재혼의 경우 초혼을 기준으로 조사



2005
Census 인구주택총조사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부산의 인구 · 주택 변화상

- 발 행 || 2007년 12월
- 발행인 || 백 만 기
- 발행처 || 부산지방통계청
- 기 획 || 박 희 순
- 편 집 || 이 동 식, 안 영 민
- 주 소 || (우) 611 - 829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로 27
- 전 화 || 051-850-3388
- 팩 스 || 051-851-9027
- 홈페이지 || <http://busan.nso.go.kr>

비매품

- ISSN || 1976-653X

- 인 쇄 || 씨앤피카피뱅크 (051-516-3105)